

전략연구 2011 - 15

충남의 농촌지역 리더활동 실태조사

강마야·송주연

발 간 사

지역별 격차 및 지역혁신역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지역리더의 존재여부, 리더의 수행역할로서 이에 따라 지역발전 정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농촌 주민과 소통하며 내발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농촌의 지역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연구는 우선 리더의 과업에 따른 역할 유형을 구분하고, 각 역할에 따라 리더가 어떠한 문제해결방식을 구사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충남 7개 시군별 조사를 통해 지역리더들의 역할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리더의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농촌지역 리더육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농촌지역 리더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리더 개념을 정립, 도출하였고, 둘째, 농촌지역 리더육성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충남의 정책동향을 검토하였고, 셋째, 충남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의 농촌지역 리더활동 실태조사 결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농촌지역 리더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충남 농촌지역의 숨겨진 사례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보여줌으로써 리더에 대한 정의, 역할 등 개념을 환기하였습니다. 조사방문한 리더들의 추천과정은 시군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쳐 도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주변관계자의 조사까지 추가됨으로써 내용의 깊이와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고 좀 더 현장지향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역리더란 중앙정부 의존적 태도를 지양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수행자임을 수없이 되뇌어 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충청남도, 16개 시군 행정관계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고견을 주신 농어업인 리더들, 그리고 연구책임자인 강마야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요약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 리더와 관련된 연구동향 검토 및 지역리더 개념 도출, 둘째, 농촌지역 리더육성과 관련된 중앙 정부 및 충남의 정책동향 검토, 셋째, 충남 7개 시군 농촌지역 리더활동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넷째, 충남 농촌지역 리더활동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정책제언을 하였다.

1) 농촌지역 리더와 관련된 연구동향 검토 및 지역리더 개념 도출

첫째, 리더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리더의 핵심역량 및 특성지표들이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가소득 향상 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리더의 역량 및 특성지표로는 인간관계 역량, 감성 및 인지역량, 관리역량, 리더쉽 역량, 의사소통역량, 산업지식 및 기술역량, 농업경영역량 등으로 구분하였다. 농촌지역 리더의 특징은 인적자본·사회자본·외부적 측면, 지역농업 실천 측면으로 보고 지자체 농정목표 실현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리더의 역할을 유형화하여 인적사항별 역할수행정도를 평가, 마을의 발전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리더의 역할과 마을의 발전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크게 리더의 인적자본, 마을사회 내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마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효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자연적 여건 등으로 보았다.

둘째, 리더육성을 위한 교육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농촌리더들의 리더쉽 교육 참여실태를 참여경험, 참여횟수, 교육 후 활용정도로 나눠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내실있는 리더쉽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농촌리더의 교육요구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농촌지역리더의 역량강화프로그램 기본구조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방향과 농촌지역리더교육프로그램 개발내용을 제시하였는데 뉴리더 발굴 및 핵심리더 양성, 한국형LEADER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였다. 지역별 리더육성에 대한 인식차

이에 주목하여 지역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동기배양과 리더 발굴과정(초급과정), 전문분야와 결합한 리더십 특화과정, 리더십 심화과정 3가지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충남 차원에서의 인적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계몽과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충남 독자적인 현장체험·계획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 2~3개 면단위에서의 순회방문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지역리더란 중앙정부 의존적 태도 지양,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수행자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리더의 유형과 역할은 리더십 철학이나 시대의 변화, 지역리더가 활동하는 공간범위 지역리더의 객관적 위치(지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리더를 조직의 비전제시자·지역계획자·지역 내외부 네트워크·조직관리자·각 주체간 의사소통자·지역자원 발굴자 등의 역할구분에 따른 핵심요소를 정리하였다.

2) 농촌지역 리더육성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충남의 정책동향 검토

리더육성 및 교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농림부가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그 방식도 종래의 하향식에서 상향식,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지역리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들이 시작되었다.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된 계획은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 속해 있다.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의 농산어촌 지역개발 하부 계획으로 포함되었던 ‘인적자원육성’ 내용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구

체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농촌인력육성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녹색농촌체험마을동기화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과정 안에 리더쉽강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이 담겨있다.

최근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2011)」을 살펴보면, 그 기본방향은 교육기관의 기능에 따른 전문교육 추진,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교육 운영,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대국민교육 추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는 2011년에 3농혁신 기본계획(2012-2014) 수립에 따라 리더육성과 관련한 정책이 독자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리더’ 개념정립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리더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리더를 인력육성 및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사고하는 한계점, 리더육성이 일반적으로 농산어촌 지역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인식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 충남 7개 시군 농촌지역 리더활동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조사의 개요로는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충남 16개 시군 중 7개 시군 -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아산시 - 의 리더 15명, 행정관계자 16명, 농협 1명 총 31명을 직접 면담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리더추천, 사전 정보탐색, 직접 방문 및 인터뷰, 리더 주변인들의 평가의견 청취, 사후 자료수집 등을 채택하였다. 조사 목적은 지역별 리더들의 활동 실태조사 수집 및 정리하고 리더 활동을 통해 지역내 전·후 발전 비교와 파급효과의 정성적 파악하는 데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해당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에 대한 개요와 지역적 특수성, 특

징 등을 살펴본 후 리더들의 활동실태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농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를 도입부분에 소개하고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리더활동 실태를 정리하였다. 그 활동내용과 상황, 결과 및 정책적인 지원 성과물, 외부자원 활용과 주민들의 반응, 최종지향점과 가치, 향후 계획 등으로 마무리한다. 본 조사가 타 연구와 차별적인 점은 행정관계자 및 농협 등 농업관계자들 면담을 통해 리더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등을 정리해 낸 것이다.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로 요약한다.

<표> 리더활동 실태 요약

소속기관	리더명	활동공간	역할/기능	핵심요소	유형
양봉연구회,계룡꿀마을	김중식	계룡시	비전제시	기술,지식,집념,가치	농업기술, 농업인교육
친환경연구회,계룡농장	안중식	계룡시	비전제시	기술,지식,집념	친환경농업전파, 확산
바리실마을	박인호	금산군 제원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신뢰,협력,자원활용	마을개발사업, 축제 농산물생산-유통선도
신안권역	유상귀	금산군 제원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기술,지식,가치관	마을개발사업, 축제
홍도인삼마을	양현철	금산군 남일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가치관,사회연결망	마을개발사업, 축제 인삼가공업,소득창출
추부깻잎마을	정효동	금산군 추부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공감대,협력,지원	마을개발사업, 축제 지역축제개발,이미지홍보
딸기마을	남기순	논산시	자원발굴	사회적연결망,가치	농촌체험관광,마을개발
햇빛촌바랑산마을	이동신	논산시 양촌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가치관,공감,신뢰	마을개발사업 농산물가공업,일자리창출
당진낙농협동조합	이경용	경기 ,충남권	비전제시 네트워크 관리자	기술,지식,가치관,신뢰	광역단위 낙농업발전
영진마을	박정일	당진군 고대면	네트워크 자원발굴	가치관,사회연결망	마을개발사업 농산물유통,판로개척
서해농장	이정학	보령시	비전제시 네트워크	기술,지식,공감,가치	지역축산업 발전 주민갈등해결,화합
은행마을	김청한	보령시 청라면	지역계획 네트워크	기술,지식,공감	마을개발사업 은행가공업,소득창출
한농연 부여군지부	최병국	부여군	비전제시 네트워크	가치관,기술,지식, 신뢰,사회적연결망	농업기술선도,전파,선진화 지역농업,농촌발전
굿뜨래 수박연합회	소진담	부여군	자원발굴	기술,지식,가치,신뢰	농산물유통혁신
세계꽃식물원	남기중	아산시	자원발굴	기술,지식	지역내농촌관광활성화

4) 충남 농촌지역 리더활동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정책제언

리더들이 말하는 리더필수조건 및 핵심요소로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희생정신, 마을의 심부름꾼으로 임하는 자세, 구성원간-주민간의 비전과 가치 공유를 위한 노력, 건전한 상식, 기본기 충실, 본업 충실, 기술과 지식의 꾸준한 학습, 정보탐색, 지도력, 설득과 타협, 결단, 소신, 협력도출, 상호소통, 포용정신, 성실성·도덕성·순수함·겸손함, 신뢰·진정성있는 인간관계,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강관리, 끈질긴 근성과 집념으로 자신의 관심분야와 마을과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미래동향과 트렌드를 바라보는 혜안과 시각, 마인드를 말하고 있었다.

리더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로는 첫째, 비전제시자로서 발전하고 앞서나가는 지역에는 반드시 미래를 보는 혜안과 실천력, 리더쉽을 갖춘 리더가 존재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둘째, 지역계획자로서 지역자원의 발견과 종합적 활용을 통한 독자적이고 실천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 셋째, 지역자원 발굴자로서 지역밀착형·틈새시장을 겨냥한 경영안정, 지역농업경영의 복합화와 다각화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넷째, 지역내외부의 네트워크로서 내외부(전문가)와의 효과적인 연계, 유관기관 및 기구들간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횡적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역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적 성향이 우려되고, 둘째, 지역적 독자성과 차별성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셋째, 지역내 인적·물적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넷째, 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내부갈등의 증폭되고 있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주민들 역량강화보다 정책사업 유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있다. 여섯째, 내발적 발전의 동기부여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조직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곱째, 각 주체간의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이 불충분하다.

정책제언사항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후계리더 인력발굴과 양성

시스템 구축, 둘째, 지역역량강화 계획 수립과 충남 농촌지역 리더쉽 교육프로그램 운영, 셋째, 현실적인 접근으로 예산과 제도 인프라 기반조성, 넷째, 지역의 문화·사회·정서·역사 여건의 종합적으로 고려된 차별화 정책 수립이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	2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의 방법	3
4) 추진체계	4
5) 추진경과	5
4.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6

제2장 농촌지역 리더관련 연구동향

1. 지역리더 개념의 이론적 배경	7
2. 농촌지역 리더관련 이론적 검토	13
1) 리더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13
2) 리더육성을 위한 교육활성화에 관한 연구	17
3. 지역리더의 개념과 유형	19
1) 지역리더의 개념	19
2) 지역리더의 유형	19
3) 지역리더의 역할	20
4. 소결	21

제3장 농촌지역 리더관련 정책동향

1.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인력육성 정책의 현황	22
1)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	23
2)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0-14) ..	25
3) 기타 농촌인력육성사업 현황	28
4) 최근 농촌인력육성사업 체계 개편동향	31
2. 충청남도의 농업·농촌 인력육성 정책의 현황	32
1) 3농 혁신 기본계획	32
3. 소결	34

1) 리더육성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34
2) 분석틀	36

제4장 지역별 리더활동 실태 연구

1. 조사개요	37
2. 계룡시	40
1) 계룡시 개요	40
2) 농촌리더 활동내용	44
3) 농촌리더 활동의 지역내 정성적·정량적 파급효과	57
3. 금산군	62
1) 금산군 개요	62
2) 농촌리더 활동내용	65
3) 농촌리더 활동의 지역내 정성적·정량적 파급효과	95
4. 논산시	102
1) 논산시 개요	102
2) 농촌리더 활동내용	104
3) 농촌리더 활동의 지역내 정성적 효과	122
5. 당진군	126
1) 당진군 개요	126
2) 농촌리더 활동내용	128
6. 보령시	153
1) 보령시 개요	153
2) 농촌리더 활동내용	155
7. 부여군	172
1) 부여군 개요	172
2) 농촌리더 활동내용	174
3) 농촌리더 활동의 지역내 정성적·정량적 파급효과	186
8. 아산시	194
1) 아산시 개요	194
2) 농촌리더 활동실태 내용	196

제5장 리더활동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1. 요약 정리	204
2. 리더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207
3.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210

제6장 결론

1. 정책제언	214
1) 후계리더 인력발굴과 양성시스템 구축	215
2) 지역역량강화 계획 수립과 충남 농촌지역 리더쉽 교육프로그램 운영	216
3) 현실적인 예산과 제도 인프라 기반조성	217
4) 지역의 문화·사회·정서·역사 여건의 종합적으로 고려된 차별화 정책 수립 ..	218
2. 맺음말	219

참고문헌	221
------------	-----

표 목 차

<표 1-1> 본 연구의 추진경과	5
<표 2-1> 지역발전 전략이론의 특성 비교	8
<표 2-2> 성과를 통해서 본 지역혁신의 유형	11
<표 2-3> 리더의 역할과 기능	14
<표 2-4> 리더의 역할구분에 따른 핵심요소	20
<표 3-1>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로드맵	25
<표 3-2> 농촌 지역리더쉽 육성과정 교육프로그램(2009)	28
<표 3-3> 농촌지역개발관련 교육프로그램(2009)	30
<표 4-1> 계룡시의 주요 연혁	41
<표 4-2> 계룡시 면·동별 인구추이	42
<표 4-3> 계룡시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43
<표 4-4> 계룡시 품목별 주요 재배지역 분포	43
<표 4-5> 계룡시 양봉(꿀벌) 사육추이(2003~2009년)	59
<표 4-6> 계룡시 친환경 농산물인증현황	61
<표 4-7> 계룡시 엽채류(상추) 생산량 추이(2003년~2009년)	61
<표 4-8> 금산군 읍·면별 인구추이	63
<표 4-9> 금산군 인삼재배 현황(2009)	64
<표 4-10> 금산군 남일면 인구현황(2009)	77
<표 4-11> 금산군 추부면 인구현황(2009)	86
<표 4-12> 충남 및 금산군의 사과생산 현황	97
<표 4-13> 금산군 홍도화 축제 실적추이	99
<표 4-14> 금산군 엽채류와 깻잎 생산량	101
<표 4-15> 금산군 추부면의 2010년도 품목별 매출현황	101
<표 4-16> 논산시 읍·면별 인구추이	103
<표 4-17> 논산시 양촌면 인구현황(2009)	105
<표 4-18> 논산시 광석면 인구현황(2009)	113
<표 4-19> 당진군 읍·면별 인구추이	127
<표 4-20> 당진낙농축협 연혁	129

<표 4-21> 당진낙농축협 조사료 재배단지 현황 및 개요	132
<표 4-22> 국내조사료 생산현황	139
<표 4-23>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인구 및 가구	143
<표 4-24>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주작물 생산량	144
<표 4-25> 보령시 읍·면별 인구추이	154
<표 4-26> 보령시 은행마을 사업 추진경과	167
<표 4-27> 보령시은행마을의 체험프로그램 내용 소개	169
<표 4-28> 부여군 읍·면별 인구추이	173
<표 4-29> 부여군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174
<표 4-30> 부여군 홍산면 인구현황(2009)	175
<표 4-31> 부여군 부여읍 인구현황(2009)	182
<표 4-32> 부여 8미 농산물 실적	192
<표 4-33> 아산시 읍·면별 인구추이	195
<표 4-34> 아산시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196
 <표 5-1> 리더 활동실태 유형별 요약	 206

그림 목차

<그림 1-1> 추진체계 모식도	4
<그림 2-1> 마을리더의 핵심역량군표	13
<그림 2-2> 연구분석틀 설정	15
<그림 2-3> 농촌마을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및 단계별 모식도	16
<그림 3-1>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장기비전	23
<그림 3-2>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 중 리더육성 관련 계획	24
<그림 3-3>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장기비전	26
<그림 3-4> 본 연구의 분석틀	36
<그림 4-1> 계룡시 행정구역도	40
<그림 4-2> 계룡시 엄사면 김중식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50
<그림 4-3> 계룡시 엄사면 안중식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56
<그림 4-4> 금산군 행정구역도	62
<그림 4-5> 금산군 바리실마을의 사업유치 실적	71
<그림 4-6> 금산군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	73
<그림 4-7> 금산군 제원면 박인호 및 유상귀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76
<그림 4-8> 금산군 홍도인삼마을 홈페이지 및 마을전경	80
<그림 4-9> 금산군 홍도인삼마을 사업유치 실적	81
<그림 4-10> 금산군 홍도화축제	82
<그림 4-11> 금산군 남일면 양현철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85
<그림 4-12> 금산군 추부면 정효동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94
<그림 4-13> 논산시 행정구역도	102
<그림 4-14> 논산시 양촌면 햇빛촌바랑산 정보화마을 사람들의 활동실태 구조	112
<그림 4-15> 논산시 딸기마을 체험학습프로그램 종류	115
<그림 4-16> 논산시 딸기마을 체험장 전경	116
<그림 4-17> 논산시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서 상 시설위치도	117
<그림 4-18> 논산시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118
<그림 4-19> 논산시 딸기마을 체험프로그램	119
<그림 4-20> 논산시 광석면 남기순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121

<그림 4-21> 당진군 행정구역도	126
<그림 4-22> 당진낙농축협 전경	130
<그림 4-23> 당진낙농축협 조사료 재배현황	131
<그림 4-24> 당진낙농축협 조사료 재배지 전경	132
<그림 4-25> 당진낙농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조감도	134
<그림 4-26> 당진낙농축협 TMR사료의 특징점	136
<그림 4-27> 당진낙농축협 TMR사료 이용체계	137
<그림 4-28> 당진낙농축협의 자연순환농업 추진목표	140
<그림 4-29>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142
<그림 4-30>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전경	146
<그림 4-31>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정보화마을 전경	147
<그림 4-32>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체험프로그램 지도	148
<그림 4-33>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판매사업	149
<그림 4-34> 삼성 웰스토리몰 홈페이지 대문	150
<그림 4-35>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박정일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152
<그림 4-36> 보령시 행정구역도	153
<그림 4-37> 보령시 서해농장 전경	158
<그림 4-38> 보령시 이정학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161
<그림 4-39> 보령시 청라면 은행마을 전경 및 은행 수확장면	163
<그림 4-40> 보령시 청라면 재래종 은행 및 개인 농장	164
<그림 4-41> 보령시 은행마을 폐교와 시설내부	168
<그림 4-42> 보령시 은행마을 김정한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171
<그림 4-43> 부여군 행정구역도	172
<그림 4-44> 버섯뜰 농장의 홈페이지	176
<그림 4-45> 부여군 농업경영인회관 전경	179
<그림 4-46> 부여군 최병국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181
<그림 4-47> 부여군 수박연합회 소진담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185
<그림 4-48> 부여군 APC전경 및 센터장	189
<그림 4-49> 부여군 굿뜨래 농가출하방식	191
<그림 4-50> 부여군 공동브랜드 생산 및 매출현황	193
<그림 4-51> 아산시 행정구역도	194
<그림 4-52> 아산시 세계꽃식물원 외부전경	198
<그림 4-53> 아산시 세계꽃식물원 내부전경	200
<그림 4-54> 아산시 세계꽃식물원 남기중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203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거대자본독식구조로 이루어진 경제시스템 하에서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경제적 생산과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전망의 불투명 가속화, 실질 농가소득 감소, 과도한 부채압박 등과 같은 현상이 영농 의욕상실과 활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농촌지역의 현실은 고령화, 감소화 등으로 인구유출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성장동력과 발전유인 요소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경제, 행정과 생활정치, 공동체의 순환과 공생이 이루어지는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발적 발전의 주체는 지역민이나 이들을 결집하여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리더의 발굴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확산 중에 있다. 지역별 격차 및 지역혁신역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지역리더의 존재여부, 리더의 수행역할로서 이에 따라 지역발전 정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실제로 보고 있다.

내발적 발전은 무엇보다 농촌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발전 전략으로 내발적 발전의 주체인 농촌 주민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집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농촌 주민과 소통하며 내발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농촌리더가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리더는 내발적 발전의 비전제시, 발전계획 수립, 지역내외부 네트워크 결성, 조직관리, 조직내외간 의사소통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모델이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충청남도 농촌지역리더의 발굴과 함께 이들이 현장에서 농촌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내발적 발전 전략에 대한 이론적 연구, 내발적 발전 전략을 구사한 특정 지역 또는 단체의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다. 내발적 발전과 농촌리더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논문은 있으나 이를 연구의 형태로 제시한 결과물은 부재한 현실이다.

특히 정부의 각종 농업, 농촌 관련 정책 사업추진에서도 지역 주민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이 도입되고, 농촌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농촌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의 수행과 능력의 향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의 농촌지역에 있는 리더들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충남의 리더육성과 관련된 의미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리더의 과업에 따른 역할 유형을 구분하고, 각 역할에 따라 리더가 어떠한 문제해결방식을 구사하는지에 관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둘째, 충남 7개 시군별 조사를 통해 내발적 발전 수행하는 지역리더들의 역할과 특성을 규명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리더의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맞춤형 농촌지역 리더육성 정책 수립, 리더육성 프로그램 구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째, 충청남도 7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내발적 발전 수행을 위한 지역 리더들의 특성 연구, 둘째, 농촌 지역리더가 처한 특수한 상황 맥락에 의거하여 지역리더가 내발적 발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휘하는 리더로서의 특성과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사례수집이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충남 농촌지역에서 내발적 발전을 수행하고 있는 ‘리더’인데 주로 시군의 행정공무원 추천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리더의 유형은 주로 충남 내 7개 시군의 농촌마을개발 관련사업의 리더, 농업발전 및 생산-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리더로 한정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범위

- 공간 범위 : 충남 시군별 농업·농촌 관련 내발적 발전 수행 리더
- 시간 범위 : ~ 2011년 조사 진행시점
- 내용 범위
 - ① 충남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 수행 단체에 있는 리더 발굴
 - ② 내발적 발전 수행 과정에서 발휘하는 리더로서의 특성과 문제해결 방식 사례 수집
 - ③ 충남 농촌지역 리더발굴과 사례수집을 통해 농촌지역리더 유형화
 - ④ 충남 농촌지역 리더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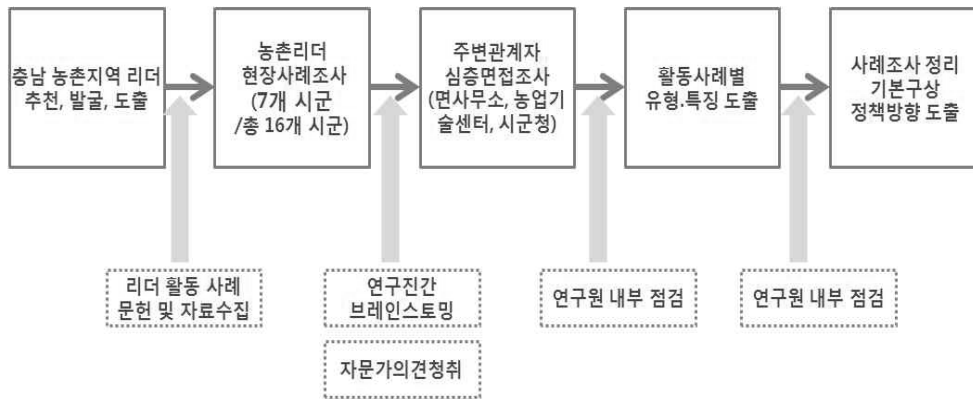
3) 연구의 방법

첫째, 일반적인 지역리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 농촌지역리더에 대한 유형별 특징과 성과, 교육활성화 방안에 관한 문헌들을 수집, 비교, 정리하였다.

둘째, 충남 농촌지역리더에 대한 현장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리더의 활동동기와 목적, 지역자원의 활용,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 단체 대 동기부여과정, 의사결정 수렴방식, 외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 수행하였다.

셋째, 충남 농촌지역리더 유형별 정리, 시사점을 정리하여 리더육성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4) 추진체계



〈그림 1-1〉 추진체계 모식도

5) 추진경과

〈표 1-1〉 본 연구의 추진경과

일시	제목	참석자	논의.협의내용
2011.8.17.(수)	약식 착수연심회	원장보고 (실장참석)	- 연구제목 변경 및 구체화 - 연구 최종목적 도출 - 유형별 리더목록 우선작업
2011.9.7.(수)	조사대상 단체 및 리더목록도출현황 보고	원장보고	- 관련 단체 목록 수집 - 리더리스트 도출 및 정리 - 최종 대상자 선정 필요
2011.9.14.~10.11.	시군청 협조요청	연구진 실시	- 조사대상 관련 자료수집, 요약
2011.10.12.~10.13.	예비조사	연구진 조사	- 예비조사 실시(보령, 부여) - 지역별 각 2명, 행정기관 방문
2011.10.18.(화)	예비조사 내용점검	원장보고	- 예비조사 내용 점검 - 방향설정 논의
2011.10.18.(화)	계획 수립 및 도청 협조요청	연구진 실시	- 조사계획 수립 - 도청 일정고유 및 협조요청
2011.10.20.~12.02.	본 조사	연구진 조사	- 5개 시군 리더 방문 및 인터뷰 - 관련 행정기관 방문, 인터뷰 - 자료수집, 정리
2011.12.04.~계속	보고서 작성	연구진 실시	- 추가 자료수집, 정리, 내용요약 - 보고서 작성
2011.12.22.(목)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원장보고	- 연구진행상황 점검 - 보고서 집필 방향 논의
2012.1.17.(화)	최종연심회	심사위원 5인	- 연구목적 및 방법 타당성 - 논리전개, 결과도출, 연구결과

4.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그동안 알려진 많은 지역리더들을 조사한 것이 아닌 충남 농촌지역의 숨겨진 사례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보여줌으로써 리더에 대한 정의, 역할 등 개념에 대한 환기하였다. 리더 추천과정에서 기존의 문헌과 자료 참고를 토대로 1차 리더목록이 도출되었고 이 목록내에서 시군 행정공무원들로부터 2차 리더목록, 즉, 최종 리더들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리더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사례를 소개, 주변관계자의 조사까지 추가됨으로써 내용의 깊이와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였다.

셋째, 농촌지역 리더의 활동과정과 그 결과, 진행과정상 애로사항을 조사함으로써 현장지향적인 정책방안 도출하려고 하였다.

넷째, 리더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맞춤형 리더육성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농촌지역 리더관련 연구동향

1. 지역리더 개념의 이론적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 내부의 자극이나 잠재력보다는 외부적 자극과 잠재력에 의존하는 성장지향적 발전전략인 이른바 외생적 지역발전(exogenous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지역의 잠재자원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 상실에 대한 우려 등 외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말 이후 내발적 발전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발적 지역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이란, 발전의 동기부여나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 내부에서 찾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박진도, 2011).

첫째, 지역발전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통합된 발전을 추구한다. 경제적인 발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서 실현되는 것이며 주민의 기본적 인권 확립을 위한 수단(물적 토대)일 뿐이다.

둘째, 내발적 발전은 발전의 동력을 원칙적으로 지역 내에서 찾는다. 지역 내 자원(자연적, 인적, 물적, 문화적, 환경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성과가 지역 내 순환(보전)되도록 한다. 그러면서도 외부와의 관계(협력)를 거부하지 않고, 외래자본이나 정부의 지원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외부와의 관계 설정시 지역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셋째, 내발적 발전에서는 지역발전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지역 자체이다. 따라서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동, 자치에 의한 발전이 중시된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생적 지역발전과 내생적 지역발전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지역발전 전략이론의 특성 비교

	외생적 지역발전	내발적 지역발전
전략유형	○ 하향적 지역발전전략	○ 상향적 지역발전전략
발전개념	○ 경제성장과 생산확대	○ 기회 및 내부적 잠재력 확대
발전목표	○ 생산의 증대 ○ 성과의 재분배를 통한 개인복지 증진	○ 복지의 증진 ○ 개인소득 증진, 수요유발을 통한 생산확대
발전동기	○ 외부적 동기유발 - 외부수요 - 외부자본 및 기술	○ 내부적 동기유발 - 내부수요 - 내부자본 및 전통기술
의사결정	○ 중앙집권적 - 국가 및 광역단위	○ 지방분권적 - 하위 공간단위(지역사회)
발전형태	○ 도시 및 산업발전 - 대규모 투자사업 - 시장제품 생산확대	○ 농촌 및 농업발전 - 소규모 사업 - 주민소득 및 복지확대
발전방식	○ 선도산업 육성 ○ 성장거점도시 육성	○ 다양한 생업 및 소비산업육성 ○ 지역사회의 여건 개선

자료 : 김용웅, 2009, 일부 수정.

지역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발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혁신 역량 강화이다. 지역혁신을 위해선 지역 내 경제주체의 혁신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지식창출기반이 확대되고, 인력 개발 및 지역의 관행·제도·문화 등이 구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경제주체가 상호학습과 협력을 통해 경제활동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출·수용하여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의 사상을 지역개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통합적 발전을 추구한다. 외생적 개발전략은 오로지 경제적 개발 즉 소득·고용·인구 등의 증대만을 목표로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내발적 발전에서는, 경제개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서 실현되는 것이며 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확립을 위한 수단(물질 토대)일 뿐이다.

따라서 내발적 발전에서는 안전, 건강, 자연 보전, 아름다운 경관 및 역사적 문화재의 보전, 복지·교육·문화의 향상, 민주주의, 주민의 인권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내발적 발전은 지역개발의 방법으로서 발전의 동력을 원칙적으로 지역 내에서 찾는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 내 자원(자연적, 인적, 물적, 문화적, 환경적)의 최대한 활용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성고가 지역 내 순환(보전)되도록 한다. 그렇다고 내발적 발전이 외부와의 관계(협력)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역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고, 지역 밖과 항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래자본이나 정부의 지원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그들에게 지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적 계획(요구)에 의해 외부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셋째, 내발적 발전에서는 지역발전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지역 자체이다. 따라서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동, 자치에 의한 발전이 중시된다. 지역주민, 지역의 기업, 지자체, 협동조합, NGO, NPO 등이 지역 발전의 주체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혁신'은 '체제'적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혁신의 체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역혁신체제론이다. 지역혁신체제의 대표적 학자인 쿡크(Cooke)에 의하면, 지역혁신체제와 관련된 지역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은 끊임없는 혁신의 창출 및 습득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둘째, 혁신은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에서 발생, 전파, 습득이 이루어진다. 기업의 혁신은 기업 내부적 역량보다는 기업간, 기업과 연구소 간, 기업과 공공부문 간의 관계에 의해, 그리고 더 넓은 차원으로 볼 때는 각 혁신주체가 공유하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창출되고 학습됨. 이런 점에서 혁신은 체제(system)적인 성격을 띤다.

셋째, 혁신체제는 특정 공간(territory)에 기반한다. 이때 공간의 단위를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 국가혁신체제, 지역에 맞추면 지역혁신체제가 된다.

넷째, 특정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혁신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지닌다. 즉 어떤 국가나 지역

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좀더 유용한 혁신체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경제적 단위로서 국가단위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지역단위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역단위의 혁신체제가 중요해지게 된다.

여섯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적인 혁신능력, 즉 튼튼한 지역혁신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지역경쟁력의 핵심이다. 지역경쟁력은 그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경쟁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지역혁신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각 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상호학습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의 고유한 제도적·문화적 분위기에 크게 의존한다.

지역혁신과 지역리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역(사회)혁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조직적이고 신뢰성 있게 동원할 수 있는 지역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사회지도자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역사회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뛰어나고도 종합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전망의 불투명과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의욕상실, 과도한 부채압박 등으로 인해 의욕과 활기를 잃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박진도(2011)는 국내 지역혁신의 유형을 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 2-2>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2-2〉 성과를 통해서 본 지역혁신의 유형

구분	지역농업인주도형 (主行從)	지자체주도형 (行主民從)	농협주도형 (농협+행정)	기타형 (종교단체, 학교 등)
새로운 지역상품 (서비스)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창 복분자 고창 청보리축제 남해 다랭이마을 양평 신론리마을 곡성 봉조리마을 진안 능길마을 의성 교촌마을 포천 교동마을 경주 세심마을 서천 합전마을 등 농촌관광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 머드산업 함평 나비축제 남해 스포츠마케팅 무주 반디부리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팜스테이 	
기존 지역상품의 생산방법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성 문당리 화천 신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창 장류산업 금산 인삼산업 		
지역상품의 새로운 판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학사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성 연합마케팅 합천 연합마케팅 대관령 연합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한마음공동체 원주(호저) 원주생협 홍성 풀무생협
지역혁신체제 혹은 조직의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 푸른들영농 조합법인 양평 팔당생명 살림연대 남원 남농영농 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 의료기기산업 밸리 보성 녹차클러스터 양평 환경농업-21(YEAM) 서천 한산모시 클러스터 경남 친환경쌀농업 클러스터 		
공공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해 민원배심원제도 나주 시민참여예산학교 곡성 농촌교육 살리기 진안 환경농업대학 		

자료 : 박진도, 2011.

즉,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의 방법으로 새로운 지역상품(서비스)의 개발, 기존 지역 상품의 생산방법 혁신, 지역상품의 새로운 판로 확대, 지역혁신체제 혹은 조직의 결성, 공공서

비스 혁신 등으로 분류하고, 이 혁신을 이끌어가는 지역 내 주체가 지역 농민인지, 지자체인지, 농협인지, 또는 기타 학교나 종교단체 등인지에 따라 20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내 주체는 주로 농업인과 지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혁신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상품의 혁신과, 혁신을 위한 체제를 구성하는데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혁신과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 지역리더의 확고한 리더십과 주체형성은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지역혁신의 성공사례로 지목되는 지역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자체장 등 최고의사 결정권의 의지, 헌신적인 지역리더의 존재, 지역 주민과의 파트너십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지역리더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칫 혁신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리더가 지자체장일 경우, 주민의 선거에 의해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혁신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이익배분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지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더의 유형이나 자질도 과거의 1인 중심의 영웅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에서 함께하는 리더, 시스템적인 리더로 전환되어야 한다.

2. 농촌지역 리더관련 이론적 검토

1) 리더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오승영 외(2010)는 농촌관광정책사업에서 마을리더의 5개군, 28개 핵심역량지표를 도출하여 35개 농촌전통테마 마을을 대상으로 진단하였다. 전문가 패널을 통해 얻은 역량군은 크게 인간관계 역량군(관계형성, 고객지향성, 공동체 형성, 의사결정력), 감성 및 인지역량군(자기관리 및 개발력, 창의성, 사고력 및 통찰력, 애농심, 조직현신성, 변화선도력, 문제해결력), 관리역량군(팀워크, 모니터링, 지도력 및 추진력, 직업충성심, 비전창출, 사업주체성, 자원관리 능력), 의사소통역량군(경청, 의사소통, 정보공유력, 외국어능력, 전달능력), 산업지식 및 기술 역량군(관광전문지식, 상품개발력, 벤치마킹, 문화이해력, 경영능력, 농장관리능력, 환경보전력, 마을해설력, 체험지도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마을리더의 핵심역량군표



자료 : 오승영 외, 2010.

황영모 외(2009)는 농촌리더 특성지표를 크게 농업경영역량(수치력, 계획력, 대응력, 정보력, 실천력), 리더쉽 역량(자질, 태도, 역할, 가치관), 관계역량(협조력, 생산조직 및 사회조직의 참여정도, 활성화정도 등)으로 봤고 그에 대한 성과지표를 농가소득향상과 같은 경영성과, 생산자조직 활성화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만족(경제생활, 직업 및 거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농촌사회 또는 개별경영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농업경영의 관점에서 지역농업조직화를 실천하는 농업생산자조직 리더의 특성이 리더쉽 발현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박은식 외(2005)는 농촌리더의 역할을 변화촉진자, 의사소통자, 혁신자, 협상가, 창출자, 조직가, 관리자, 점검자 등 8가지 형태로 리더유형화하여 이들의 인적사항별(성별, 연령, 학력, 활동지역, 지도자기간)에 따른 역할수행 정도를 검증 시도하였다. 추가로 인적사항별 리더로서의 애로사항도 파악하였다. 리더유형을 구분한 근거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리더의 역할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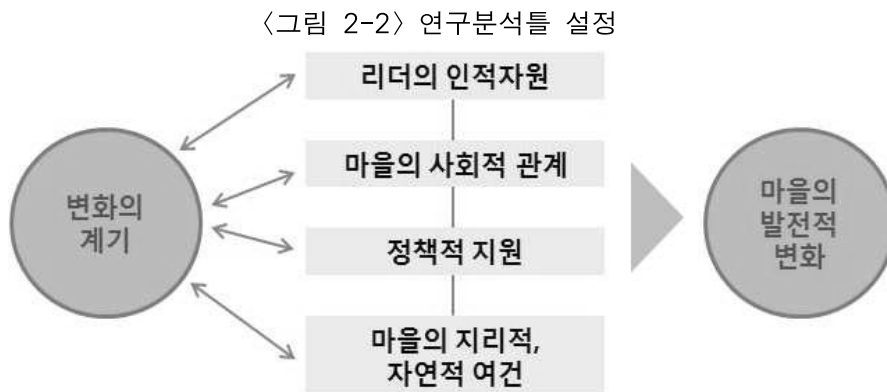
연구자	농촌리더의 역할 및 기능
Donald(1977)	계획자, 수행자, 조정자, 정보전달자, 기술보급자
Krechl(1963)	사업총괄자, 계획자, 설계자, 전문가, 집단대표, 조정자, 평가자, 중재자, 시범자
정린경(1981)	계획자, 조정자, 선도자, 교육자, 관리자
황인정(1997)	계획자, 집행자, 조정자, 교육자, 기술보급자
김진군(1985)	선도시범자, 영농지도자, 농민상담가, 조직육성가, 지도보조자, 건의대변자, 지도홍보자, 농민유대자, 부락개발자, 조사연구자
안병만(1983)	결정자, 상담자
오무근(1987)	계획자, 집행자, 조정자, 상담자
황영모, 소순열(2004)	계획자, 수행자, 조정자, 정보전달자, 기술보급자
왕인근(1982)	청소년지도자, 조직지도자, 농민훈련가, 정보전달자, 기술보급자, 생활개선행가, 기타역할

자료 : 박은식 외, 2005.

박진도(2006)는 지역혁신의 개념정립과 지역혁신에 성공한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요인과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리더를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할수행자

로 보았다. 성공요인은 지역리더의 리더쉽과 주체형성, 지역자원의 발견과 종합적 활용(역발상), 지역밀착형 틈새시장을 겨냥한 경영안정화 도모, 지역농업경영의 복합화와 다각화, 지속적인 혁신노력, 내발적발전의 동기부여, 내외부(전문가)와의 효과적이 연계, 정부의 적절한 지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제로는 1인의 지역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 지나친 행정주도에 따른 주체형성의 미약, 경쟁지역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지역적 독자성의 상실,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미흡, 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내부갈등의 증폭으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허장 외(2002) 및 허장 외(2003)는 변화한 농업, 농촌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농촌리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을단위의 공식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쉽 구조와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리더의 역할과 마을의 발전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네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틀을 마련, 주테마와 변화의 계기를 시작으로 각 요인별 설정을 하였다(<그림 2-2> 참고). 첫째, 인적자본으로서의 리더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질 측면(출신지역, 학력, 연령), 둘째, 마을사회 내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유대감, 혁신수용성), 셋째, 마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효과, 넷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자연적 여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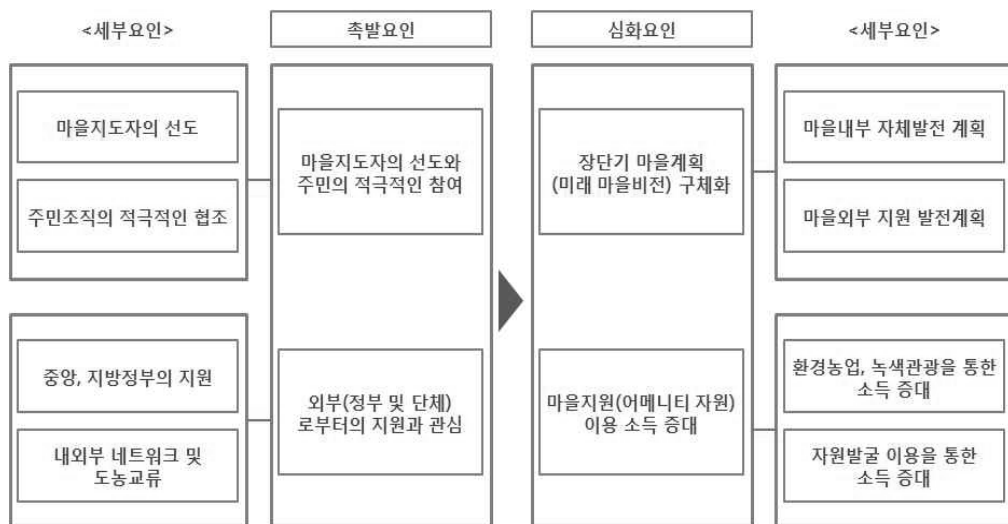


자료 : 허장 외, 2002.

황영모(2006)는 공식적 지위로 한정하는 접근방식을 벗어나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농촌리더 육성사례(진안군의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를 통해 농촌리더의 특성을 규명하고 농촌리더 특성이 지자체의 농정목표 실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촌리더의 특징은 인적자본적 측면

면(자질, 태도, 역할태도, 경영자능력, 가치관), 사회자본적 측면(신뢰, 유대감, 사회조직 관계, 영농조직 관계), 외부적 측면(정책적 자금지원, 일상적 행정지원), 지역농업 실천(환경농업 실천)으로 보았다. 리더특성이 지자체 농정목표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적극적 역할태도, 경영자능력, 농업에 대한 책임감, 대응력, 영농조직관계, 합리적 가치관 순으로 도출하였다.

이재준 외(2003)는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마을들을 사례분석하여 농촌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요인들을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평가하여 핵심인자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마을활성화의 중요 주체와 조건을 파악하였다. 현장사례 조사에 의한 농촌마을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으로는 첫째, 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마을자원(어메니티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장단기 마을계획(미래마을비전)의 구체화,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마을 발전에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농촌마을 주민(리더 및 그룹)을 꼽았고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마을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과 단계별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3〉 농촌마을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및 단계별 모식도

자료 : 이재준 외, 2003.

유정규 외(2004)는 지역리더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부족

으로 지적되었으며 행정기관이 이해 및 협조부족, 지역리더 스스로의 전문성 부족, 지역토호와 행정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보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리더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강구, 둘째, 지역리더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리더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행정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통해 지역유지와 행정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해 나가는 것, 셋째, 지역내 단체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리더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2) 리더육성을 위한 교육활성화에 관한 연구

박은식 외(2005)는 농촌리더들의 리더쉽 교육 참여실태를 참여경험, 참여횟수, 교육 후 활용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내실있는 리더쉽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농촌리더의 교육요구를 분석하였다.

박진도 외(2004)는 농촌지역리더의 역량강화프로그램 기본구조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방향과 농촌지역리더교육프로그램 개발내용을 제시하였다. 지역주도의 내생적 농촌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구축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천수단으로 교육시스템 구축분야에서는 뉴리더 발굴 및 핵심리더 양성, 한국형리더프로젝트 추진, 구체적인 농촌지역리더교육프로그램 개발전략은 총체적이면서 실천지향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고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프로그램 개발모델에 기초한 체계적 개발, 수준별·단계별 학습프로그램 개발, 탄력적 모듈 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김남선(2005)은 지역을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리더가 필요한데 지역리더는 평생교육을 통해 육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리더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평생교육기관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민간단체 종교기관, 대학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기관 등이 있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이 가능한 진정한 리더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해야 하고 각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 제공하기를 제안하였다.

김남선(2010)은 마을평생교육리더 양성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만족도를 살펴봤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고령층보다 저연령층이, 저학력층보다 고학력층이, 저소득

층보다 고소득층이, 평생교육미경험자보다 다 경험자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및 학습소외계층인 고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 등이 보다 평생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하고 접근성이 쉽고 친근성 및 교통 등 제반여건 고려하여 교육기회 참여 확대 유도, 현재의 지역 중심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거주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경 외(2006)는 지역별 리더육성에 대한 인식차이에 주목하여 지역특성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동기배양과 리더 발굴과정(초급과정), 전문분야와 결합한 리더십 특화과정, 리더십 심화과정 3가지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리더 양성은 현장에서의 실천학습과 병행되어야 하므로 주민주도의 소규모 파일럿 농촌개발사업(가칭 'Village Challenge and Try 사업')의 도입 방안도 언급하였다. 또한 리더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 전담추진기구의 설립, 충청남도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계획의 수립 등도 필요함도 제시하였다.

유학열 외(2009)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첫째, 충청남도차원에서의 인적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계몽과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제기, 둘째, 충청남도 독자적인 현장체험·계획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 셋째, 2~3개 면단위에서의 순회 방문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을 제시하였다. 외부인력 영입 및 네트워크의 개선 방안으로는 마을사무장보조원제도의 도입, 사무장 채용 기간의 연장 및 사무장수당제도의 도입, 맞춤형 전문가 자문제도, 충남 농촌마을 인적네트워크센터 설립(가칭)을 제안하였다.

3. 지역리더의 개념과 유형

1) 지역리더의 개념

지역리더란 중앙정부 의존적 태도 지양,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말한다. 이들의 공통된 사항으로는 ① 지역자원의 최대한 활용과 외부 자원의 주체적·계획적 이용, ②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과 주민참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③ 발전의 성과가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지역발전과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 단위설정(사업 혹은 공간), 선결조건 여부에 따라 지역리더 역할 설정이 달라지는데 지역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조건 혹은 핵심요소로서 구성원의 기술·지식수준, 구성원의 가치관, 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인식수준, 사람들 신뢰,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사이 협력과 지원, 상호작용, 의사소통, 사람들 관계향상, 사회적 연결망 형성, 사심이 없는 희생정신 등이 있다(박진도, 2011).

2) 지역리더의 유형

리더의 유형을 리더를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를 토대로 대표적 유형만 소개하고자 한다. 즉, 상향식 주민주도의 지역개발사업, 농협개혁운동, 다문화 농촌마을 공동체, 지역이슈·시민발전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를 정형화시켜 분류해 보면 첫째, 주체별 × 성과별, 둘째, 성공요인별, 셋째, 사업의 성격별 × 동기요인별로 살펴볼 수 있다.

지역리더의 유형과 역할은 리더십 철학이나 시대의 변화, 지역리더가 활동하는 공간범위 지역리더의 객관적 위치(지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리더십 철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통적 리더십에 기초한 전통적 리더와 새로운 리더십 철학에 기초한 ‘섬기는 리더’(servant leader)로 구분할 수 있고, 둘째, 시대적 흐름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형리더’와 ‘신형리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셋째, 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로 마을단위를 활동무대로 하는 ‘마을리더’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 읍·면 혹은 시·군 단위를 활동무대로 하

는 ‘권역리더’로 구분할 수 있고, 넷째, 객관적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역 혹은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리더’와 핵심리더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주변리더’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리더가 담당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는 명예를 갖는 사람, 조직에 적합하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3) 지역리더의 역할

‘지역리더’를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추동해 나가는 개인 혹은 집단이라고 한다면, 지역리더의 구체적인 모습과 역할은 지역발전의 목표 혹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발전과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지역리더의 역할설정에 앞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마을단위, 면단위, 군단위 등)마다 리더 상(像)이 달라지는 것은 지역단위의 사업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는 훌륭한 리더라고 하더라도 군단위의 리더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특정사업(가령 농촌관광사업)에는 훌륭한 리더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업에서(가령 소도읍육성사업)는 리더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리더의 개념 그 자체는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접근보다는 수행해야 할 사업 혹은 공간단위에서 리더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리더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2-4〉 리더의 역할구분에 따른 핵심요소

구분	핵심요소
조직의 비전제시자	○합리적인 관리기법, 이해관계의 조정, 헌신적인 신념 보유 ○미래전망, 미래상 제시
조직의 지역계획자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실천적 지역발전계획수립
조직의 지역 내·외부 네트워크	○지역내 유관기관과 기구들간 협력유도 및 연결역할
조직의 관리자	○시스템에 입각한 리더쉽, 관리의 리더쉽, 개별 주체들 조직화
각 주체간 의사소통자	○사업실행-조직화-동기부여-수정 등의 원활한 순환기능
지역자원 발굴자	○인적·물적자원, 사회문화역사 자원, 자연환경의 발굴과 효과적 활용

자료 : 박진도, 2011, 일부 수정

4. 소결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지역리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 지역리더 유형과 특성, 육성을 위한 교육활성화에 관한 연구고찰, 지역리더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리더의 유형도 주체별, 성과별, 성공요인별, 사업성격별, 동기요인별, 리더쉽 철학 기준, 시대적 흐름, 활동의 공간적 범위, 객관적 지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나뉠 수 있다.

리더육성과 관련한 이론 연구도 리더들에 대한 유형별 구분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이 리더쉽 구조와 역할을 규명, 요인별 중요도, 성과평가, 역할수행 검증 등이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리더육성을 위한 교육활성화 방안 연구로는 농촌지역리더교육프로그램 개발전략 구축, 세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계속 언급되는 개념이지만, “지역리더”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뜻한다. 이 개념은 앞으로 관련 정책제안이나 활동실태 조사 연구방향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공통된 사항도 역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 자원을 주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는가,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과 주민참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가, 지역발전의 성과가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노력하는가이다.

하지만 실제 농업·농촌현장에서 지내고 있는 농촌지역 리더에 대한 활동실태 조사, 도단위에서 본 지역간 리더활동의 차이, 이들의 문제해결방식 비교,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에 집중한 연구는 없다. 지역리더는 같은 인력육성 및 리더육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땀을 흘려내듯이 만들어진 인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적 환경, 지리적 특성, 지역의 특수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제각기 다른 유형과 특징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단위로 연구하는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의 농업·농촌 지역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현장감있게 다가가는지 의문이 든다.

한사례, 한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활동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도단위에서 지역별 농촌지역리더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듣고 깊은 내면의 이야기까지 풀어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한 비전, 지향점, 가치, 목표를 청취하는 심층조사 연구는 없었다. 더욱이 리더들의 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을 바라보는 내외부 시각(주로 행정공무원)의 차이를 정성적·정량적 효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4장에서 기술하게 될 것이다.

제3장 농촌지역 리더관련 정책동향

1.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인력육성 정책의 현황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리더 육성’이 독자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1차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산업인력으로서 농업인력육성과 지역개발인력으로서 지역리더육성이 분리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농림부),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농촌진흥청), 아름마을가꾸기사업(행자부) 등 이른바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특히 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업인력육성과는 구별되는 내용과 방식의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2005년부터는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이라는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대규모 농촌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 시에 지역리더 육성과정의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업지침이 시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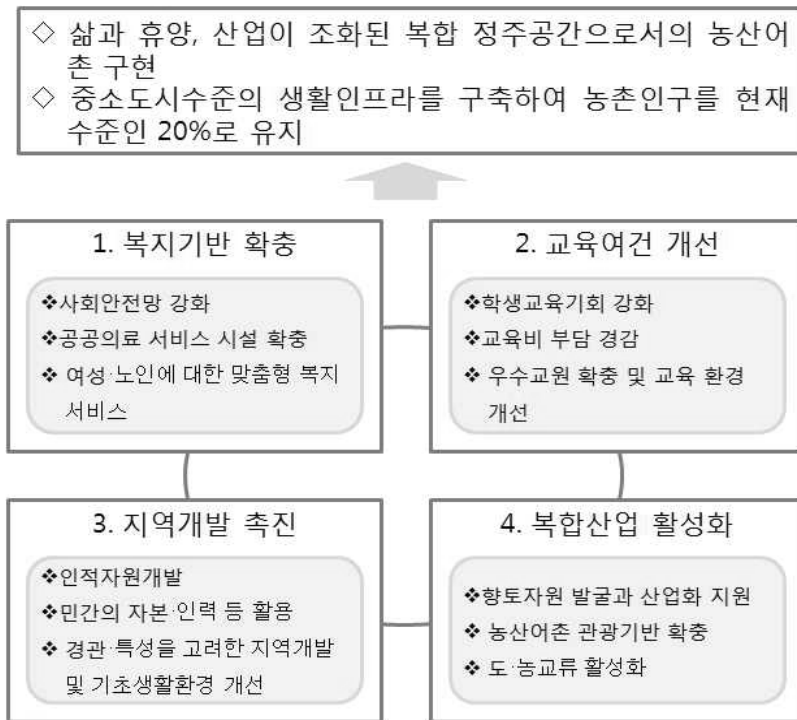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지역개발·복합산업 분야)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주요추진과제로 “지역에서 상향식 농산어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양성, 전문가집단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2010-2014)로 후속 조치도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인력육성과 관련된 주 계획으로는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2011)”이 마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시스템, 역할 재정립을 다루고 있다.

다음에서는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인력육성과 관련된 정책과 그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1)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된 계획은 “지역개발 촉진”분야에 속해 있다(<그림_3-1>참고).



〈그림 3-1〉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장기비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4.

추진전략으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농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각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20.3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자본과 인력,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여 투자효율을 증대하는 것으로 주요 목표로 한다. 그리고 계획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개발의 목적은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을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 크게 인적자원 개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농산어촌형 지역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 3-2>, <표 3-1> 참고).



〈그림 3-2〉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중 리더육성 관련 계획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04.

각 부문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인적자원 개발부문에서는 ① 농산어촌 활성화를 주도할 지역개발리더 양성, ② 지역개발리더, 마을주민을 지원할 외부인력 저변 확대, ③ 지역개발역량을 갖춘 마을 등에 지역개발사업 중점지원, ④ 지역개발관련 新직업군을 창출하여 인적자산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민간분야 참여 확대부문에서는 ①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② 지역개발사업 메뉴의 확대 및 세분화, ③ 지역개발사업에 BTL방식(임차방식)을 본격 추진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농산어촌의 계획적 개발시스템 구축, 농산어촌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체계적 개발 추진,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 농산어촌 도로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면단위 소규모 기초생활환경 종합정비, 과학·문화·예술·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 농산어촌의 정보화 기반 확대 등이 있다.

〈표 3-1〉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로드맵

	1단계 (2005)	2단계 (2006~2008)	3단계 (2009)
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개발 전문인력 100명 육성 ○지역개발인력교육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명 육성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 마련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0명 육성 ○지역개발 직업군 활성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모델(BTL등)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모델 시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확대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별 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 36개 권역 - 어촌 : 152개 권역 - 산촌 : 123개 권역 ○면지역 상수도 수혜인구 2.1백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별 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 176개 권역 - 어촌 : 178개 권역 - 산촌 : 170개 권역 ○수혜인구 3.2백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별 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 276개 권역 - 어촌 : 187개 권역 - 산촌 : 188개 권역 ○수혜인구 3.5백만명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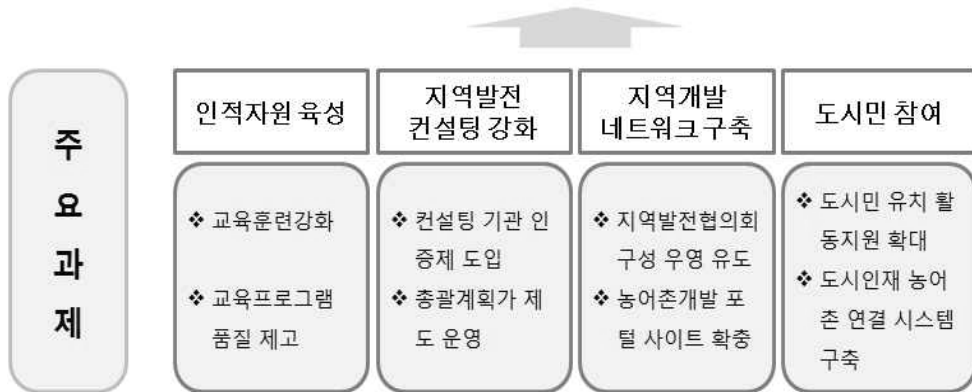
2)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0-14)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의 농산어촌 지역개발 하부 계획으로 포함되었던 ‘인적자원육성’내용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즉,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인적자원 육성은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인적자원육성을 통해 지역개발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크게 목표로는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협력적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도시민 참여 등이 주요 부문별 과제로 소개되고 있다(<그림 3-3> 참고).

목 표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협력적 개발



〈그림 3-3〉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장기비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주요 부문과제별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된 주요 추진과제로는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과 역량강화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품질제고이다.

-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 농어촌 주민과 마을리더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① 단계별·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② 주민에 대한 현장 방문교육 강화, ③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14년까지 지역개발 핵심리더 1만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④ 교육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하여 지자체·마을 등이 마을사무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역량강화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품질 제고 : 도농교류·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교육과정' 인증 활성화하고 교육쿠폰제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과정 운영

둘째, 지역발전 컨설팅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체계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 내실화를 꾀하는 것에 있다.

- 지역개발 우수 컨설팅 기관 인증제 도입 추진 : 컨설팅 품질제고 및 수요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컨설팅업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 사업 실적/전문

- 가 확보수준/주민 만족도/보유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 농어촌지역개발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지역개발 관련 교수·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 중장기 지역개발 방향 수립 및 마을정비계획 등 총괄·조정 역할 수행, 지자체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마을)별 전담 컨설팅제 정착 유도 : 현행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담컨설팅제도를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포괄보조사업 전체로 확대

셋째, 지역개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마을리더, 전문가, 컨설팅업체 등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여 정보교환 및 지역 간 연계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군별로 마을대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유도 : 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가 전국단위 협의체로 발전하도록 ‘(가칭) 농어촌 지역개발 네트워크’ 설립 지원하여 전국단위의 포럼·워크숍 개최
- 농어촌 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 농촌마을 정보제공, 도농교류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www.welchon.com)를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로 운영

넷째 도시민 및 귀농인력 등 활용 강화를 위해서 도시 우수 인력을 농어촌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 농어촌 이주 의향 형성, 이주 준비와 실행, 정착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유도, 귀농·귀촌 도시민이 전문지식을 활용,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도농간 취업 및 인력교류 추진(‘11~’14) :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10) 하여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 예술가, 기술자 등 도시민·단체를 농어촌 마을·단체와 연결·중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활용모델 발굴·보급, ‘내고향돕기’ 운동 전개

3) 기타 농촌인력육성사업 현황

농촌인력육성사업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녹색농촌체험마을동기화과정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역개발 리더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력(=지역리더) 육성사업은 2005년 4월에 발표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개편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2004년에 개발된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표 3-2〉 농촌 지역리더십 육성과정 교육프로그램(2009)

과정명	교육내용	비고
리더십육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원 : 300명(2박3일, 12회) - 농어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 : 250명 - 도농교류활성화 리더십육성과정 : 50명 	
녹색농촌체험 동기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원 : 1,140명 - 녹색농촌체험마을동기화 과정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09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지역리더십 육성과정의 프로그램(2009년)의 목적은 지역주민, 지방공무원과 더불어 사업기획 및 추진능력을 가지고 도농교류 활동 및 상향식 농어촌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동시에 기초생활환경, 농촌관광, 경관보전, 향토산업 등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분야에서 기획력, 수행능력 등 복합지식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인원은 300명(농어촌지역개발 250명, 도농교류활성화 50명)이며, 교육기간은 농어촌지역개발과정 2박3일(10회), 도농교류활성화과정 2박3일(2회)이다. 교육대상은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농어촌지역개발사업관련 지역리더(추진위원, 부녀회장 등) 및 업무담당 공무원, 이전단계 교육이수자 등이며 도농교류활성화 분야의 경우는 농촌체험마을사업 지역리더(추진위원, 부녀회장 등) 및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다.

교육과정은 농어촌지역개발과정과 도농교류활성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은 리더로서의 자기혁신과 변화를 위한 「리더 동기화과정」, 리더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한 「실천리더 양성과정」과 사업적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혁신리더 양성과정」,
「리더양성 워크숍」 총 4단계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도농교류활성화 리더십육성과정'은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농촌지역개발관련 교육프로그램(2009)

구분	Module	주요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	인원
도농교류 활성화	기초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교류관련 법령 및 정책 ◦고객 성향분석: 기업체, 병원, 학교, 유통회사 등 ◦1인 1촌 전문가 활용방안 ◦도농교류 사례(1사1촌, 1교1촌 등) 	강의, 토의, 사례발표, 현장견학	2박3일	25명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브랜드 개발 ◦농산물 유통기법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유통기법 ◦마을홈페이지 관리 ◦홍보마케팅 성공 사례 	강의, 토의, 사례발표, 현장견학	2박3일	25명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양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진단 및 리더십의 이해〉 ◦농업농촌 환경변화의 이해 ◦니의 행동유형 진단 및 특성 이해 ◦교류분석을 통한 관계훈련 워크숍 ◦팀별 비전 만들기 워크숍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60명 (통합)
	실천리더 양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관리〉 ◦체계적 사고개발 훈련 ◦학습지향성 개발 훈련 ◦성취지향성 개발 훈련 ◦고객지향성 개발 훈련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50명 (각25명, 2회)
	실천리더 양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관리〉 ◦조직의 이해와 조직력 개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조직운영 사례 분석 ◦권한위임 역량 개발 훈련 ◦영향력 개발 훈련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40명 (각20명, 2회)
	혁신리더 양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관리 및 개발기획〉 ◦어메니티 및 지역자원의 이해 ◦자원 조사 분석 ◦지역개발계획 사례 분석 및 실습 ◦원칙중심사고 개발 훈련 ◦투명한 관리 역량 개발 훈련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30명 (각15명, 2회)
	혁신리더 양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관리〉 ◦창의적 개선 역량 개발 훈련 ◦지속적 도전 역량 개발 훈련 ◦고객지향성 개발 훈련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천학습	2박3일	30명 (각15명, 2회)
	리더양성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영 리더십 및 네트워킹〉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 이해 ◦지역경영의 이해 ◦리더양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토론 및 평가 ◦농촌지역리더 네트워크 구성 	토론, 현장견학	1박2일	40명 (통합)

자료: 유정규, 2011.

4) 최근 농촌인력육성사업 체계 개편동향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2011)」을 살펴보면, 그 기본방향은 첫째, 교육기관의 기능에 따른 전문교육 추진이다. 기관별 비전과 전략, 정책에 따라 전체적인 조율과 조정없이 각자 독자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과 프로그램의 중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정립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 간다. 이를 위해 농어촌교육심의회 의 위상을 강화하여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교육운영 표준지침을 제정과 교육전문기관을 지정·인증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운영한다. 현재, 농업 농촌관련 교육기관이 다양하고 운영전략이 상이하여 교육의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실적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향후에는 성과중심, 상시 평가 교육운영으로 실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운영 점검 및 평가체계 확립과 환류강화 그리고 분야별 교육운영 내실화와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셋째,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대국민교육 추진이다.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과서 모니터링,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학습을 농어촌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한다.

부문별로로는 교육추진체계의 재정립과 분야별 교육내실화, 교육인프라 확충, 대국민 농어업·농어촌 가치 이해제고 교육활동이다.

교육기관별 역할재정립을 위하여 농어촌교육심의회를 운영하여 농어촌교육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체계 정착지원을 위하여 범 농수산식품분야의 교육에 적용하는 ‘교육운영 표준지침’ 제정, ‘표준지침’ 준수여부 및 교육정보(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검증 등 모니터링을 실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기획, 교육생 능력향상 방법, 교육기관의 운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 교육 운영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성과 측정 및 우수교육성과를 확산해 나간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자율 교육체계 구축과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현장중심의 교육 등 내실을 기율이고 실습위주의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운영인프라 확충을 꾀한다는 것이다.

2. 충청남도의 농업·농촌 인력육성 정책의 현황

1) 3농 혁신 기본계획

이론적 근거로는 지역리더는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공동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지역사회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인력을 말한다.

과거의 지역리더는 헌신성과 카리스마를 갖춘 1인 리더, 영웅적 리더십이 강조되었다면, 오늘날의 지역리더는 정보력, 기술력, 기획력, 경영관리능력, 조직력 등 다양한 능력 요구되는 여건의 변화를 겪고 있다.

다양한 능력을 모두 갖춘 리더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의 능력을 갖춘 여러 리더들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발휘되는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되는 리더십’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설계 보급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상향식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지역주체들의 역량이 곧 지역개발 사업의 유지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 된다.

따라서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핵심리더를 양성,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리더발굴과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주민주도에 의한 주민참여형 농어촌 지역개발 역량 미흡하고 농어촌 지역 인적 역량강화 교육 실적 저조하다. 농어촌 지역개발 주체간 거버넌스 형성 부족하고 충남 독자적 농어촌 지역리더 육성 교육이 그간 부재해 온 것이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충남은 2011년 3농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리더육성과 관련한 목표를 세웠다. 즉 목표로는 농어촌 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리더 양성을 ‘11년 600명에서 ‘14년 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도 특성에 맞는 독자적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다.

혁신전략으로는 리더들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하고 개인적 리더가 아니라 각 주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리더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시스템적 리더쉽을 강화하고 부서별 시행중인 교육이수자 통합관리(D/B화)로 네트워크 강화하도록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i)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

-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어촌 유입유도
- 스스로 지역(경영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
- * 핵심사항 : 농업인 인문교양, 경영능력 향상, 지역사회 전체를 겨냥한 '지역리더'양성 병행
- 부서별 시행 중 교육이수자 통합관리로 시스템적 지역개발
- * 목표 : '11년 600명에서 '14년 2,400명, '20년 6,000명

(ii)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CEO양성

-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 농업인력 육성 : 매년 120명 내외
- 농업전문경영교육 : 농업마이스터 등 3개 과정으로 매년 300명 내외
-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2·3차 산업 중심의 인력 육성

(iii) 기타

- 첫째, 농촌 지역리더 양성 : 280명, 470백만원
- 둘째, 강소농 육성 : 2,000명, 300백만원
- 셋째, 지역리더 교육이수자 풀 구축 : 1식, 30백만원
- 넷째, 농어촌 체험마을 순회 교육 : 225마을, 195백만원

3. 소결

1) 리더육성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이상과 같이 살펴봤던 리더육성 및 교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지역리더 교육은 적어도 2000년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기술교육이나 유통교육 등 농업관련 교육의 중심이었고 지역개발도 외향적 개발전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리더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농림부가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그 방식도 종래의 하향식에서 상향식,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지역리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들이 시작되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들도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지역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중앙정부의 리더육성과 관련된 정책은 단일 사업명으로는 없고 대부분 인력육성 정책 및 농촌개발사업 관련한 정책에서 하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들을 살펴보았는데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된 계획은 “지역개발 촉진”분야에 속해 있다.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을 창출을 하는 것인데 위해서 크게 인적자원 개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농산어촌형 지역개발이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의 농산어촌 지역개발 하부 계획으로 포함되었던 ‘인적자원육성’내용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인적자원 육성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인적자원육성을 통해 지역개발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크게 목표로는 농어촌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협력적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타 농촌인력육성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녹색농촌체험마을동기화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과정 안에 리더쉽강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이 담겨있다.

최근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2011)」을 살펴보면, 그 기본방향은 교육기관의 기능에 따른 전문교육 추진,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교육 운영, 셋째,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대국민교육 추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역개발 리더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2011년에 3농혁신 기본계획(2012-2014) 수립에 따라 리더육성과 관련한 정책이 독자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들을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리더’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인 게 사실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리더육성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아직은 덜 있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개념정립이 선행되고 이에 대해 공감확산이 시급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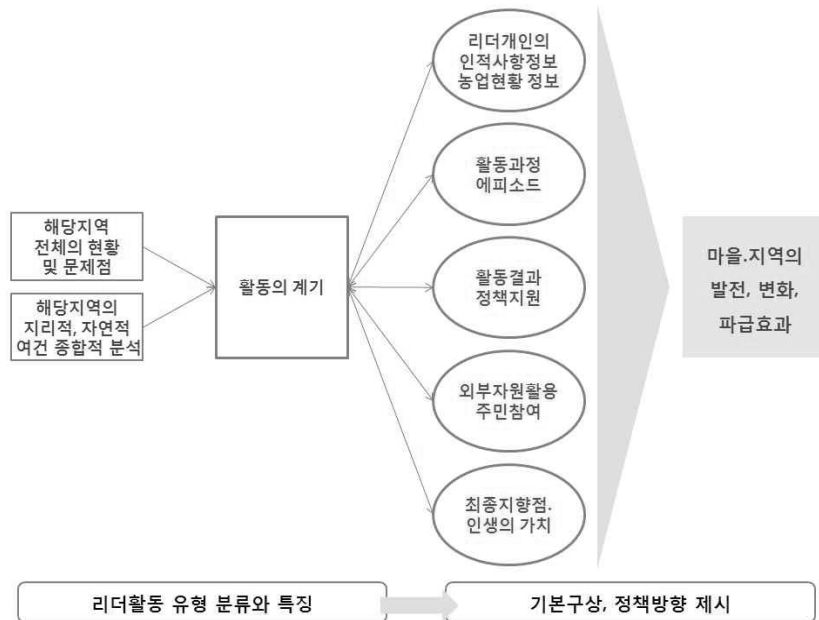
둘째,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리더를 인력육성 및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사고하고 있는 느낌이다. ‘지역의 리더’란 인위적으로 지역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해당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각기 다른 방식과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다. 이에 천편일률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과정운영으로 리더를 연간 00명, 혹은 000명씩 양성한다는 계획은 기존에 해오던 인력육성 교육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셋째, 리더육성이 일반적으로 농산어촌 지역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본다. 제2장 농촌지역 리더 연구동향에서 살펴봤듯이, 리더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탄생하였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과 역할로 구분·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사업들은 마을개발의 범주안에서 파생된 리더발굴과 육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까닭이다.

넷째, 기존의 지역리더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농촌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육성정책 미흡, 다각화 및 다변화된 교육프로그램 미흡, 참여적·실천적 교육정책 미흡, 전문강사 확보 곤란,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분명 사업 시행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나 리더개념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충남 7개 시군별 공무원들이 추천한 리더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리더육성과 관련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분석틀을 다음의 <그림 3-4>와 같이 설정해 보았다.



〈그림 3-4〉 본 연구의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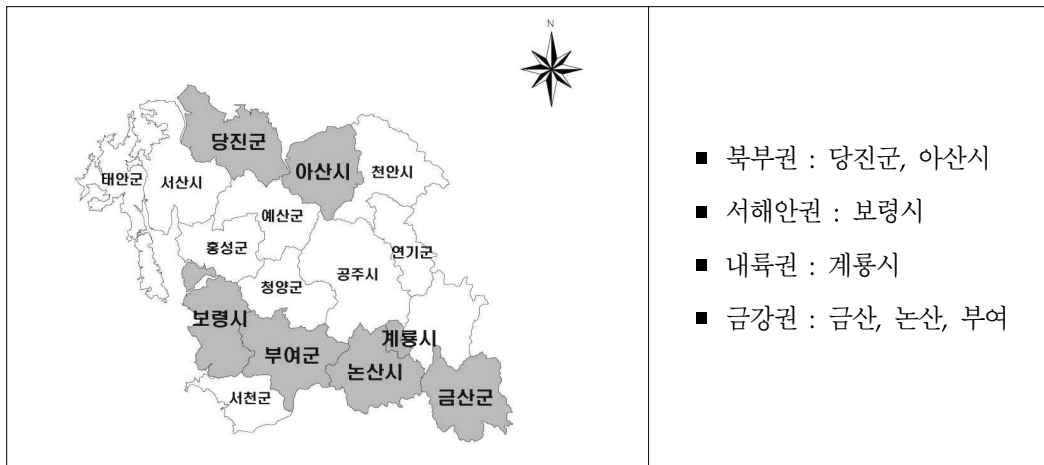
해당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에 대한 개요와 지역적 특수성, 특징 등을 살펴본 후 리더들의 활동실태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농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를 도입부분에 소개하고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리더활동 실태를 정리하였다. 그 활동내용과 상황, 결과 및 정책적인 지원 성과물, 외부자원 활용과 주민들의 반응, 최종지향점과 가치, 향후 계획 등으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것은 리더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로서 리더활동 유형분류와 특징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육성과 관련한 정책구상 및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지역별 리더활동 실태 연구

1. 조사개요

- 조사자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강마야, 연구원 송주연
 - 강마야 : 연구총괄 및 책임, 조사수행, 보고서 작성
 - 송주연 : 연구협조 및 지원, 조사수행, 자료수집 및 정리
- 조사기간 : 2011년 10월 13일 ~ 2011년 12월 2일, 매주 목요일~금요일
 - 지역별 평균 1.5일~2일 소요(1차 방문, 2차 방문)
- 조사지역 : 충남 16개 시군 중 7개 시군



- 조사방법 : 리더추천, 사전 정보탐색, 직접 방문 및 인터뷰, 리더 주변인들의 평
가의견 청취, 사후 자료수집
 - 행정기관(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 지역 리더추천 협조요청, 자료 협조요청,

- 방문 및 인터뷰를 통해 추천한 리더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의견청취
- 행정기관(도청) : 지역별 · 사업별 농어업인 대표자 추천, 리더방문일정 공유 및 협조요청
 - 연구자 : 리더 추천에 따른 사전 정보탐색, 조사수행(방문 및 인터뷰 면담 실시)

□ 조사목적 : 리더활동 사례조사

- 지역별 리더들의 활동 사례조사 수집 및 정리
- 리더 활동을 통해 지역내 전 · 후 발전 비교와 파급효과의 정성적 파악

□ 조사내용 : 계기, 진행과정, 자원의 활용, 지역내 파급효과, 방향, 목표, 가치 등

- 지역 현황 및 과제, 문제의식 출발점, 이유
- 사업 시작계기(인연), 지역리더로서 활동동기와 목적
- 사업의 개요, 핵심가치
- 사업의 진행현황, 세부 프로그램 구성방식
- 타사업 및 정책과의 연계, 다른 사업들과의 차별성
- 의사결정 수렴방식, 의사소통 방식, 성과 공유방식 등
- 부문별 진행과정, 경과, 프로세스, 단체내 동기부여 과정
- 사업진행시 애로사항, 그 밖의 에피소드(어려운 점, 보람있는 점 등)
- 외부와의 협조 체계 구축, 자원활용 방식 및 정도
- 지역주민, 조직원이 기대하는 사항
- 구체적인 방향, 지향점 및 최종목표
- 향후 사업계획
- 리더의 핵심요소 혹은 선결조건
- 지역에서의 정량적 성과(투입, 산출, 단기적 성과, 정책사업 유치 등)
- 지역에서의 정성적 성과(중장기적 파급효과)

□ 특이사항 : 리더추천 방식

- ① 기존 연구 및 문헌자료, 사례 수집 : 지역재단 및 연구원 내부자료 등
- ② 충남내 농업·농촌 인적자원 관련 목록 수집(도청 농정과 협의,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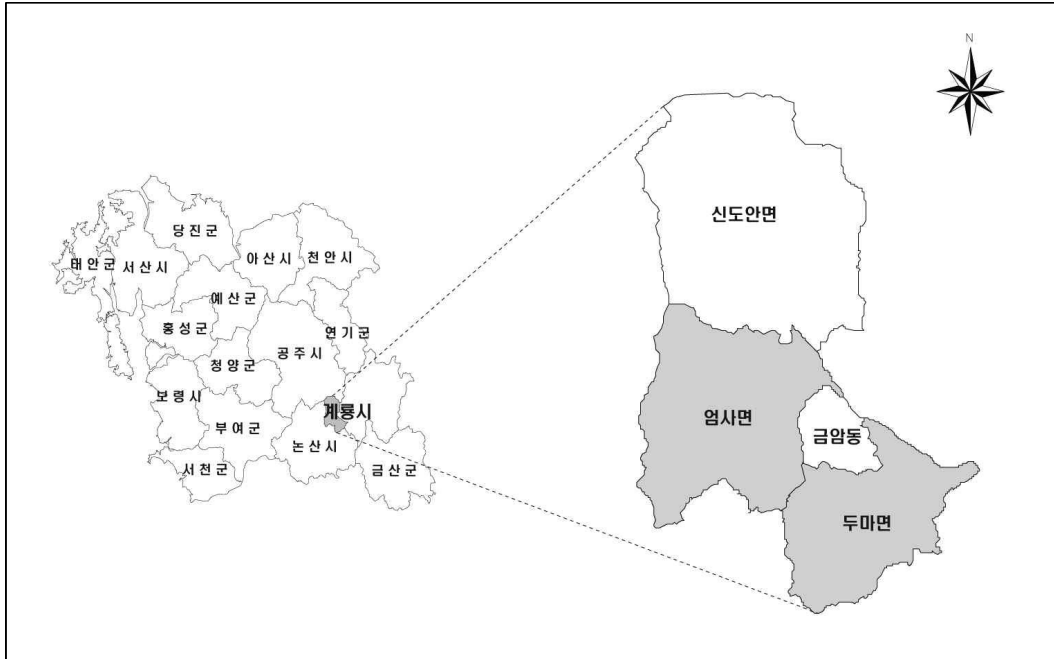
- ③ 시군별, 유형별 단체 및 인물 목록 1차(초안) 총괄정리 : 약 1,300여명 도출
- ④ 시군별 단체 및 인물 목록 추천(시군별 농정과 협조) : 시군별 리더 2-3명+a 추출
- ⑤ 시군별, 유형별 단체 및 인물 목록 2차(안) 정리 : 원장 검토

□ 조사대상자(리더, 관계자 명단)

조사일시	조사지역	소속기관	조사대상자
2011.10.20.(목), 2011.10.26.(수)	계룡시	양봉연구회,계룡꿀마을	김중식
		친환경연구회,계룡농장	안중식
		지역경제과 (농업경제담당)	주영하, 김충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김대훈
2011.10.21.(금), 2011.10.26.(수)	금산군	바리실마을	박인호
		신안권역	유상귀
		홍도인삼마을	양현철
		추부갯잎마을	정효동
		농업정책과	김기수
		농업기술센터	김흥기
		제원면사무소	김진섭
		남일면사무소	하광덕
2011.10.27.(목), 2011.10.28.(금)	논산시	추부면사무소	손종건
		딸기마을	남기순
		햇빛촌바랑산마을	이동신
		농정과	홍광희
2011.12.1.(목)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김정필
		당진낙농협동조합	이경용
		영진마을	박정일
2011.10.14.(수), 2011.10.13.(목)	보령시	축산과, 농정과	최병부, 김동숙
		서해농장	이정학
2011.10.13.(목), 2011.10.28.(금)	부여군	은행마을	김청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부여군지부	최병국
		굿뜨래 수박연합회	소진담
		농정과	송병용
		농업기술센터	김진근, 이순자
2011.12.2.(금)	아산시	부여농협	
		세계꽃식물원	남기중
		농업기술센터	김현수

2. 계룡시

1) 계룡시 개요



〈그림 4-1〉 계룡시 행정구역도

계룡시는 충청남도 남동쪽에 있는 시로 2003년 논산시에서 행정구역 분할로 탄생한 첫 독립 도시이다. 평범했던 농촌 지역이었지만 1989년 육·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하고, 1993년 해군 본부까지 옮겨오면서 논산시 두마면 일대는 국방의 중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후 이 지역에 국방 관련 인구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충청남도는 「전원·문화·군사 신도시」 건설을 기치로 1990년 2월 계룡출장소를 설치 하였고, 2011년까지 인구 15만 명 수용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약 9,000여억 원을 투자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공단조성, 도시기반시설 구축, 생활편익시설 확대 등 활발한 개발 사업을 펴왔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출장소 설치 후 10년이 넘도록 인구가 일반

시 승격요건인 5만 명에 이르지 못해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고, 결국 2003년 9월 19일 인구 3만 여 명 수준에서 특별법으로 계룡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 계룡시 인구는 약 4만 여 명으로 대한민국 행정구역 중 시단위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표 4-1〉 계룡시의 주요 연혁

연대	내용
1910년대	1914년 논산군 두마면
1980년대	1989년 육공군본부 계룡대 이전
1990년대	1990.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두마·남선지소 설치) 1993. 해군본부 계룡대 이전 1996. 논산시 두마면 (논산군→논산시 승격)
2000년대	2003.09.19. 계룡시 출범 2003.10.31. 민선1기 지방자치 출범 2005.12.07. 엄사면 설치 승인 2006.07.01. 민선2기 지방자치 출범

자료 : 계룡시청(<http://www.gyeryong.g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군사도시이자 대전광역시의 위성도시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계룡시 인구의 약 40%는 군인과 군부대 관계자이고 나머지는 원주민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이주한 주민으로 추정된다. 원주민은 두마 일대, 유입 이주민은 남선 일대에 분포하는 이중구조를 보이며¹⁾, 종사 직종으로도 주직종인 군인과 그렇지 않은 비군인으로 양분된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계룡시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76%로 개발된 이래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인구수는 42,941명이다. 이 중 엄사면의 인구는 18,568명(43.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암동(20.12%), 신도안면(19.58%), 두마면(17.06%) 순을 보인다. 계룡대와 인접한 엄사면은 1993년 계룡대 주거 지원 단지인 엄사지구 20만평이 개발 완료되었고, 금암동은 1998년 금암지구 신시가지 30만평이 개발 완료된 지역이다. 최근에는 두마면, 금암동, 엄사면 일대에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 계룡출장소 당시 행정구역은 북쪽의 남선지소와 남쪽의 두마지소로 구성되었다. 현재 신도안면, 엄사면 일부가 남선지소에 해당되고, 나머지 엄사면 일부와 금암동, 두마면이 두마지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표 4-2〉 계룡시 면·동별 인구추이

(단위: 명, %)

	2003	2006		2009		
				남	여	구성비(%)
계룡시	31,058	36,961	42,941	21,227	21,714	100
두마면	21,141	1,944	7,325	3,594	3,731	17.06
엄사면	8,705*	18,713	18,568	9,070	9,498	43.24
신도안면		8,434**	8,409	4,263	4,146	19.58
금암동	1,212	7,870	8,639	4,300	4,339	20.12

* 남선면 인구를 나타냄. 2003년 계룡시 행정구역은 두마면, 남선면, 금암동으로 구성

** 남선면 인구를 나타냄. 2006년 계룡시 행정구역은 두마면, 엄사면, 남선면, 금암동으로 구성

자료 : 계룡시, 계룡통계연보, 각 년도.

이처럼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계룡시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의 농업기반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경지면적도 대체로 협소하고, 가족중심의 노동집약형 농업 중심을 보인다. 이는 대도시 배후지역으로 토지 가격이 비싸 기본 경영비가 많이 들고, 힘든 농사보다는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농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룡시에서는 향후 농정방향 및 계획으로 농업의 규모화보다는 근교농업의 이점을 살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아직은 친환경농업 필요성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도와 마인드가 부족한 현실이지만,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제도적인 뒷받침과 유통 및 가격문제를 해결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2009년 현재 계룡시의 농업 현황은 농가수 492호, 농가인구 1,599명으로 계룡시 인구의 약 3.6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가수와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1.62%, -23.07%로 전반적으로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2006년 632농가(72건), 2007년 635농가(82건), 2008년 573농가(84건), 2009년 785농가(134건)으로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다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표 4-3〉 계룡시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단위: 호,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농가수	913	1,013	546	538	492	-21.62
농가인구	2,992	3,291	1,723	1,588	1,559	-23.07

자료 : 계룡시, 계룡통계연보, 2010.

계룡시의 주요 농작물은 쌈채류, 칼라피망, 토마토, 화훼류(국화), 상추, 딸기(1월~5월 판매), 양봉, 우렁이, 특작 등이 있으며, 딸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중 쌈채류는 계룡시에서 소개하는 특산물 중 가장 1순위로 소개되고 있는데,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전형적인 근교교외지역이라는 점이 쌈채류 재배 여건으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타 가공품으로는 장류, 엿류(신도안종합식품), 가공음료(계룡산업), 피앤에프(치킨양념소스 전국 13개 지사 공급거점 지역), 미나미 화과자 등이 있다.

〈표 4-4〉 계룡시 품목별 주요 재배지역 분포

구분	주요 재배지역	
쌈채류	엄사면 유동리	
칼라피망	두마면 왕대리	
토마토, 상추, 딸기, 양봉, 장류	계룡시 일원	
화훼류(국화)	금암동 일원	
우렁이, 엿류	엄사면	

자료 : 계룡시청(<http://www.gyeryong.go.kr>)

2) 농촌리더 활동내용

우선 엄사면의 지역적 특성 및 하위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엄사면은 1991년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금암지구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3군본부 인근 최대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성장한 곳이다. 현재 아산시 신창면, 탕정면에 이어 충청남도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면에 속한다. 면적은 17.9km², 세대는 6,478가구(2011년 현재), 인구는 18,722명(2011)로서 법정리 5개리가 있고 행정리는 32개, 반은 239개가 있다. 법정리에는 엄사리, 유동리, 광석리, 도곡리, 향한리가 있다.

계룡시 전체 세대수는 14,216세대이고 이 중 엄사면 세대수는 6,490세대로 45.6%를 차지한다. 인구수도 18,568명으로 계룡시 전체 대비 약 45%를 차지한다. 계룡시 내에서도 인구측면에서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도시적 성격이 강하여 농업생산 기반은 취약하다.

사례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리더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연구회에서 각각 양봉연구회(김중식)과 친환경연구회(안중식)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계룡시의 작목별연구회 현황은 10개회이고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양봉연구회 및 계룡꿀마을 김중식 회장

총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농업기술, 농업인교육 ◆ 리더추천사유 : 벌통 300여통 직접 기르면서 양봉기술이 없는 군민들, 귀농인들에게 직접 기술전수 교육 실시

개인사항 및 농사현황

- 이름 : 김중식
- 나이 : 57세
- 고향 : 보령시 웅천읍
- 농장주소 :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76번지
- 거주지 :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 가족관계 : 본인, 부인, 딸, 아들
- 농장명 : 계룡꿀마을



직책으로는 가급적이면 농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중요 직책은 맡지 않으려고 하지만 현재 속해있는 기관 및 단체로 계룡꿀마을, 대한양봉협회 충남도지회 계룡시, 계룡시 작목별 연구협의회가 있다. 이곳에서의 직책은 도지회 회장,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작목별 연구협의회 감사, 양봉연구회²⁾ 회장직 등을 맡고 있다.

그간의 경력과 농사계기를 살펴보면, 군 제대 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 하던 중 보령시 교육청 기능행정직(웅천읍 모초교)으로 근무하였다. 근무하고 있던 교장선생님이 취미로 양봉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갖고 살고 싶어서 10년 근무하고 퇴직을 결심하고 대전 유성구 과수원동으로 이동하여서 자영업(오토바이 부속품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지금의 계룡시로 이사와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양봉업은 취미생활로 하였다. 계룡시에 들어오면서 양봉업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1998년에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인 양봉업 전업농으로 전환한 시기는 200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양봉업의 이점으로 인해 본인이 몸이 힘들어 건강조건에 적합한 농사가 양봉업임을 알고 시작하게 된 것이다.

농업규모 및 현황은 주소득원으로 양봉 799군(군당 일변 30,000마리, 군당 여왕 1마리), 이

2) 단위연구회인 양봉연구회(회원수 11)는 2010.1.28 창립(연합회 1, 단위연구회 10, 회원수 : 80명)하였고 도(충청남도작목별연구협의회)산하 시군단위 조직이기도 하다.

중 주력군은 350군, 나머지는 보조군으로 화분매개용 군단으로 판매된다. 부소득원은 헛개나무 3,000주이고 수확량은 벌통 1군당 10병(24ℓ 기준) 24ℓ 수확, 로얄젤리 캡슐 1군당 250여개, 프로폴리스 1군당 100mℓ이다. 역활분담은 본인은 생산에만 전념, 부인은 판매 및 택배발송, 고객응대 등이다. 판매방식은 오로지 전화상담, 인터넷 판매는 하지 않는다. 규모는 3개 농장 보유하고 있고 이동 양봉 방식을 채택한다.

양봉업의 특징으로는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꿀벌이 없으면 지구가 4년내에 멸망한다고 할 만큼 기초 농사임. 벌들의 수정활동이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는 원동력이 됨)하는 근본이 되는 동물이고 이에 따라 사람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의미있는 농사이다. 장점은 벌의 생리활동에 따라 겨울에는 물공급, 꽃가루 공급, 5월 중순에는 아카시아 꿀 개화하면 꿀 얻을 수 있고 벌의 각종 부산물도 활용가능(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하다는 것이다. 양봉업의 핵심은 꿀벌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관찰력만 있으면 된다.

양봉업 생산변화 차이에 따른 판매상품(상품화)은 초기에는 꿀만 생산하면 되었으나 6년전 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꿀 생산, 화분매개용(수정벌) 생산, 부산물 생산으로는 화분,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벌독(봉침) 등이 있다.



벌꿀세트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벌독(봉침)

판매활동 및 고객관리로는 사람들과 사람들에게서 구전으로 입소문, 주로 충남지역 전역에서 골고루 찾아온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계룡시 지역 양봉업자에게도 소개시켜주면서 판매를 확산시키고 있다. 처음 10년 전에는 꿀만 구입했던 고객이 지금은 꿀을 이용한 타가공품까지 구입하였다. 단골고객은 현재 3~400여명 가량이고 주로 대전시 및 충남권역권, 일부 전국각지에서 찾아오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경영요인으로는 관찰력이 핵심이고 이러한 관찰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 얻고 이를 실행하는 것에 있다.



농장전경



꿀벌통



상품화 과정(로알젤리)

활동 1 :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양봉업 기술 교육, 지역내 확산 시도

활동계기는 계룡시 군인(전역 예정, 귀농인)에게 기술전파 계기, 농사관행을 탈피하게 하고 싶었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여전히 기존 관행 답습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모든 먹거리는 사람이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농업인들에게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이는 범위내에서 주위 사람에게 정보나 기술을 알려주고 전파하려고 노력하고자 한 것이 전부였던 것 같다. 이러한 활동과정 결과로서는 처리량, 온도 조건 등 실험을 통해 성공하게 되면 양봉업자들에게 직접 전파하고 지도하고 전파하는 경로나 방법은 협회 모임시, 센터의 품목별 연구회 모임시 자연스러운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종 양봉모임, 농촌지도자회, 축산인 모임시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주로 양봉하는 사람이 배우기 위해 찾아오곤 한다. 격식차리는 것은 불편하여서 다같이 둘러앉아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공식적인 강의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하였다. 계룡시 군에서 전역예정을 앞둔 50대 중반 귀농인이 주 대상이고 그 외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등 귀농인들도 있다. 결과는 대부분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양봉은 관찰력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노력과 집중도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과거 계룡시에서 양봉업을 하는 사람은 현재 70대 중반 농업인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친환경농법의 양봉업은 본인이 최초 시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지역내 양봉업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속적으로 확산 중에 있다. 지역내 양봉업 현황은 군 전역 8명이 시도 중이고 계속 확대 전망에 있다.

정량적인 효과는 계룡시 양봉업 사육호수는 17명으로 추산(실제 통계연보상 현황으로는 38 호수, 5,024군, 호당 132군 사육)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실제 20-30군씩 보유하면서 규모 확대 중,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 실시 중이다. 45년 전부터 20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수 증가 (평균은 20-30군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결국 계룡시 양봉업 전체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내 주민의 반응과 정성적 효과로는 군 전역인에게는 소득수준보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는게 더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본다. 사회생활 시절과 비교해서 보면, 퇴직한 이후에는 예전 현역때의 소득만큼 벌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양적인 가치보다 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고 양봉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활동 2 : 지역농업인들에게 화분매개용별 공급, 지역내 농자재 소비-공급 순환구조 형성

화분매개용 별 공급규모는 보조군 중 100-150여군, 필요량의 전량공급이 가능하다. 계룡시 관내의 시설채소 농가에게만 유통하고 있다. 시설채소 농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용 별 인데 그 전까지는 타지역에서 공급받는 상황이다 보니 수정율이 잘 안 되는 불량 별도 많고 A/S가 불가능해서 불만들이 많았다. 4년 전부터 그런 소식을 접하고 계룡시 관내의 시설채소 핵심농가(20여농가)에게만 자신이 직접 화분매개용 별을 전량 공급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는 것이다. 20여 농가는 계룡시에서 주요 핵심농가, 이들의 주요 재배 품목은 상추, 딸기, 블루베리, 수박 등 복합영농을 하고 연령은 40-60대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내 주민의 반응과 정성적 효과는 계룡시 자체가 도시이다 보니깐 일반주민들은 농업에 별로 관심과 반응 없었지만 농업인들간에는 서로 얼굴을 아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니 신뢰관계가 쌓이고 불량률이 거의 없다는 평을 받았다. 관내에 있으니 즉시 A/S조치가 가능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소득향상에도 이바지, 이제는 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과정(외부자원 활용, 어려웠던 점, 에피소드 등)

외부자원 활용정도를 살펴보면, 계룡시 농가전체,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별 연구협의회와 교류하고 있고 특히 수박, 딸기 등 시설채소 농가와 지속적 교류 중에 있다. 4년 전부터

화분매개용 벌 공급을 약속하여 공급 실시 중이고 10여년 전에는 봉침을 배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견학도 실시하였다. 지금은 자습으로 노하우를 습득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농하고 있다. 성격은 얌전하고 차분, 조용한 편이고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는 편으로 인생에서 어려웠던 점 및 역경의 시간들은 많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저그런, 무난한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그다지 큰 고난과 역경 등 별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 같다.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지역내 현안으로는 계룡시 전체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면서 생산적 활동보다 소비중심의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신에 원주민보다 타지역인이 많아서 타지역인을 배척하는 경향은 없는 것 같다.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이점, 소비도시란 점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육성을 통해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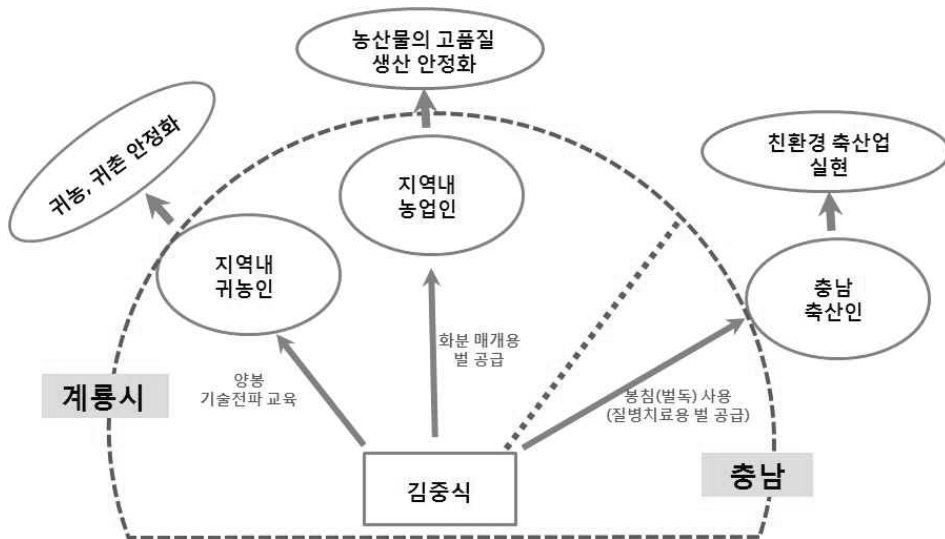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 봉독생산(벌독)이다. 이는 치료용으로 활용하나 현재 한의원에서 활용하는 봉독은 전량 수입품이다. 소나 돼지에게 항생제 투입 대신 친환경적으로 질병치료부분 활용가능, 친환경축산도 실현가능하게 된다. 축산인과 충남양봉협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 봉독 생산을 축산에 먼저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입증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고 있다.

둘째, 수벌에벌레 생산인데 고단백식품으로 활용가능하다. 셋째, 기타활동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실적인 도움, 티내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아픈 환자에게 벌독(봉침)와 프로폴리스 제공하는 것이다.

삶의 가치, 농업의 가치, 생활신념 및 신조는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보람있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야 한다. 정치나 외부활동에는 주변에서 권유는 많이 하나 관심이 없고 본연의 주업에 충실하기로 하였다.

요약 및 시사점

조용하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들에게 도움의 손길 건네는 것이다. 친환경 양봉업을 자연스럽게 확산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 농업인 및 귀농인(주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양봉업 기술전파와 교육활동 통해 초기 정착에 대한 안정감 부여, 양봉업을 시설채소, 친환경 축산과 연계 시도와 이를 전파확산하려는 마인드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영농의 기본이 되는 화분매개용 벌을 자체공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지역내 영농자재의 소비와 공급 순환구조 형성에 기여한 것도 괄목할 만하다.



〈그림 4-2〉 계룡시 엄사면 김중식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나. 친환경연구회 및 계룡농장의 안중식 회장

총괄개요

- ◆ 분야 : 친환경 선도농업인
- ◆ 리더추천사유 : 친환경인증 등 각종 농업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시도, 계룡시 유일의 친환경인증 농가로서 선도적 역할

개인사항 및 농사현황

- 이름 : 안중식
- 나이 : 60세
- 고향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 농장 주소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75-2번지
- 거주지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 농사인력 : 본인, 부인
- 농사경력 : 약 30여년
- 교육경력 : 방통대 평생교육원 친환경농업컨설턴트 인증
- 농장명 : 계룡농장



직책으로는 과거에 무공해쌈채체험농장, 한국유기농업협의회, 대전친환경협의회, 유동리장, 계룡시 친환경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쌈채체험 농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계룡시 작목별 연구협의회 감사만 하고 있고 다른 직책은 전무하다. 그 이유는 쌈채소 농업을 매일 직거래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우스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외부 활동 할 여유가 없고 농사에만 전념하겠다는 일념으로 말질 않고 있다. 참고로 대전친환경협의회는 당진, 태안, 공주, 논산, 계룡, 대전권의 대표 친환경농업인들의 모임이다.

그간의 경력과 농사계기는 20대엔 양복점 및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30대부터 농사를 시작하였다. 시간흐름상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친환경농업 시작하던 중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초반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고 중반 경 언론홍보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친환경농업을 하게 된 계기는 한국유기농협회 가입하여 전국 각지의 친환경농업인과 정보 교류, 견학 및 교육 등을 받으러 다니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처음엔 상추, 방울토마토, 부추, 머위, 취나물 등 하우스 농사로 시작하였는데 그 중 방울토마토는 그 당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소비가 잘 안 되서 농사가 잘 안되었고 3년 뒤 쌈채소 재배를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유기농산물로 접근하기 시작,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인증) 인증을 2006년 3월 29일 인증, 재배종류 및 품목은 채소류(상추 등 약 30품목), 전량 직거래 판매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직거래를 하기 시작한 계기는 처음에는 도매시장 거래했었으나 낮은 경매가격으로 인해 경영비 대비 소비자 가격이 안 좋으니 자동적으로 직거래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직거래 하다가 남은 물량은 도매시장으로 출하해서 최소한 가격보장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장 주변전경



농장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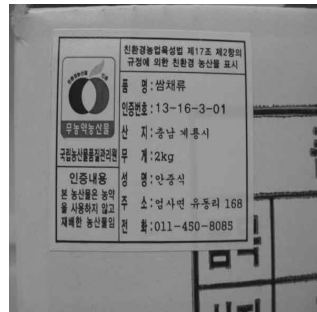
하우스 내부

농업규모 및 현황으로는 농장규모 및 시설이 예전 1,000평(하우스 4동)에서 최근 면적 증가해서 약 2,000평 재배하고 있고 무농약인증 농산물(하우스 전체 무농약 인증)면적은 1,500평(6동), 품목은 시설채소 및 쌈채소, 일반농산물의 경우는 하우스 재배이나 인증 없는 것으로 면적은 400평(3동), 품목은 딸기가 있다. 전체 생산품목으로는 약 20-30여가지가 된다. 주로 쌈채류인데 롤라로샤, 적근대, 생채, 비트, 향암초, 노메인, 오크리프, 벨지움, 썩갓, 청치커리, 레드치커리, 치콘 등이 그것이다. 계절별로는 여름에 쌈채소와 상추종류 등 15가지, 겨울에 기타 쌈채소 종류가 있고 약 10톤(10,000kg)생산량을 기록한다. 소득수준은 시설채소로 연간 약 1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 중 경영비가 전체 소득의 50~60%를 차지할 정도이다. 판매현황은 기본규격 2kg, 판매가격은 식당공급가 12,000원, 일반 개인 공급가 2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는 전국각지의 식당, 주로 대전과 논산시 권역이다. 식당의 경우는 종류별 대략

1box에 1가지 채소를 포장함으로써 비교적 작업이 단순하고 규모화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공급가와와는 달리 작업단계로 인한 가격차이 발생하고 있다. 판매비 중은 식당공급 70%, 개인공급 20%, 관공서 공급 10%로 100% 직거래 판매방식을 고수한다.



삼채 포장박스(2kg)



무농약인증



상품 내부

활동 1 : 도시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시도 끊임없는 실천, 유일한 선도농업인으로서 역할

그간 활동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 친환경협의회에 가입하고 열심히 활동하여 인적네트워크를 쌓아왔다. 대전친환경농업협의회³⁾에 가입, 활동하였는데 1998년부터 삼성홈플러스 일산고양점, 농협 하나로클럽 등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를 납품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거래규모는 약 10억원, 그 외 대전 둔산, 용전점, 청주점, 수원점, 서부농협, 남대전 농협 등 6군데 추가 납품을 할 정도였다. 예전에는 주변 농업인들을 독려하여 친환경농업 재배를 권유하고 활동하려고 매우 노력하였으나 이후 포기하고 기술전파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고 있다.

지금은 과채류만 취급하여 시설채소류 재배농업인 3-4명은 지금 협의회하지 않고 탈퇴한 상태이다. 농업인들은 박스로 출하하면 협의회에서 선별포장 작업하여서 납품점에 매장 직원을 두고 판매했었으나 현재는 과채류 위주로 납품하고 채소류는 납품하지 않아서 본인은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유통업체 측면에서는 산지간 경쟁이 심해져서 물량처리가 곤란하기

3) 대전친환경농업협의회란 당진, 태안, 공주, 논산, 계룡, 대전권의 대표 친환경농업인들의 모임이다. 1998년부터 1인당 300만원 출자로 시작한 단체로 총 23명 이상 모여서 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충남도의 보조지원을 받았고 정식명칭은 '대전충남 친환경농산물유통협의회'로 매년 10억원씩 판매사업 실적을 달성하였다. 운영매장은 약 10개 정도로 사무실 3명, 매장관리 2명을 운영, 지게차, 선별시설, 사무실 건물 등 보유하고 있었다.

때문이다.

친환경쌈채류 농업의 특징은 계룡산 자락 지하 100m압반수를 사용하여 재배한 계룡 무공해 쌈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만큼 사용하여 재배하며 그린음악을 이용, 친환경경재배법의 고품질 쌈채로서 근래에는 유기농법을 이용하여 하우스안에 보리를 심어 진딧벌을 서식하게 한 다음 진딧물을 잡아 먹게하여 병충해 예방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애로사항로는 생산 측면에서 잡초, 풀들과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말리는 부인과의 전쟁이다. 유통 및 판매 측면에서 유통, 판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격 측면에서는 채소의 특성상 수확량 및 출하물량이 작아 도매시장 시세는 매우 낮게 책정되는 편이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는 부부가 공동된 인식, 공감대 형성이 중요(대부분 어느 한쪽이 친환경 마인드가 부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음. 유혹에 빠지기 쉬움)한데 본인도 처음엔 부인을 설득하고 독려하느라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홍보경험으로는 TV프로그램에 소개(KBS : 6시 내고향, MBC : 청풍명월, SBS : 고향이 보인다), 친척 등을 통한 입소문(주로 대전, 일부 서울지역에 있는데 6촌만 모여도 약 100여명 이상이 되므로 이들의 구전 전파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 구매자들의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소개 등을 통한 전파활동이 있다. 10년전에는 논산시 행정구역에 있던 마을이어서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해 주었는데 7-8년전에 계룡시로 편입되면서 최근에는 계룡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일부러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로 알려지고 전파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된 것 같다. 소비자반응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율이 높고 단골구매고객이 많은 편, 계속 구매하는 추세이다.

재배기술의 노하우 및 성공적인 경영요인은 물을 적게 공급하는 것이다.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맛이 연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비료 대신 한방영양제 및 아미노산제 등을 공급(감초, 계피, 당귀, 막걸리 등)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자재 사용, 하우스시설 내부에 음악장치를 설치하여 매일 음악을 틀어 줌으로써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초음파 설치를 통해 각종 균, 충 예방 효과(진딧물, 두더지 접근 하지 못함.)를 노리고 천일염 살포를 통해 채소맛이 좋아지고 정식시 고사율이 저하되는 등의 효과도 보았다. 밀식재배를 통해 단수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역내 친환경농업 현황은 계룡시 관내에서 쌈채소 무농약 인증은 본인이 유일하다. 유기농산물(대파) 1농가, 무농약(블루베리, 쌈채소) 각 1농가가 있는데 2년전까지만 해도 1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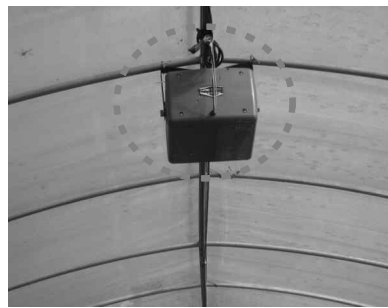
되었으나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타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반응은 지역민들은 친환경농업에 별로 관심도가 없다. 다만, 동네행사 시, 가족모임 시 개별적으로 구매하러 오는 정도이나 쌈 채소농장을 해서 내방객이 증가하고 관심도 높아 나름 뿌듯해 하는 편이고 유동리의 꽃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편인데 직접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외부인, 외국인 등), 공공기관에서 지역특산물 소개하러 오는 사람 등 본인이 일부러 알려서, 알리러 가기보다는 직접 찾아오고 있다.

진행과정(외부자원 활용, 어려웠던 점, 에피소드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실적으로는 2009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를 통해 하우스 내부에 친환경그린음악 및 초음파장치를 설치하였다.



음향효과 및 초음파 시설(1)



음향효과 및 초음파 시설(2)

외부자원 활용정도는 교육은 1년에 1-2회, 대전지역으로 나가서 받고 가끔 신문 및 독서 등을 통해 스스로 연구하고 습득하는 편이다.

지역내 현안과 문제점으로는 지원사업들이 지속적이지 않고 대부분 1회성 지원사업에 그친다는 점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농자재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퇴비지원이 일반 농산물과 같이 취급,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등지원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친환경재배에 대한 기술과 전문성 부족하여 이에 대한 육성 또한 시급하다.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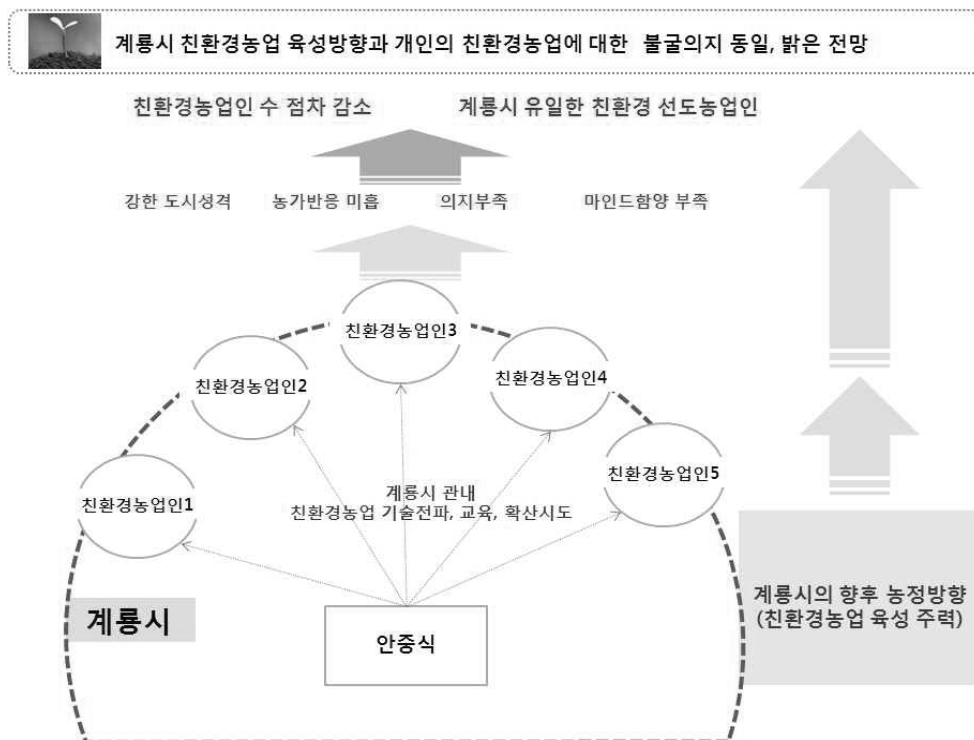
향후에는 곰취, 산나물 재배시도 계획 중에 있다. 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왜냐하면 부

부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현재의 약 2,000평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하우스 3동을 양약재배화 시설로 교체(잡초제거에 대한 인력수고를 덜기 위함)하고 있는 중이다. 보람있는 점은 친환경농업이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친환경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

삶의 가치, 농업의 신념, 신조는 소비자들에게 항상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요약 및 시사점

조용하게 본업에 충실히 종사하면서 소리소문없이 계룡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이다. 도시 및 소비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친환경농업임을 알고 주변의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사람이다. 계룡시의 친환경농업 기반기를 마련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림 4-3〉 계룡시 엽사면 안중식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3) 농촌리더 활동의 지역내 정성적·정량적 파급효과

가. 양봉연구회 및 계룡꿀마을의 김종식 회장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성적 파급효과

계룡시의 지역 특성상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타지역과 비교해보면 농가 본토박이들은 10%이내, 전국 각지에서 온 외지인 90%를 차지, 농가들 분위기도 피해의식이 강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띤다. 인구대비 각종 대표 및 단체 장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농업의 특성으로는 1989년에 논산 군에서 분리, 18년간 유지, 충청남도 출장소, 농업기반 전무, 지원사항 없었기에 사각지대였다가 2003년 계룡시가 출범하면서부터 농업보조를 받으면서 활기 띄기 시작, 농업의 각종 악조건을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농지는 임차 80%, 자가소유 20%이고 농업인 스스로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고 발전노력은 부족하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갖고 있다.

계룡시 농업은 통계도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미비, 농업역사도 길지 않고 보조사업도 거의 없고 농업기반이나 각종 인프라도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성격과 기본적인 농촌 현실을 보유한 지역, 지역구성원의 구성분포가 특징적인 지역으로 함축될 수 있다. 거양봉업 산업 현황은 예전에는 계룡산 자락이 토종별로 유명하던 곳이었으나 본격적인 양봉업 도입은 김종식 씨가 들어오면서 번창하기 시작한 것이다. 퇴직예정인 군인들을 규합하여 토지와 자본이 작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알리면서 시도하였는데 2004-2005년 당시 60농가 까지도 했었으나 지금은 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현재 파악하기로는 17-20농가 내외이다.

양봉업의 특징상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가능한 농사이고 계속 관찰하면서 해충 물리치는 활동을 해야 해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농업이라서 쉽지 않은 농사이다.

지역내 반응 및 파급효과는 타지역이었으면 양봉업, 친환경농업 파급효과가 컸을 것이나 지역적 특성과 농업분위기 상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결국 파급효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차이발생하기 마련이다. 대내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이다. 과거와 현재 달라진 점이라면, 일부 농업인들이 이런 인물을 본받아 자신의 기술을 빨리 전파하고 공유하려는 개방적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계룡시 농정방향 및 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은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유통과 가격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말로만 육성이지 실제로 농가가 체감하는 소득과 가격수준은 미비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계룡시는 친환경농업에 계속 주력하여 지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정 핵심방향으로 친환경농업과 양봉업을 잡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유와 당위성 존재한다고 본다.

리더육성의 방향 제언으로는 리더의 유형도 앞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그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후대에 가서야 그 가치를 인정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보이지 않는 힘의 무서움을 언젠가는 세상이 알게 된다고 믿는다.

리더추천사유는 부지런하고 조용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할 일만을 묵묵히 해오고 있고, 주변에서도 부지런함, 성실, 근면, 온화한 성격, 순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기술 전파노력을 기울이는 인물로서 계룡시 관내에는 그전에도 양봉농가들이 소규모로 하면서 토종꿀을 생산하였지만 지역내 본격적인 양봉업 도입 시도는 김중식 씨가 최초일 것이다. 이후 양봉농가 증가하기 시작, 특히 귀농인 중심으로 결합되면서 계속 확대 중에 있다. 본인의 순수성과 양봉업 이미지와 더불어 신도안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해 준 장본인이라고 감히 말한다. 귀농인 중심으로 양봉기술을 전수해주면서 다들 지역내에서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이고 김중식 씨의 성격상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하는 리더로서 보다는 지원자 역할에 더 어울린다고 본다.

정량적 파급효과

계룡시의 양봉업 사육추이는 2003년 사육호수가 31농가에서 2009년 현재 38농가로 증가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호당 사육군수는 2003년 116.6마리에서 2009년 현재 132.2마리로 점차 규모화 추세에 있다(표 4-5 참고).

〈표 4-5〉 계룡시 양봉(꿀벌) 사육추이(2003~2009년)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사육호수	군수	증감률	호당 사육군수
2003	31	3,615	-	116.6
2004	35	3,749	3.6%	107.1
2005	28	3,556	-5.4%	127.0
2006	37	4,420	19.5%	119.5
2007	37	4,420	0.0%	119.5
2008	37	4,420	0.0%	119.5
2009	38	5,024	12.0%	132.2

자료 : 계룡시, 통계연보, 각연도

나. 친환경연구회 및 계룡농장의 안중식 회장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성적 파급효과

과거 친환경농업 현황은 2~3년 전 계룡시 관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조직하고 규합하여 9~10명으로 구성된 법인을 출범하였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직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끌어 갔다. 하지만 친환경농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두 포기하고, 유일하게 안중식 씨만 남게 된 것이다. 35년전부터 무농약을 시도한 인물(그 당시로는 가히 혁신적이었음. 외곶으로 볼릴 정도)로서 지금은 역대 소득 성과를 올리고 있고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을 정도이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친환경농산물 연구회 10명의 농가 조직을 처음 제안하여 센터차원에서 독려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야심차게 출발하였다. 첫해에는 적자를 감수, 둘째 해에는 비슷한 수준, 셋째 해에 인증 획득하였고 2004년~2006년 3년간 노력한 끝에 모두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시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이 점점 포기하고 2명 생존하다가 지금은 안중식 씨만 유일하게 남은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어려운 점은 단지화가 필수인데 단지화 구성에 한계가 있다. 기본적인 농촌현실(고령화, 인구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지가상승으로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만을 고려, 농업 등 한시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내 반응 및 파급효과는 TV 등 공중파를 통한 홍보와 지인들을 통

한 입소문 홍보로 인해 자연스럽게 알려진 사례로서 신도안 (계룡시 농특산물 브랜드) 이용, 그 당시 신도안 브랜드와 친환경농업 동시기 시작함으로써 지역내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지역적 여건으로는 도시적 성격과 소비중심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서 이에 따라 농업은 지역적 여건을 활용해 틈새시장 공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친환경농업 분야인데 아직도 농업인들의 마인드 부족, 가시적 성과물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전략적인 지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다. 당장 친환경농가 조직 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다시 복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계룡시에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친환경농업임을 인식하고 더욱 주력할 계획이기도 하다.

리더추천사유는 본인이 스스로 센터의 기술교육, 세미나 참여에 적극적, 기술 전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유명인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해 교육 강의 경험 다수, 외부와의 교류 적극적이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속성, 전파력,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계룡시의 지역적 특성상(자연적·사회적·지역환경적)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꾸준히 친환경 쌈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회의할 때나 농가조직을 구성할 때, 농가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농가입장도 대변해 주고 반면,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농가들을 설득시키는 활동을 함으로써 센터입장에서는 매우 도움을 받았다. 본인의 기술노하우를 전파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친환경농자재 사용을 농가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활동을 한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려보면, 지역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시초이자 불씨를 당긴 인물로서 평가받는다. 지역적 여건(도시 성격, 소비지 성격)과 농촌의 기본 현실로 인해 각종 어려운 제약조건 봉착, 어려운 농사는 포기하고 농가들이 지가상승 개발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친환경농업의 끈을 놓지 않는 안중식 씨는 지역농업인들에게는 이상시 되는 존재로서 평가하고 싶다. 예전에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라는 것이 낯설어서 주변사람들이 다들 말리고 이상하게 인식하였는데 지금은 다들 그 노력에 인정해 주고 있다. 계룡시의 친환경농업 발전 시발점이 된 계기를 마련해 준 농업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량적 파급효과

계룡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엽채류 생산추이는 매우 미비하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농가수는 현재 1농가만이 유일하고 남았고 1ha면적으로 집계되었고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 관행 엽채류 생산도 2006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표 4-6〉 계룡시 친환경 농산물인증현황

(단위 : 건, ha)

구분	건수	농가수	면적
2005	-	-	-
2006	7	2	2
2007	11	4	4
2008	9	-	-
2009	5	1	1

자료 : 계룡시, 계룡통계연보, 2010.

〈표 4-7〉 계룡시 엽채류(상추) 생산량 추이(2003년~2009년)

(단위: 가구, ha,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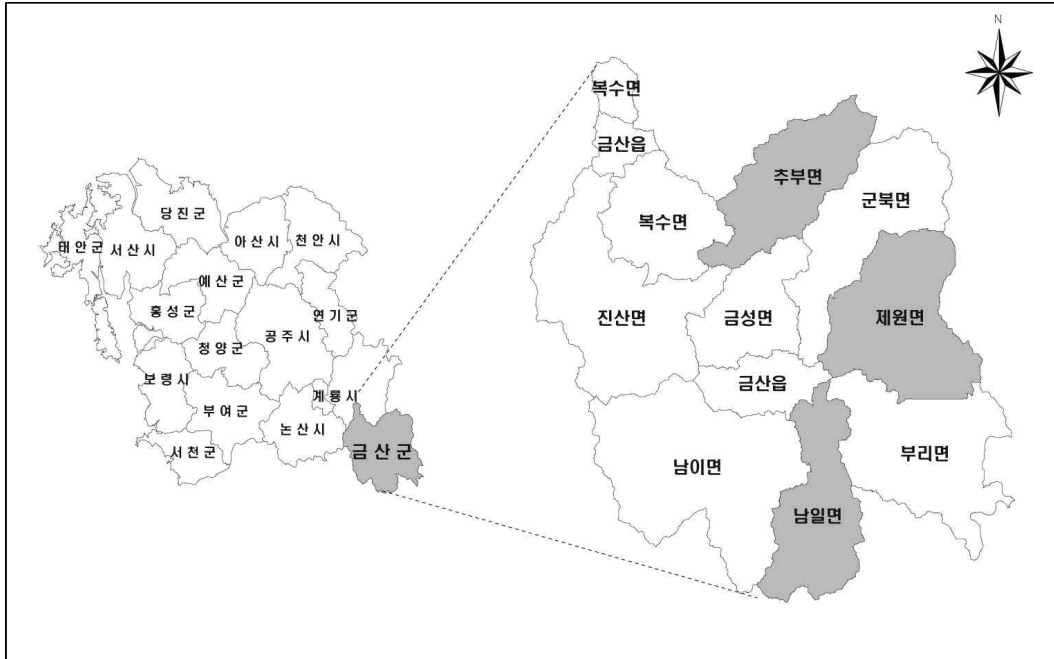
구분	재배농가수	면적	생산량	면적당 생산량(kg/10a)
2003				
2004				
2005				
2006		35	1,204	3,500
2007		27	945	3,500
2008		23	920	4,000
2009		24	792	3,300

주 : 엽채류 중에 상추만이 통계로 잡혀있고 나머지 배추, 시금치, 양배추는 없음.

자료 : 계룡시, 계룡시 통계연보, 각연도

3. 금산군

1) 금산군 개요



〈그림 4-4〉 금산군 행정구역도

금산군은 충청남도 최남단에 있는 군으로 북쪽으로 대전광역시, 서쪽으로 충남 논산시, 동쪽으로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남쪽으로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 상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9개 행정리와 106개 법정리가 있고, 1,11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576.28km²로 충청남도 전체면적의 6.70%를 점유한다.

2009년 현재 금산군의 인구는 57,209명인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4%로 매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기간 동안 약 7,576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금산군의 인구구조는 2009년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7,150명(12.72%),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청장년층 36,312명(64.59%), 65세 이상의 노년층 12,758명(22.69%)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소년층의 구성비는 낮은 반면, 노년층의 구성비가 매우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22.69%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성별 비율⁴⁾은 노년층을 제외하곤,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각각 110.73, 125.29로 남초 현상을 보인다. 특히 전형적인 농촌사회에서 나타나는 청장년층의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4-8〉 금산군 읍·면별 인구추이

(단위: 명, %)

		2000	2005	2009			
				남	여	구성비(%)	
금산군		64,785	59,014	57,209	29,090	28,119	100
	금산읍	25,321	24,013	23,910	12,030	11,880	41.79
	금성면	5,111	4,462	4,189	2,131	2,058	7.32
	제원면	4,015	3,593	3,282	1,684	1,598	5.74
	부리면	4,331	3,473	3,104	1,529	1,575	5.43
	군북면	3,306	2,896	2,762	1,394	1,368	4.83
	남일면	3,488	3,055	2,919	1,437	1,482	5.10
	남이면	2,690	2,321	2,335	1,189	1,146	4.08
	진산면	4,355	3,839	3,645	1,817	1,828	6.37
	복수면	4,367	3,994	3,905	2,146	1,759	6.83
	추부면	7,801	7,368	7,158	3,733	3,425	12.51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각 년도.

금산군은 지형지세가 특징적인데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각각 군의 중북부와 동남부를 지나고 있어 이들 산계와 그 사이에 있는 고원상 분지로 구분된다. 평균 해발고도가 250m로 충남의 평균 해발고도 보다 2.5배나 높고, 충남에서 가장 높은 서대산(904m)이 소재한다.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까닭에 금산군의 기후는 대체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를 이용하여 대표 작물인 인삼 외에도 사과와 깻잎 등이 특산물로 재배되고 있다.

금산군은 1,5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인삼약초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09년 현재 금산군 내 인삼재배는 2,656호의 농가가 1197.35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기준으로 충남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매년 금산인삼축제가

4) 성별비율은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가리킨다.

개최되고 있으며, 2011년 31회를 맞이하였다.

〈표 4-9〉 금산군 인삼재배 현황(2009)

(단위: 호,)

	농가수	재배면적	재배면적 구성비
충청남도	4,955	3,624.6	
금산군(충남대비)	2,656	1197.35	100(33.03)
금산읍	217	71	5.93
금성면	259	147	12.28
제원면	363	214	17.87
부리면	433	206	17.20
군북면	302	128	10.69
남일면	477	197	16.45
남이면	299	108	9.02
진산면	187	68	5.68
복수면	42	17	1.42
추부면	77	44	3.67

자료 : 2010 충남통계연보, 2010 금산군통계연보

사과는 금산군 제원면 일대의 천혜적인 분지형 기후조건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1977년 박인호씨가 비탈진 산 7,500평 개간한 후 묘목 5,000본을 식재하면서 사과 농업이 확산되었다. 제원면의 사과는 온도가 높은 낮시간에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 내면서 사과의 맛과 향, 당도가 뛰어나다.

갯잎은 서대산이 위치한 추부면이 메카로서 이곳에 1982년 처음 김기수씨가 재배를 시작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 전국 최고 품질을 인정받는 대단위 단지로 발전하였다. 갯잎 역시 주야간 일교차가 큰 지역여건으로 잎이 두껍고 색깔이 진하며 향이 독특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갯잎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추부 갯잎은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80여억 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2) 농촌리더 활동내용

가. 바리실녹색농촌체험마을 위원장 박인호와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상귀⁵⁾

리더	총괄개요
박인호 회장 (제원면 명곡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종합리더(마을개발/녹색농촌체험마을, 신안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관광, 농산물 생산과 유통 등) ◆ 리더추천사유 : 지역내 새로운 과수발전 기여, 농촌체험마을개발 등 각종 정책사업 다수 유치 및 우수사례화, 금산군정평가단 활동, 시책에 대한 문제점 발굴하여 방향수립 기여
유상귀 위원장 (제원면 신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마을개발/녹색농촌체험마을, 신안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관광 ◆ 리더추천사유 : 농촌체험마을 관련 우수사례화, 도농교류마을 선정, 박인호 단장과 함께 군연합회를 주도적으로 구성

지역특징

제원면은 면적 64.3km²로 67%가 임야로 이뤄져 있다. 행정리는 28개이고, 법정리는 13개리, 반은 104개이다. 법정리는 구역리, 금성리, 길곡리, 대산리, 동곡리, 명곡리, 명암리, 수당리, 신안리, 용화리, 저곡리, 제원리, 천내리이다.

명곡리는 제원면의 서쪽에 위치해서 동쪽에는 산 높이 480m의 발군산이 주봉을 이루면서 산의 흐름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서쪽으로도 산이 연이은 그 사이로 북쪽으로부터 흘러오는 조정천의 유역에 넓은 들이 조성되어 비교적 평야지대를 이루는 곳에 위치한다. 명곡리에 위치한 바리실 마을은 스님과 밥주발인 바리를 닮았다고 해서 부처봉이라 이름 붙여진 봉우리가 6봉 가득 담긴 산세가 마을을 내려다보는 은근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바리실의 ‘실’이 실과 실(實)이라 해서 이름하여 스님의 욕심없는 바리에 과실이 가득 담겨 ‘부자’되라는 뜻의 바리실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에 버들치가 살아 1급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바리실 마을에서는

5) 본 내용은 리더와의 면담 외에도 신문기사, 군청 및 면사무소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지금도 버들치를 옛 사투리 그대로 '중태기'로 부르는 낭만스러운 고집도 은근한 곳이다. 금산의 대표 인삼을 마다하고 사과를 마을의 명품으로 키워낸 장인정신이 또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인심도 풍요로운 양반고을이다. 특히 논농사가 불리한 지역으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당도높은 과수재배에 적합하여 30여년전부터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한 곳이다. 바리실사과 브랜드를 계기로 발전하게 된 지역이다.

신안리는 제원면의 서북쪽에 위치해서 전반적으로 산악지대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신라의 경순왕과 고려의 공민왕, 두 임금이 어려운 시기에 편히 쉬어가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하여 신안이라 이름 붙여진 유서 깊은 곳이다. 꽃이 많이 피는 산골마을 신안리의 화원동은 예로부터 꽃이 많이피는 산골이라 하여 화골, 화원동이라 불리었다. 제원면 총 가구수는 1,469세대이며 인구수로는 3,282명이다.

제원면 내에서 타마을과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명곡리(바리실마을)와 신안리(신안권역 마을)는 아주 앞선 마을로 인정받고 있고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반면 저곡1리(닥실마을), 대산리 등은 그런 사업실적이 부진한 곳이다.

신안리는 마을에 사람이 워낙 없어서 어떤 사업이든, 체험마을을 수행하는데에 한계가 많았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신안권역 하양꽃빛마을)을 유치하고 유상귀 위원장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명곡리는 3~40대의 젊은 사람 유입이 많은 편이고 근면하고 성실하여 일벌레들이라고 소리를 듣기까지 한다. 8~90년대까지만 해도 못사는 동네였지만 지금은 금산군 내에서도 부자촌으로 유명하고, 주요 작물로는 인삼약초, 사과를 하여서 1년내내 농사짓는 구조, 모든 정책사업들이 지나칠 정도로 집중된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대산리는 논농사 위주지역으로 예전에는 여유롭게 잘 살았으나 지금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서 빈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인사항 및 영농현황

- 이름 : 박인호
- 나이 : 60대 초반
- 고향 : 금산군 제원면
- 주소 :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 현직장 : 금산군 사과영농조합 대표이사
- 소속단체 : 바리실 사과작목반
- 가족관계 : 본인, 부인, 딸2
- 마을명 : 바리실마을
- 상별 : 자랑스런 금산인상, 농어촌발전대상, 새농민 선정수상, 충남도지사 92농업인상 수상 등



그의 농사경력은 1992년부터 시작, 지금까지 약 20여년간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초기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였고 지금의 바리실사과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종욱이다.

그가 맡은 직책으로는 10년간 작목별 연구협의회 운영(21개 조직 중 한 개), 영농조합법인 설립, 4H 회장, 명곡2리 영농회장, 바리실 꿀사과 작목반장, 명곡2리 새마을지도자, 금산군사과영농조합 대표이사, 충남농어민지원센터 과수분야회우원 위촉(충남도지사), 농산물자율검사원위촉(국립농산물검사소금산출장소장), 충남도의회 의정모니터요원 위촉(충남도의회의장), 제원면 체육회 회장, 금산군 새농민회장, 금산군 작목별 연구회장, 현재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사과재배를 시작하기까지 농촌산간 마을에서 성장하였다. 금산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영세한 영농규모로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야산에 사과를 재배한다면 고소득 작목으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착안하게 되었다. 농업을 소득업으로 하자라는 것이 주된 골격이고 1977년도에 인산후작지조 버려진 비탈진 산을 7,500평을 개간 후지 묘목을 5000본을 식재,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마을에 사과농업을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바리실 사과 작목반 조직, 재배기술 등 교육참여 후 농민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6년에는 과실 생산 유통시설 확충(10억)유치, 2002년 환경친화적 사업(2

억 5천만원)을 유치하였다. 현재 바리실마을의 사과농사는 총 21가구가 27ha에서 재배 중이다.

사업계기로는 바리실사과 브랜드로 출범하면서 그전에도 이 브랜드를 만들고 사용하면서 계속 농가조직과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2002년 농어촌발전 대상수상하면서 더욱 명성 높아진 것이다. 맛과 품질도 매년 향상되면서 저절로 브랜드 명성도 높아지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사회활동은 바리실 꿀사과 작목반장, 제원면 체육 회장, 금산군 새농민 회장, 금산군 작목별 연구회장, 금산군 사과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위원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바리실 사과



바리실 사과밭



바리실 마을입구

바리실 마을, 지역내 사과산업의 육성과 발전, 농가소득 증대 기여(박인호)

정부정책의 변화와 맞물린 활동계기는 농가들과 조직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사업과 맞물렸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유통구조 개선사업(1994년~1995년)을 통해 농업시설 설치 지원받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친환경농산물사업을 통해 소비자 변화에 맞춰 친환경농업 시행, 우렁이농법, 사과축제를 유치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농촌관광사업으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신안권역 장려상), 바리실마을,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정책은 정부가 바뀔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미리 정권교체에 대비해 사업을 진행하고 끊임없는 지원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 도농교류 복합사업이 효과가 가장 좋았는데 소득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지리적 조건에 맞는 사과재배를 위하여 바리실 마을은 지대가 높은 분지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어서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한 편이다. 온도가 높은 낮 시간에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 내면서 사과와 맛과 향, 당도가 뛰어난 천혜의 사과재배 조건을 가진 곳이다.

활동과정(사과 작목반 육성 발전)으로는 1980년도에 첫 수확 하였고 가격이 높아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고, 이에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81년도에 23농가가 참여하여 바리실을 사과마을로 육성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시발로 현재 40여 농가가 작목반에 참여하였다. 1996년도에는 금산군 131개 작목반 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작목반으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실시(공통퇴비제조장건립 등) 중에 있다. 2004년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사과생산 기반 조성, 환경친화적 사과생산을 하고 있다.

활동과정(바리실 사과 홍보활동)으로는 1992년 능금꽃한마당잔치 개최를 계기로 제12회 금산인삼축제 행사시 퍼레이드에 자율참여로 바리실 꿀사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시작하였고 주변사람들이 사과꽃만 보면 뭐하나, 맛도 보자라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맛을 볼 수 있는 축제로 전환, 사과맛보기 축제로 전환한 뒤 까다로운 소비자들에게 맛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성공, 농가들의 소득향상으로 직접 이어지는데도 성공하였다. 2001년도에는 바리실 사과 맛보기 대회 개최에는 500여명의 도시민들이 참여하였고 TJB, SBS에서 방영하는 등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에 발전을 하고 있는 등 이후 2011년까지 제 10회 축제를 맞이하였고 매년 관광객 증가 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바리실 사과 맛보기 대회를 전국에 알리는 축제로 승화 발전의 계획 구상 중에 있다.

바리실녹색 농촌체험마을은 매년 봄 '사과꽃축제'와 함께 가을철 '사과맛보기 축제'를 개최, 사과 직거래 장터를 여는 등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도농 교류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과를 테마로 한 체험 위주의 행사로 진행하는 바리실 사과 맛축제는 이 마을(바리실)사과작목반이 주최하는 조그마한 마을 축제이다. 와플파이, 사과잼, 사과튀김, 향토비누 만들기 등 바리실에서 나는 사과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2009년 8회 축제부터는 농어촌공사의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해 행사 기획에서부터 홍보, 축제장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호평을 받았다.

농촌체험관광으로는 봄과 가을에 사과꽃축제, 사과맛보기 축제 개최 등 마을 특산물인 사과를 이용하여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화합과 도농교류, 농가소득을 증대시킨 금산군의 모범적 농촌관광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기타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왕우렁이 농법체험, 차만

들기체험, 사과따기, 인삼밭엮기 등이 있고 전국적으로, 충남 및 금산군 관내에서 농촌체험마을 관련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사과맛보기 대회에는 사과로 만든 갓가지 진기한 식품이 등장, 사과떡, 사과튀김, 사과술, 사과김치, 사과고추장 등 무려 10여가지에 이른다. 계절별 프로그램으로는 봄엔 인삼심기, 봄나물,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 여름엔 금산 인삼축제, 금강 민속축제, 물놀이, 다슬기 및 민물고기 잡기, 돌담쌓기, 가을엔 인삼캐기, 사과 및 배수확, 사과맛보기 대회, 버섯축제, 머루 및 다래따기, 밤줍기, 메뚜기 잡기, 겨울엔 썰매타기, 얼음낚시, 고구마 구워먹기, 겨울산행, 연중 전통음식 만들어먹기, 친환경 오리농법 체험, 주말농장 등을 제공한다. 불거리로는 서대산의 웅장한 자태가 작은 산세에도 불구하고 위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이곳의 벚꽃축제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탄복을 자아내게 할 만하다. 인근에 충청의 상징 칠백의총이 자리하고 있고, 금강의 유유했던 자태도 빼놓을 수 없는 감상대목이다. 먹거리로는 토속재료로 조리한 시골밥상이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내 주민의 반응과 정량적 효과로는 우선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 1977년 사과묘목을 심을 당시 수도작 중심 농업으로 농가 소득 200만원이었던 것이 2002년 자료에 의하면, 2000만원으로 10배가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통계는 미확인이지만 훨씬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실 생산 유통측면에서는 과실 생산과 출하가 일시에 이루어지므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996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며(보조) 과실 생산유통자원사업(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실시, 홍수 출하 방지로 제 값을 받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마을대표

안녕하세요! 마을대표 박인호입니다.
마리실마을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주로 사과와 인삼, 성지향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리섬마을은 금산에 위치한 마을이지만 인삼보다 사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 전체가 붉지 지형으로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었던 지역은 맛있는 과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명품사과를 재배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월 사과꽃축제와 10월 사과대기축제가 그것입니다. 축제에는 사과떡, 사과튀김, 사과김치, 사과술 등의 먹을거리를 제공해 참가한 분들에게서 늘 좋은 소리를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실때 저희 마을 주인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성취하고 있습니다.

금산의 대표 인삼과 함께 사과를 마을의 명품으로 키워낸 장인정신이 또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인삼도 중요로운 양면고을이 바리섬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에 방문하셔서 아이들과 좋은 경험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게워 주시고 어린시절의 향수와 추억도 함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리실 사과축제1



바리실 사과축제2



바리실 사과축제3



바리실 사과축제4

기타 정책사업 유치실적으로는 2004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바리실마을 지정, 2005년 친환경마을 선정, 2006년 농협 팜스테이 마을, 2009년 신안권역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2009년 귀농인의 집 운영, 2011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 우수상(한국농어촌공사)을 받아 1000만원 상금 지급, 2011년 제9회 농촌마을가꾸기 대회 장려상(농림수산식품부)을 받아 2000만원 상금 지급받았다. 전국농촌체험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우수한 곳 선정, 수상, 농촌마을 간의 선의경쟁을 촉진시켜 농촌체험관광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최하고 2011년 도농교류 협력사업 선정(농림수산식품부)받아 2000만원 상금을 지급받았다. 1사 1촌 사업실적으로는 KT&G, 2008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전농협 보문동지점,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충남녹색연합(대청호 보존운동체) 등 11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도시소비자, 청소년, 어린이들의 농어업, 농어촌 현장체험 등을 통해 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체험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감 구축과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민간단체, 도시민, 농업인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마을입구(각종사업)



농산물 판매장



귀농인의 집



도농교류협력사업유치

〈그림 4-5〉 금산군 바리실마을의 사업유치 실적

활동 2 : 오지산간마을을 하양꽃빛마을 사업으로 승화 (유상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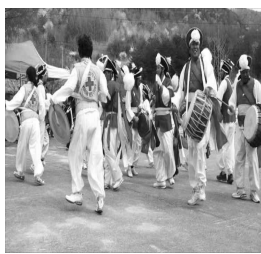
산골동네 하양꽃빛 마을⁶⁾(녹색농촌체험마을) 특징으로는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선정 녹색농촌체험마을로 꽃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향기로운 곳이다. 금산 하양꽃빛 마을은 특히 봄에 천태산을 오르는 등산길은 화원동이 진면목이다. 봄에는 국내 최대의 조팝나무 군락지에서 새하얀 조팝꽃이 눈꽃처럼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마을이고 수만여 평의 온 산을 새하얀 조팝 나무가 감싸고 있어 그야말로 <꽃눈>이 온산을 덮는 듯한 장관 이루기도 한다.

하양꽃빛마을의 조팝꽃축제는 2006년 4월 공감교육농장 주관으로 시작하였다. 정식명칭은 ‘화원동임금님조팝꽃축제’이고 화원동 마을회가 주최가 되어서 현재 후원자로는 신안권역추진위원회이다. 매년 4월 22일을 전후로, 2011년까지 6회째 개최 중에 있고 제원면 신안리 화원동(화골) 조팝광장에서 개최한다. 참여인원은 약 1,000여명 (주민, 신안권역주민, 공무원, 기관단체장, 학생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년 프로그램이 다르게 구성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금산IC~화원동10여km 드라이브코스로 화원동 임금님 조팝공원 명상길 걷기, 화원동 먹거리 체험(음식 나누어 먹기 등 신안리 마을회에서 준비), 체험(공감교육농장에서 준비, 승마, 당나귀먹이주기, 전통꽃마차타기, 조팝꽃담은팝콘만들기, 화원동토피어리·압화, 열쇠고리만들기, 민속놀이, 농사일체험), 전통혼례식, 공연(제원의 가수 진희, 농악한마당잔치), 면민화합을 위한 출향인사 및 기관단체별 화합행사, 신안희망센터에서는 도시민유치홍보, 민박, 영화상영, 희망을가꾸는농촌이야기 정기모임(전국모임), 신안사와마을에서는 신안사신도회, 신안리 귀촌인모임 등이 있다.



조팝꽃축제1



조팝꽃축제2



조팝꽃축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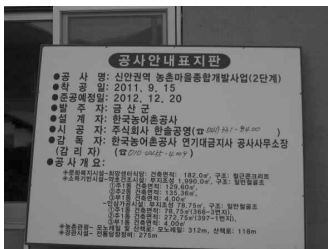
조팝꽃축제4

6) <http://cafe.daum.net/hwavill>

활동 3 :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⁷⁾, 각종 마을개발사업유치, 지속적인 활동(박인화·유상귀)

2009년에 착공하여 2010년 1단계, 2011년 2단계 2011년 현재 2단계 추진 중에 있고 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신안(身安)의미는 몸이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마을 주작목은 인삼, 산채고사리, 사과 등이 있다. 계기는 소득사업을 실행해야 주민참여가 가능함을 깨닫고 인삼 등 작목들을 가공부터 건조까지 일괄연계, 유용미생물발효사업(EM) 등 토양살리기 운동, 펠렛화 사업하는 방식의 진행, 스토리텔링화 사업 주력하였다.

최근 성과는 단순히 사과 수확과 시식에 머물렀던 기존 축제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 주민들 스스로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는 것에 있다. 이런 덕분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으며, 마을단위 축제가 지역단위 축제로 성공할 수 있는 사례 만들어냈다. 정착 농업인과 귀농인간 서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살려서 공유한다면 갈등해소는 물론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신안권역사업1



신안권역사업2(기공식)



신안권역사업3

〈그림 4-6〉 금산군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

사업의 개요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7) 각종 신문기사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 것임.

- 권역 : 제원면 명곡리, 구역리, 동곡리, 길곡리, 신안리 등 5개리 일원의 신안권역
- 권역면적 : 2,850ha(농경지 401ha, 임야 2,282ha, 기타 167ha)
- 가구 및 인구 : 281호(농가 260호, 비농가 21호), 696명
- 자원현황
 - 권역내 : 동곡저수지, 천태산, 전통담장, 친환경쌀, 바리실사과, 인삼, 지황, 신안사
 - 권역외 : 천내강, 월영산, 용강서원, 칠백의홍, 용호석, 금산인삼축제, 비단고를 산꽃축제 등
- 규모 : 2012년까지 총 59억원(2009년 길안분교 신축기공식, 2010년 1단계, 2011년 2단계)
- 비전 : 새로운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신안
- 개발목표 : 건강한 농촌, 즐길만한 농촌, 활력있는 농촌
- 추진전략 : 농촌이미지개선, 농촌문화환경 구축, 농산업경쟁력확보 ⇨ 주민역량강화
- 사업 :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환경시설, 경관시설, 재해대비시설, 지역역량강화 등
- 수범사례
 - 2010 농산어촌박람회에 참여하여 주민역량강화와 권역홍보라는 가시화된 성과를 올림.
 - 타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권역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짐.
 - 선진 우수권역과의 자매결연 체결 및 사업의 운영방안 협의를 통해 운영관리 노하우 확보
 - 조팝꽃 꽃길을 권역 주민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와 권역의 통합을 유도함.
- 사업별 세부계획
 - (1) 농촌체험 공간(명곡, 구역2리), 경관보전 공간(신안, 길곡), 문화교육 공간(길곡, 동곡) 등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 및 자원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권역별 동선체계와 시설이 구축
 농촌체험공간 : 장소적 특성을 살려 모노레일 및 산책로, 유용미생물 발효시설, 과원살리기, 약조건조시설, 인삼가공시설을 도입, 가족단위 관광객의 선호활동을 중심으로 체험거리 제공
 - (2) 문화교류공간 : 구길안분교 폐교를 헐고 신안희망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전통 문화공연장, 문화체험실, 별보기 체험장, 권역 홍보관, 정보화실, 회의실, 농촌생활관 등의 시설, 주민복지 공간 및 문화교육의 장소로 활용,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구심적 역할
 - (3) 경관보전 공간 : 마을단위별 전통담장 복원 및 벽화거리 조성, 테마별 소공원, 우물터, 디딜방아, 정자, 마을제당 복원 등 전통 생활시설물의 원형을 복원,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체험과 휴양 역할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이상과 같이 박인호 및 유상귀 위원장 활동을 보면, 외부자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정책사업 지원 다수를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내 현안과 해결방향으로는 농촌인구의 급감원인이 농업소득감소, 교육환경, 문화시설 부족 등인데 농촌의 안정적 소득기반구축과 함께 정주환경부문에 역점을 반드시 되야 하고 공감 확산 필요하다. 정주환경 미흡과 이해부족에서 오는 현지인과 귀농자간의 마찰 등 갈등이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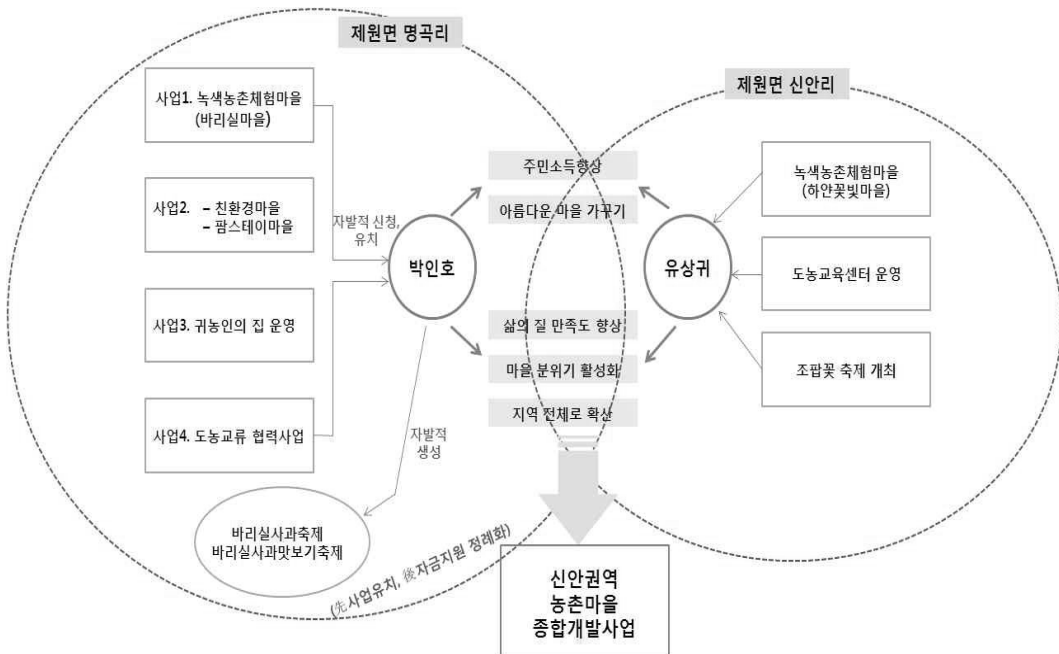
이들의 삶의 가치, 농업의 가치, 생활신념 및 신조는 지금까지 과수만을 생각하여 일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정 발전을 위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한다. 농산물 수입의 개방에 대응하는 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이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독특한 맛을 내는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다. 세계 제일의 독특한 사과를 생산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끈질긴 근성으로 새로운 과수 발전 인상을 적립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세계 제일의 독특한 맛을 가진 사과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농가 소득 2500만원을 목표로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연구를 하고 바리실 사과가 전국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바리실 사과 맛보기 대회 연속개최(방송사초청, 홍보방송방영)를 하고 인삼축제 퍼레이드 계속 참여 및 특산물 상설 매장운동을 할 것이다.

요약 및 시사점

박인호 위원장과 유상귀 사무국장은 함께 가는 리더들이다. 박인호 위원장이 제원면 명곡리에 각종 정책사업들을 자발적으로 신청·유치하고 바리실 사과 축제 같은 자발적인 마을 축제를 생성하여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킨다. 마을경관도 가꾸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자 하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마을분위기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제원면 신안리 유상귀 사무국장은 박인호 위원장과 함께 마을개발, 마을축제 개최, 도농교류를 개최하여 결국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에 이른다.



〈그림 4-7〉 금산군 제원면 박인호 및 유상귀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나. 홍도인삼마을 추진위원장 양현철

총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마을개발, 마을축제 ◆ 리더추천사유 : 농촌의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서 삶의 질 만족도 향상시키고 지역자원인 홍두화를 통해 4번에 걸쳐 지역축제를 해내고 이를 통해 홍두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림

지역 특징

남일면은 면적 47.14km²로 67%가 임야로 이뤄져 있다. 법정리 9개, 행정리는 19개이고, 법정리는 9개리, 반은 59개이다. 법정리는 덕천리, 마장리, 상동리, 신동리, 신정리, 신천리, 음대리, 초현리, 황풍리이다. 남일면의 가구수는 1,333세대, 인구수는 2,919명이다. 홍도리는 자연부락명으로 홍도마을이라고도 하고 법정명은 신정리라고도 한다. 예전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피해를 입었다가 지금은 축제 및 각종 마을개발사업으로 복원하였다. 원동리도 자연부락명은 원동마을이라고도 한다.

〈표 4-10〉 금산군 남일면 인구현황(2009)

(단위: 세대,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남일면	1,333	2,919	1,437	1,482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10.

개인사항 및 활동현황

- 이름 : 양현철
- 나이 : 1958년생, 50대
- 고향 : 금산군 남일면
- 거주주소 :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 가족관계 : 본인, 부인
- 마을명 : 홍도인삼마을
- 학력 : 1977년 고교졸업
- 홈페이지 : <http://www.hongdofarm.co.kr/>



그는 전 금산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금산군 4H연합회장, 금산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현 농촌지도자 금산군 연합회장, 금산군 농민단체 협의회장, 군정평가단 부단장, 농진청 영농 현장 모니터위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직책을 두루 경험했다.

그간의 농사경력과 농사계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35년전) 처음부터 농업을 하기로 맘먹었고 특히 축산업에 관심이 많았다. 농사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다. 1970년대 후반에는 원예작물(수박, 참외, 파) 노지채소를 재배, 4H활동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많아졌고 소득, 돈벌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후계자 자금을 받으면서 축산업에 뛰어들었고 이때 한우, 낙농을 하였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인삼을 주 소득작물로 재배하고 있다. 현재 농업규모 및 현황으로는 천안·아산에서 농사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지역내에서만 농사하고 면적은 약 6,000평으로 마을의 평균 수준이고 부인과 본인 2명 인력으로 가능하다. 판매실적으로는 원물은 수삼으로 전량 직거래 판매, 가공상품화(홍삼즙, 엑기스 등) 등이다. 연간 소득은 가공상품 판매를 포함하여 총 1억원(가공 50%, 원물 50%)을 벌어들인다. 시설로는 도원농원(세척, 가공, 찜, 증기, 증가공)을 건립, 약 1억2천 지원(1억원 보조, 2천 자부담)을 받았다.

사회활동계기로는 청년기에 4H활동(그당시 농업인구 여성도 남성도 모두 많아서 4H활성화 분위기)을 시작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진대회 출전해서 수상경력도 많이 쌓았고 교육평가후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성적을 거두자 농업과 농촌 관련 사회활동에 더 애착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있지만 수상을 계기로 더욱 스스로 직책을 찾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봉사정신, 희생정신, 사회에 일익한다는 재미와 긍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도 하다. 남에게 빚지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서 농사하지 않고 적정수준으로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업 외에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내 마을 부터 가꿔놓고 금산군과 충청남도에 봉사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여서 마을개발 및 축제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남일면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 붐을 탔지만 그 이후 식어가던 중에 본인이 남다른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1997년부터 새마을지도자를 자청해서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활동 1 : 각종 마을개발사업 및 축제 유치

사업실적과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 성과로, 1997년 농촌진흥청 ‘생활환경시범촌사업’ 유치

- 총 1억원 사업비, 5천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마을주민과 외지인 각출
- 주변조경, 마을수영장, 마을회관을 마을문화관으로 리모델링, 찜질방과 운동시설 갖추
- 주민들의 반응은 마을이 좋아지고 편리해지니깐 만족도 및 호응도 높았음
-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충남내에서도 마을개발 사업으로 계속 선정되는 결과를 냄

② 두 번째 성과로, 1998년~2000년 충남선정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유치

- 2년간 총 10억원 사업비
- 시군별 1개 마을을 선정토록 하는 열띤 경쟁에서 얻은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깊음
-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득은 쉬웠지만 선정참여 대상자를 계속 만나고 다니는 활동이 힘들었음
- 계기는 농업이 어려우니까 만이라도 편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농업보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됨
- 주요 실적으로 첫째, 마을 오페수 처리문제가 심각하였는데 3억원을 투입해서 최초로 오페수 처리시설을 준공, 둘째, 예전의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서 대형관정을 파서 마을 상수도 시설을 개보수, 셋째, 기타 부수적인 것으로 마을 주변환경정리, 농로확포장, 주거환경

개선, 태양열 설치 등

- 주민반응은 그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반응이 좋았고 주민설득 활동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음

③ 세 번째 성과로, 2003-2004년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유치

- 2년간 2억원 선정
- 계기는 사업부터는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된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방안으로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지원 과정에서 기존 마을사람들 간 유대관계가 좋았고 기존 사업실적이 좋아서 별 무리없이 신청하고 지원 받았음
- 마을명 : 인삼약초마을, 홍도인삼마을
- 프로그램으로는 홍도민박(00네 민박), 팜스테이, 농가체험(인삼캐기, 인삼병만들기, 인삼 화분만들기, 된장담그기, 여치집만들기, 손두부만들기, 고추따기, 고구마캐기), 마을장터 (토종된장, 수삼, 홍삼즙, 홍삼정)

“건강까지 찾아가는 ‘홍도인삼마을’”



인삼은 그 이름부터가 그러하듯이 생김새가 사람의 모습을 닮았고, 인삼의 효능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으뜸 약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인류의 명약', '심비의 약초'로 수천 가지에 이르는 한약 약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도인삼마을'은 도시의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의 활타가 되기 위해 직접기른 양질의 인삼을 활용한 많은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며, 또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농가체험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친척 집에 온것같은 푸근한 인삼으로 여러분을 맞이 하였습니다.



홍도인삼마을 안내 홈페이지

마을전경

〈그림 4-8〉 금산군 홍도인삼마을 홈페이지 및 마을전경

④ 네 번째 성과로, 2005-2006년 농협 ‘팜스테이마을’ 선정

- 어려웠던 점은 시작부터 반응이 안 좋아서 혼자 주도하면서 진행, 그 이유는 팜스테이사업은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민참여가 필요했음. 마을 이장직

수행을 끝내고 난 뒤 모여서 설명하고 설득했으나 주민들 반응이 시큰둥하기만 해서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진행과정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일일이 설득하면서 결국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의 받고 시작함. 젊은 층 5농가, 노년층 5농가로 구성, 결국 희망하는 10여 농가(마을의 총 농가수는 52농가였으니 참여농가 비중이 20%수준)만 참여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됨. 설득 내용으로는 도시민유치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판매, 숙박시설, 체험행사 개최 등
- 반응은 초창기라서 주민들은 다들 낯설어하고 방문객들은 노년층 집 숙박의 경우 깔끔하지 못해서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5농가만 사업에 동참하게 됨. 하지만 숙박하는 고객이 농산물 직판과 가공품 직판도 이용하면서 사업유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고 주변의 농가반응도도 점점 높아지게 되었음
- 이를 통해 느낀 점은 소득사업은 강제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됨
- 2011년 현재 10~15농가 이상 사업에 참여,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변화로는 전국적으로 체험마을이 워낙 많아서 내방객은 줄어들고 있으나 지금은 도시민에게 직접 체험활동 기회를 주고, 믿을 수 있고 얼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에 반응이 좋았고 농가들에게는 가공품 판매도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 좋음.



홍도인삼마을 안내도



홍도팜스테이마을

〈그림 4-9〉 금산군 홍도인삼마을 사업유치 실적

⑤ 다섯 번째 성과로, 2006년 홍도화 축제 개최, 올해 4회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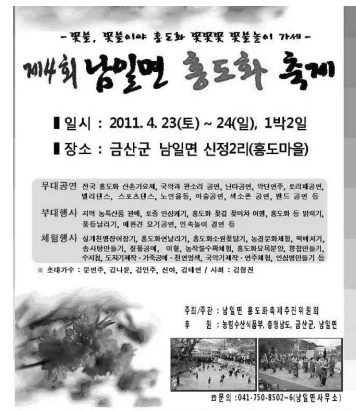
- 홍도마을이 원래 붉은 복숭아라는 의미인데, 홍도화(개량종 꽃), 홍도(개량복숭아, 작은 크기이면서 신경통에 좋은 농산물)에서 비롯된 명칭임
- 배경은 홍도를 마을전체에 키우기는 힘들고 해서 홍도화를 키우자고 마음먹고 1996년에 홍도화 나무(마을의 상징물) 식재를 유도, 군에서 300만원 지원받음
- 본 마을은 무주와 경계지역인 곳으로서 마을경계선 4~5km를 내리 식재, 4월말 개화하면 그 경치가 매우 훌륭하여 지역여건도 적합함.



홍도화1



홍도화2



홍도화 축제 포스터

〈그림 4-10〉 금산군 홍도화축제

- 어려운 점으로는 5~6년 뒤 나무가 어우러져 갔기 때문에 축제계획 수립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마을의 이미지를 홍보, 농산물 판매를 위한 필요성을 느끼게 됨. 축제를 위한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했으나 마을단위 축제지원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
- 벤치마킹 사례로는 광양 청매실 농원의 매화축제의 경우 연간 10만명이 방문하는데 마을 할머니부터 모두가 매실을 팔기 시작하는 광경을 보고 마을의 주 소득원이 되게 해보자는 판단 갖게 됨
- 진행과정 : 2006년 경 건양대 관광과 교수에게 축제계획 수립을 의뢰(천만원 연구용역, 2일 축제내용계획수립)하였고 그 결과물을 면장에게 메일로 보내면서 건의함. 그 당시 남일면에는 축제가 없어서 고심하던 때라 면장은 흔쾌히 승낙하였고 결국 농식품부 지정축

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어 사업비를 무리없이 확보하게 됨. 2007년 지정되고 1회 축제를 개최, 3천만원 지원받아서 성공적으로 개최함.

- 축제내용은 인산물 원물 및 가공제품 판매, 음식판매, 꽃구경거리 제공 등
- 아쉬운 점은 면이 주도하다보니깐 방향이 농가소득 향상 측면보다는 홍보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데 당초의 본인 의도는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이었음.
- 의미 : 홍도축제는 마을 면단위에서 주관하였고 본인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는데, 면과 함께한 최초의 축제로 기록됨.
- 결과 : 2박 3일 동안 외지 관광객 및 군민, 주민 포함하여 30,000여명이 다녀갔음. 그러나 홍도화 개화는 4월, 농산물 판매는 7~9월까지여서 축제기간과 농산물 판매기간 타이밍이 맞질 않았음.
- 주민반응 : 면에서는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는 시기라서 대신에 음식물 판매를 권유함. 하지만 축제시기가 농번기라서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매우 바쁜시기였음. 음식장사는 실제로 돈도 되지 않고 손님맞이만 하는 것이었으므로 불만이 많았음.
- 효과로서는 가시적인 소득향상은 처음에 미비했으나 지금은 돈이 되니까 스스로 참여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음. 예를 들면 홍삼즙 가공판매의 경우도 10농가나 하고 있음. 농가당 연간 3천만원 가량 소득향상 효과를 거두니 점차 기를 쓰고서라도 참여하려함. 그리고 홍삼된장 판매의 경우도 10농가나 참여하고 있음.
- 향후 계획은 일단 마을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을 유입해야 하고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축제방향 재정립,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축제를 유지하는 방안 모색함.
- 느낀점은 결국 사람들이 지역에 모여서 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됨. 지금 농촌 주민 현실이 매우 각박해져서 뭔가 소득이 되어야 움직이기 시작함.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정신은 흐려짐.
-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최근의 소비트렌드에 맞춰서 얼굴있는 농산물 구입을 소비자들이 원하니 정직하게만 만들면 잘 팔림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참여농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 이런 것으로 보면 반응이 좋음을 알 수 있음.

진행과정(외부자원 활용, 어려웠던 점, 에피소드 등)

농촌현실로 인한 애로사항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희생과 봉사정신 부족, 점차 공동체 활동의 참여도와 호응도 저하되고 있고 혼자 돈 번다고 잘나가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강하다. 사람이 없어서 마을공동으로 시설관리가 안되니 지금은 회의가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외부자원의 활용정도는 시간나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습득, 농진청의 주기적인 정보지 구독한다. 그리고 배움중독증세가 있을 정도로 웬만한 강의는 전부 수강하는 편이다. 이러한 배움에 대한 의욕 원천은 농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로 인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육수강하고 있다. 원예와 축산업(한우, 낙농)을 하면서 이론과 현실 접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론습득은 자비를 지출하면서라도 교육이 있으면 전부 따라다닐 정도였다. 그 외에 정보교육, 인터넷교육, 컴퓨터교육, 문서작성 교육 등도 부지런히 수강하였다. 경희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벤처농업경영학과 졸업(2005학번), 금산벤처농업대학 졸업하였고 지금은 교육활동은 잠시 중단하고 농사에 전념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삶의 가치로는 농업·농촌에 대한 막연한 끌림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농업농촌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착을 가져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겼다.

지역현안과 문제점으로는 농업인의 의식개혁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잔류성 농약사용을 자제, 숙박이 출하관행 금지, 관행농법의 출하 금지 등이다. 농촌주민들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팽배해져서 자기들 밖에 모름. 공동체의식 부족한 것 같다. 농산물은 후세까지 간다는 장기적인 생각과 방향에 대한 고민 부족하다. 발전방향으로는 인삼을 세계무대로 알려져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된 홍보가 필요하다.

리더의 조건은 본인은 승부욕과 욕심이 매우 강하고 높는데 모두가 사심은 버려야 할 것이다. 마을사람들을 포용정신과 정을 담아 가족처럼 대해야 하고 결국 모든 것은 사람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설득이나 사업지원 등은 수단과 방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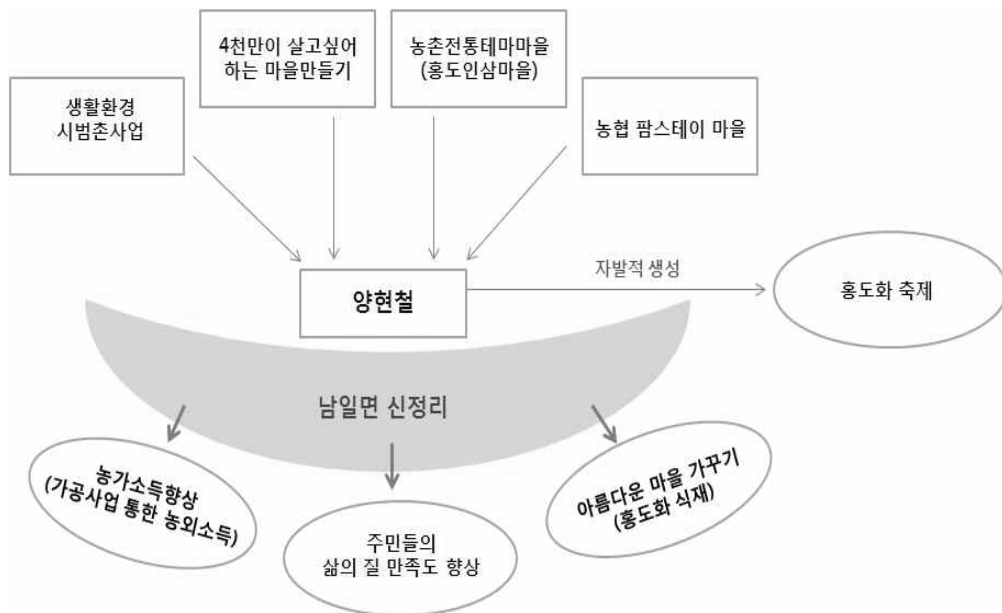
가리지 말고 될 때까지 시도하는 등 고집스러운 점이 있다. 자신의 농사일은 철저히 하되 집안에서 인정받고 신뢰받아야 외부에서 진정한 모델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

리더육성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기반마련 지원 필요(현실적인 문제), 지도자가 돈을 안 쓰면 남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요약 및 시사점

양현철 위원장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농촌도 아름답고 이쁘게 꾸미고 살아가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환경 시범촌 사업부터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만들기, 농촌전통테마마을(홍도인삼마을), 농협팜스테이 마을 사업을 유치하고 홍도화 축제를 자발적으로 생성하기에 이른다.

이로서 남일면 신정리 주민들은 가공사업을 통한 농외소득 발생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었고,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4-11〉 금산군 남일면 양현철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다. 추부곶앞마을 정효동 위원장

총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마을개발, 마을축제 ◆ 리더추천사유 : 정보화마을의 처음과 끝을 잇게 하는 사람, 정보화마을로 지역내 발전 가능성을 모두 도출하고 집약화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물

지역특징

추부면은 면적 49.08km²로 행정리는 26개이고, 법정리는 10개리, 반은 90개이다. 법정리는 마전리, 마전1리·2리·3리·4리·5리·6리·7리·8리, 비례리, 서대리, 성당리, 신평리, 요광리, 용지리, 자부리, 장대리, 추정리이다. 추부면의 세대수는 총 2,975가구이고 인구는 7,158명이다. 특산물로는 추부곶잎, 추부포도(캠벨, 7-11월 출하/자옥, 킹데라, 이두금(왕포도), 청포도), 추부배(서대산 꿀배), 추부 느타리버섯, 기타 특용작물(추부 더덕, 추부 녹용)등이 있다. 마을명소로는 서대산, 대둔산, 만인산, 국사봉, 강참봉굴, 대장군정고신도비, 행정은행나무 등이 있다.

〈표 4-11〉 금산군 추부면 인구현황(2009)

(단위: 세대,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추부면	2,975	7,158	3,733	3,425

자료 : 금산군, 금산통계연보, 2010.

금산군내에서 추부면의 위치는 금산군에서 면 단위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도전해보자는 마인드로 인해서 정보화교육 추진정도도 우수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7~80%가 참여 중에 있다. 주변에 중부대학, 지자체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 동참으로 인해 여건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역특징으로는 신평 산업단지 외 300여개 공장입주가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음식특화거리(군 추진)는 추어탕 전문집 6-70개가 있고 토박이들이 운영한다. 이 지역

은 농사목적이라기 보다 실소유자가 부동산 투자차원에서 구입한 경우가 많고 교통이 발달해서 경제효과도 있지만 환경오염이라는 단점도 있다. 특히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난개발되는 지역, 환경오염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금산군내에서의 포지션은 상위층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추부깻잎은 1970년대인 30여년전 김기수 씨(전 만인산농협 조합장)이 밀양에서 들여와서 금산군 내에서, 추부면에서 본격적으로 재배하게 하고 발전시킨 것이 효시이다. 현재 약 70세로 '자랑스런 충남인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깻잎발전의 지리적 여건으로는 중부대학이 추부면에 위치해 있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0여 년전부터 식당 및 숙박업이 들어오고 인구유입 증대하면서 발전이 가속화되고 특히 대전시로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깻잎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고 귀농인도 많은 편이다. 추부지역이 인삼재배에는 부적합해서 빈촌이었으나 깻잎 농사를 계기로 법정리 9개 지역 모두가 발전하게 되었다. 즉, 깻잎을 계기로 추부면이 발전하고 부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추부면의 농업현황으로는 깻잎의 경우 마을 전체 가구수가 3,100가구인데 이 중 770농가가 깻잎 농사, 평균적으로 가구당 600평 재배(2-3개동), 현재 금산군 관내 깻잎 총 생산액은 약 130억원으로 추산, 대부분 추부면 실적이다. 만인산농협에서는 깻잎축제를 개최, 만인산농협 유통센터에서 선별 및 세척시설을 갖추고 농가가 전량 출하, 농협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 최초 시설에 GAP인증을 받았으며 주로 학교급식 납품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대부분 하우스 재배로 최대 수익이 좋을 때 시세로 보면 박스(4kg)당 30,000원까지 올라가고 있었으나 FTA영향으로 포도나 배 농가수, 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사항 및 활동현황

- 이름 : 정효동
- 나이 : 1965년생
- 고향 :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 거주 주소 :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 가족관계 : 본인, 부인
- 학력 : 우송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1985)
- 마을명 : 금산 추부갯잎마을 정보화마을
- 홈페이지 : <http://chubu.invil.org/>



직장경력으로는 (주) 두양상사(1986~1988) 근무, (주) 하이라이프산업(1990~1999)을 경영하는 등 직장생활을 경험한 뒤 귀농하였다. 귀농하여서는 충남 금산 추부갯잎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02.6월~현재), 정보화마을 대전·충남 권역 지회 창립 및 운영('06년~'09년), 금산 추부갯잎마을 운영위원장(2004~현재),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 총무분과 이사(2006.1~2010.2),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 제5대 회장(2010.2~현재)을 맡고 있다. 타지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근본과 뿌리는 버리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하지 않자는 주의로 임했다.

활동 1 : 정보화마을 사업의 운영, 지속적인 활동

정보화마을 사업유치 에피소드로는 1998년 IMF 이후 무렵에 농촌에 복귀하여서 갯잎농사로 시작하였다. 그전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일들을 계속 익혀왔다. 2002년 정보화마을도 도시생활 노하우를 고향에 확산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주변인의 권유로 사무국장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본인은 두문불출하면서 주중에 1-2일만 소재지에 나올 정도로 고향에서 조용히 농사만 짓고 살았었으나 점차 지역내에서 선배나 유지들로부터 봉사하도록 강력하게 권유받으면서 정보화마을 직책을 맡기에 이른 것이다. 본격적인 운영은 2003년에 사무장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를 결심하기까지는 6개월간 고민을 하였다. 진행과정에서 각 단체(갯잎작목회, 만인산 농협)간 이권싸움으로 번지고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위원장에게 사업포기를 제안하였다. 1년간 사업은 개점휴업 상태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

본인이 다시 설 자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1년간 두문불출하면서 지내왔으나 주민의 재 권유로 인해서 추진위원장으로 추대 받았지만 하지 않기 위해서 4개월간 피해다니기도 한 기억이 있다. 2년만에 아내와 상의해서 마을에 다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복귀하였다. 6개월 간 숙식하면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고 센터를 홍보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업 복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사비를 털어서 아르바이트생 운영할 만큼 어렵게 시작한 대신 주민들로부터 '운영위원' 구성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도 좋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 당시 사무국장은 35세, 본인은 40세로 최연소자여서 주민들에게 협조만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의표명을 두 번 했었으나 계속 지금까지 8년째 위원장직 수행 중이다. 2009년에는 정보화마을중앙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업무가 예산증액, 이사회주재, 각종 주최행사 등 행안부와 같이 움직이는 활동 등으로 인해 전체 업무 70%가 투입될 정도로 내부 살림 소홀하게 되는 점도 있다고 한다.

추부갯잎마음이 알려진 계기로는 6-7년전 대둔산 행사장에서 시식손님 중 KBS본부장이 있었는데 6시 내고향 촬영을 먼저 제안하였다. 거의 홍보영상 수준으로 약 15분 방송되었고 방송이 나간 이후에 지자체, 농협, 면사무소 전화불통이 날 만큼 홍보효과는 대단히 컸고 불티나게 상품들이 판매(무농약 갯잎, 갯잎김치 등)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추부면 마을의 추부갯잎 현황은 충청남도 최고봉인 서대산(904m) 자락의 준고랭지에서 생산되어서 산 좋고 물 맑은 추부에 갯잎재배가 시작되었다.b한우의 등심보다도 칼슘 함량은 20배, 철분함량은 10배 많이 함유되어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충남도지사의 우수농산물 추천, Q마크도 획득하였다. 처음 재배하게 된 시기는 1982년도 김기수씨가 처음 재배에 성공하고 60년대 말부터 조직된 시설채소 작목반원 20여명이 재배하면서 오늘날 전국 최고 품질을 인정받는 대단위 단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추부갯잎의 특성은 주야간 일교차가 큰 지역여건으로 잎이 두껍고 색깔이 진하며 향이 독특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갯잎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데 있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억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효자작목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농가조직으로 추부갯잎 작목회는 18개 작목반으로 600여명의 회원이 구성되어 있다.

수상실적으로는 1995년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수상, 1996년 충남지사가 선정하는 지역특산물 우수농산물로 지정, 1996년 농협중앙회 협동조직 대상 받았으며 1998년 농협중앙회 농

산물 순회수집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만인산농협에서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 깻잎 자동세척기 도입해 보다 신선하고 깨끗한 깻잎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 최초로 농산물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깻잎 생산하고 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행정, 지도, 농협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가공기술 개발, 세계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고품질 추부깻잎을 생산을 다짐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점은 당시 운영위원은 3-4명, 위원장 1명을 대동해서 전국적으로 약 160여군데 지역축제 현장, 행사장 등을 쫓아다니면서 수육, 깻잎김치, 깻잎장아찌 등 음식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니까 잡상인 취급을 받고 문전박대도 수없이 당할 만큼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어려웠으나 정보화마을 홍보에 전념한 결과 이제는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데에 있다.

추부깻잎 정보화 마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 조직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사무국장 1인, 교육국장 1인, 감사 2인, 고문 4인, 위원 15인
- 면장, 군위원, 작목회장, 지역농협조합장
- 실장 1인, 감사 2인, 실장, 행정팀, 상거래팀, 과수팀 등 분과별 26개 마을(추부깻잎작목회, 추부포도작목회, 추부배작목반, 추부느타리작목반 등)

○ 사업비 지원규모 및 사업내용

- 당초 선정시 최초 3억원(국비, 도비, 군비)
- 관리자 급여(국비 50%, 시군도비 40%, 마을자부담 10%)
- 정보화강사비(군지원), 요가강사비(농협지원), 기타 수익은 거의 없음.
- 내용으로는 센터구축비, 100여농가 PC보급,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축제진행, 방송국 홍보, 전국박람회 참가, 정보경진대회 참가, 판매사업(무농약 깻잎, 각종 지역농산물 판매, 깻잎김치 등) 등
- 주요 시설로는 금산 추부 깻잎마을정보센터(만인산농협 영농자재백화점 2층)가 있는데 이곳을 주로 회의실, 컴퓨터 교육장, 정보화 교육 및 문화휴게 장소로 이용

○ 사업내용

- 농촌체험 프로그램 : 토종인삼 캐기 체험, 김장김치 담그기, 포도수확 및 포도주담그기 체험, 포도밟기, 가을나들이 체험
- 주말농장 프로그램 : 숲속의 주말농장(일반텃밭, 금산깨순이와 함께하는 주말농장 : 씨앗 뿌리기, 모종심기, 채소가꾸기, 수확하기), 숲속의 주말농장(저수지옆, 추부곶잎마을 텃밭분양), 느낌이 있는 서대산 꿀배나무 분양(원황, 신고), 느낌이 있는 추부포도나무 분양(캠벨, 자옥)
- 마을축제 : 추부곶잎축제(2년에 1회, 1-2일 개최, 10월경 개최, 작목회에서 주관/곶잎 요리 품평회, 곶잎 묶기, 줄다리기, 투호놀이, 풍물놀이, 노래 등), 추부포도주담그기 체험 축제(8월경 개최, 포도수확, 포도주 담그기, 포도밟기 등 체험축제 개최)

활동 2 : 지역내 자발적으로 체험축제 생성과 지속적 활동

추부포도주담그기 체험축제를 하게 된 계기는 외지인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 보자는 취지로 2005년 “제1회 추부포도주담그기 체험대회”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체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혼자 고민하다가 운영위원과 같이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프로그램으로는 포도따기, 포도주담그기, 포도밟기 등이었는데 이 때 외국산와인에서 한국산 와인으로 만들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 큰 성공요인이 되었다.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하던대로 편하게 하자라는 주변의 반대에 봉착하여 3~6개월간 설득하고 운영위원과 1:1로 일일이 면담하기에 이르렀다. 3월에 발상하여 6월에 축제계획을 수립하기 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약속사항으로 외부인들이 돈쓰고 가게 하는 축제를 만들고 돈을 버는 축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자고 하였다. 차별성으로는 금산군에 지역축제가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홍보와 낭비성 행사에 그쳐서 이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체험행사에 초점을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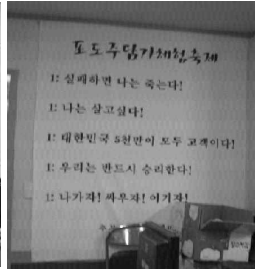
당시 추진 시 경과사항은 우선 포도체험밭을 구매, 운영위원들은 돈이 없기에 본인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5백만원에서 1천만원 구매하였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소해서 축제 3~4일전에 모객현황은 제로인 상황에서 축제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모객은 해야 하므로 방송

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예전에 인연이 되었던 MBC방송국 김종인 국장을 찾아가 설득하여 홍보방송을 내보게 할 수 있었다. 2일전에서 모객이 시작되고 서대산 자락 2,000평에 휴경지인 장소를 임시 임대하여 행사 전날까지 부스모자랄 정도로 모객실적이 달성되었다. 하지만 전날 돌풍으로 애써 지어놓은 행사장이 날아가 버려서 새벽 5시에 운영위원들과 함께 복구에 나서면서 겨우 첫 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7회까지 운영, 무보수 도우미만 200여명 참여(실제로 이들은 각종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처음 1회부터 6회까지 자부담으로 운영, 평균적으로 행사비는 1회당 약 7천만원 가량 소요되는 이것으로 개인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깐 적자가 누적되어 빛이 증가, 2011년 처음으로 도비와 군비를 지원 받아서(3천만원 지원) 하게 된 것이다.

결과로는 금산군에서 현재 인정받는 축제 중 하나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다. 추부포도축제는 현재로 10회째 개최, 마을축제를 면축제로 승화하기 시작(2000년)한 것이다. 개최일수는 예전에 2-3일이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한계상 1-2일 개최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없이 자립적으로 하려다보니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비용상승으로 인해 개최일수 줄어들었는데 이는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1년에는 도비로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지원을 처음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했다. 그 전까지는 체험비로 행사운영을 하였다. 매년 방문객 추이는 특별한 증가추세 없이 보통인 수준인데 약 4,000-5,000명이 찾아오고, 70%가 수도권 소비자이다. 성공요인 중 하나는 옥천과 영동에서 벤치마킹하여서 50box포도를 풀어놓고 밭기 체험행사를 한 것인데 신선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그리고 고객편의를 위해 운동장에 전체 차광막을 설치하여 8월말의 뜨거운 햇빛 혹은 우천시를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의 진행은 마을입도해서 2002년까지는 중간에 포기, 2002년~2004년에는 재도약, 재시작, 2004년~2006년에는 최대절정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직책상 마을발전에 기여도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포도주담기체험축제 자체 구호(슬로건)를 보면, 문구가 상당히 전투적이고 축제에 임하는 각오가 대단함을 느낄 수 있다.



농촌체험장 내부



자체구호/슬로건



축제행사포스터



교육장 내부

정성적인 효과 및 주민반응으로는 우선 포도판매량이 증가하여 1일 포도판매량이 1천 박스 (박스당 5kg) 이상 판매, 총 5톤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직거래 방식은 경매가 이하로 받던 것과 달리 각종 유통 비용절감 되어 수취가 향상되는 효과도 체감하는 중이다.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서 100점 만점 중 70점 정도로 평가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가소득 향상, 지역 및 이미지 홍보, 마인드 변화 등을 가져온 계기가 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정보화마을을 선진사례로 인식해서 배우러 찾아온다. 소비자들에게 포도를 이용한 음식(포도잼), 기타 깻잎과 송편 등 판매 구입을 유도하는데 단, 불만사항으로는 행사 1주일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불만 많다고 한다. 시작하기 전 약속했던 사항 중 하나는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었으니 불만이 있어도 그냥 믿고 따라와 주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은 포도직판, 체험, 일손돕기, 지역홍보 등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편이다.

진행과정(내외부자원 활용, 아쉬운 점, 에피소드 등)

아쉬운 점은 본인 농사는 소홀하게 되고 정작 본인은 무일푼인 것이다. 중앙협회가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단체이다보니 1일 교통비만 받고 활동하고 있다. 붙여진 애칭이 ‘하달필’(하루종일 달달거리며 필요없이 돌아다닌다)을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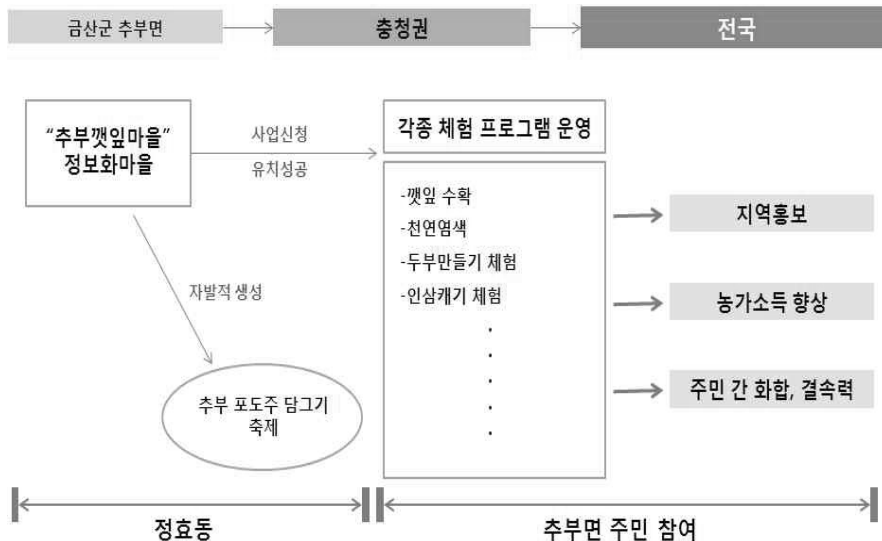
내부적으로는 주체간 역할분담(면사무소, 군청, 농협 등), 외부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교육으로 메우면 되고 자문가를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주체간 역할분담이란 작목반은 생산활동 및 품목출하, 농협은 교육지원, 지자체는 각종 지원, 사업단은 홍보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교육수강 활동과 체험을 통해 습득하고 체화하고 있다.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앞으로 추부면을 위한 사업의 방향은 내방객을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닌 이들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정보화마을사업도 문화의집, 종합복지타운, 하천정비사업 등 수익사업은 아니고 전부 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 계획은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계속 적립하여 내년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홍보는 대전MBC협찬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민사항으로는 자신의 활동을 물려줄 후계인력 전무하다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역할과 조건은 마을의 심부름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희생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본인의 꿈꾸는 삶의 가치, 인생상은 마을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자는 것이고 사리사욕을 절제하는 취지로 시작한 것인 만큼 초심을 잊지 말고 잃지 말자라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됨을 강력하게 믿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진정한 농사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는 일꾼으로 만족하고 싶다. 언젠가는 반드시 농사꾼으로 복귀하자고 오늘도 맘먹고 있다.

요약 및 시사점



〈그림 4-12〉 금산군 추부면 정효동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3) 농촌리더 활동의 지역내 정성적·정량적 파급효과

가. 바리실녹색농촌체험마을 위원장 박인호와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상귀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성적 파급효과

박인호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바리실사과를 마을에 식재하게 하고 그 브랜드를 널리 알린 인물이다. 현재 금산군 군정평가단 단장직책을 맡고 있다. 개인의 욕심은 전혀 없고 사과가치를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금산군 내에서 인삼 뿐만 아니라 사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알리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지역주민의 반응으로는 겉으로 싫은 내색하지 않지만 그냥 만족해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 현재 신안권역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주변사람 모두에게 리더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그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재래종 사과를 마을에 처음 보급, 지금은 재래종이 도태하여 신품종 사과를 도입(홍로)
- ② 1년에 2회 축제 개최(봄엔 사과꽃 축제, 가을엔 사과맛보기 축제), 각 축제 10회째 개최, 마을자생축제로서 의미가 더욱 깊고 연간 2,000여명이 당일 방문할 정도로 큰 축제
- ③ 저온창고 20동 이상, 전동차 20여대 이상, 가공사업 시설 등 금산군 내에서도 가장 자본 집약적인 시설이 집중된 곳, 즉 각종 사업유치를 열심히 한 성과물이기도 함. 예를 들면, 골프장차를 개조하여 만든 전동차는 농림부에 공식건의하여 유치하기도 하였다. 마을에 들여와서 농업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 만족도 매우 높음.
- ④ 직거래 및 직판 등으로 사과 전량 판매
- ⑤ 귀농인의 집 운영 : 귀농인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기 전까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쉼터 역할, 2009년에 응모신청하여 지원받기 시작, 금산군 전체 군민대상감이고 인구유인 효과 분명히 있음. 귀농인 중에는 빈집을 수리하는 인원도 34명 있음

주변회원농가가 박인호 회장네 농사일(적과, 수확시)을 무상으로 그냥 도와줄 만큼 주민들에게 신뢰가 돈독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1주일에 3-4회 가량 행정기관을 방문하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려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리더로서 추천한 사유는 철저히 농업과 농촌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 등 기타목적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리더의 유형은 예전부터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공감대 형성도 높고 주변 지원자들이 많으며 기획력·정보력·추진력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으로 유상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유턴한 40대 중반의 귀농인으로 신안 녹색농촌체험마을 위원장, 2개월에 1회씩 워크숍 개최(워크숍 교육대상 : 금산군 13명, 추진위원장 3~40여명), 신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있다. 이 사람은 전국의 농어촌 개발관련 교육은 거의 모두 쫓아다니며 매우 부지런히 수강, 교육수강횟수만으로도 전국 최대일 것이다. 잦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외부인들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다. 주민들은 처음에 신뢰하지 않았으나 교육을 받고 난 후 그의 의지를 보고 감동하고 있고 마을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체험교육장 운영(농림부 400만원 지원 받는 사업)하고 있다.

리더로서 추천한 사유는 농촌체험마을 관련, 체험마을 우수사례, 하양꽃빛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2007년 도농교류마을 지정), 마을 자체적으로 조팝꽃축제를 개최 (농산물 품평회, 농사 체험행사)하는 등 박인호 단장과 함께 군연합회를 주도적으로 만든 인물이다. 주말농장도 직접 경영하고 귀농인에게도 영농기술을 가르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도 교육 중에 있다.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으로는 대청호보존운동본부, 대전 녹색연합 및 환경연합, 대전 송촌동 산학자전거동호회, 대전 성신양회 기업체 등이 있다.

이 둘의 공통점(박인호, 유상귀)은 농업기술센터 자치대학 강사로 활동 중이고 직접 강의, 직접 PPT를 제작하여 발표한다는 것이다. 농민 중에는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들은 사업유치에 필요한 조서 및 자료 직접 작성하고 브리핑 가능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주민들 반응도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사업유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난 후 마을공동수익사업으로 골고루 배분하여 소외감을 없게 하고 농가들의 부대수익도 꽤 많아지게 했기 때문이다.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한 근거로서는 일하는 스타일이 먼저 사업정보 및 정책지원 사항을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의를 구하는 것,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챙겨가면서 추진하는 것,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사업지원을 받으면 남 먼저 챙겨주고 자신의 몫은 맨 나중에 챙긴다는 것, 솔선수범하고 주민먼저 배려해 주는 성품을 가진 것, 오히려 본인은 잘 살지 못할 만큼 희생정신이 강하고 타인의 귀감이 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지역내 발전효과는 그전까지 이 마을의 주 작목은 인삼이었으나 바리실 사과 브랜드로 인해 80% 이상 농민이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높아짐)하고 있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정량적 파급효과

다음의 표와 같이 충남 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금산군의 면적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사과면적 및 생산량은 2005년 대비 2009년은 23~27%감소, 금산군의 사과 면적은 2005년 대비 7% 증가, 생산량은 24% 증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평균 단수(kg/10a)도 충남이 1,989kg, 금산군이 2,100kg으로 생산성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충남 및 금산군의 사과생산 현황

(단위: ha, M/T)

구분		면적	생산량		구분		면적	생산량	
		ha	M/T	kg/10a			ha	M/T	kg/10a
충남	2005	2,053.0	38,989.0	1,899.0	금산	2005	63.5	1,150.0	1,811.0
	2006	2,320.0	41,567.6	1,791.7		2006	63.5	1,800.0	2,834.6
	2007	2,262.0	47,374.0	2,094.0		2007	63.0	1,200.0	1,830.0
	2008	2,322.0	51,156.0	2,203.0		2008	68.0	1,496.0	2,200.0
	2009	1,495.0	29,731.0	1,989.0		2009	68.0	1,428.0	2,100.0

자료 : 충남 통계연보 및 금산군 통계연보, 각 년도.

나. 홍도인삼마을 위원장 양현철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성적 파급효과

양현철 위원장은 4H경영인, 지도자회장, 충남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회장 등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농업에 열정을 가져왔고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로는 4회째 홍도화축제 개최, 농림부 선정 지정축제(18개 중 1개로 선정), 충남선정의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심대평 지사 시절)로 선정되어 매년 5천만원 지원, 경관사업(꽃심기, 진입로 확포장), 복지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이 있다. 양현철 씨의 활동권역은 충청남도 전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달라진 모습 확인해 집에 따라 마을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홍도화 축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홍도화의 원산지는 중국 남경지역으로 곽유지라는 사람이 고향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5천만원)하면서 식재하게 되었다. 계기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도로포장을 먼저 하게 됨으로써 없던 길이 확장되고 무주 부남면까지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주로 가기 위해 홍도마을과 원동마을까지 약 4km에서 20km까지 확장하면서 도로에 꽃복숭아 나무를 심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몇 그루 심어져 있었으나 마을 이름 상 홍도화를 본격적으로 심게 되었다. 이후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지금은 홍도화 동산도 2개나 있다. 참고로 홍도화 동산은 3년 전부터 식목행사 시작으로 군에서 약 4억원을 지원받아 만들었다.

농식품부 지정축제로서 현재 4회째 개최하였고 연간 5천만원 지원으로 총 3년간,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 없어지는 축제이다. 프로그램은 체험중심이고 약 30여가지 체험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기간은 당초 3일에서 현재 1-2일로 축소하여 열리고 있고 참여인원은 면민 전체가 참여한다.

축제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 환경정비 효과가 탁월하고 타마을과 비교해 봤을 때 주민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축제의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에 마을홍보가 많이 된 편이어서 주기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내방객 방문 중에 있다. 홍도화 나무는 신정리만 식재해 있어서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고 타시군에서도 모범사례로 찾아오곤 한다. 이로 인해 인삼 뿐만 아니라 타농산물도 팔 수 있게 되어서 농가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평소에 농장가서 물건을 구입, 축제 때에는 행사장에서 구입하는 등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직접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금산군 읍에서 인삼을 구경하고 난 다음 남일면으로 와서 홍도마을을 구경하게 되어 좋은 편이고 거의 체류형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본다. 장단점의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실제로 농가소득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개최해 온 이유는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앞으로 본 축제는 1일만 개최할 것이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내 특산물 판매, 이미지 홍보 등에 주력할 것이다.

정량적 파급효과

남일면 홍도화축제 실적추이를 다음의 표와 같이 살펴보면, 2008년에는 1일 기준(1개월 30일) 66명이었던 방문객이 2009년 1,133명, 2010년 1일 기준 1,3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문객의 증가 추이는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13〉 금산군 홍도화 축제 실적추이

(단위: 명, 천원)

연도	축제	사업비				축제 기간	실적			비고
		계	국	도	군		방문객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장터	
2008	제1회	-	-	-	-	4.26	2,000	7	8	축제기간 방문객 산정 (약 한달간)
2009	제2회	40	50	6	14	4.18-4.19	34,000	14	26	개화기간 방문객 산정 (약 한달간)
2010	제3회	50	25	7.5	17.5	4.23-4.25	40,000	18	27	개화기간 방문객 산정 (약 한달간)
2011	제4회	50	25	3.75	21.25	4.23-4.24	14,010	21	16	축제기간 방문객 산정 (이틀간)

주 : 2011년 제4회 축제는 2일간 축제기간에만 방문객을 산정하여 다른 연도 실적과 차이나게 된 것임.

자료 : 금산군 내부자료, 2011.

다. 추부곶잎정보화마을 위원장 정효동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성적 파급효과

정효동 위원장은 현재 2009년 정보화마을 전국추진위원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만큼 추부곶잎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2000년에 추부 포도축제 10회째 개최하고 있고 약 2박 3일 행사규모를 진행하였다. 마을축제를 면축제로 승화하면서 지금은 1박 2일 행사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정부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으로 하려다 보니 한계 봉착하고 있고 각종 비용상승으로 인해 개최일수 줄어들게 된 것이다. 농촌의 인력고령화로 인해 축제개최 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현실이다. 매년 방문객도 약 1,000명씩 증가하고 있고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직접 포도수확 하기, 포도주 담그기, 포도밟기 등이 있다. 이를 계기로 추부곶잎, 추부포도 등의 효과도 있는 듯해서 주민반응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은 포도직판, 체험, 일손돕기, 지역홍보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회원들이 껏잎, 껏잎장아찌, 포도즙, 포도주 등을 인터넷에 판매하고 소득원 발굴과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원현황으로는 보조 300만원, 나머지 자부담하는 형편이고 방문객 추이는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화마을과 포도축제 계기를 살펴보면 정보화마을 계기로 컴퓨터 무료강좌, 정보교육 수강할 수 있어서 주민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곶잎농사로 인한 주민반응 젊은 농이 많고 귀농·귀촌인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하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다. 타지역이 인구감소폭이 큰 데 반해 추부면은 일부 대전시 가오동으로 인구유출이 있긴 하지만 인구현상 유지(약 6,800명)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에 거점면 소재지 육성사업으로 추부면이 확정되어서 약 70억원 규모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내용으로는 주차장, 공연장 등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마을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발전원동력으로는 농협은 판로개척, 농가는 물량출하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해서 원활하게 농산물 유통원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역할분담과 관련해서는 행정은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인삼과 껏잎 농가교육 집중지원, 마을단위는 생산분야 확대, 리더급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정량적 파급효과

금산군 전체 업체류 생산량 중 갯잎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75%에서 2009년 87%로 상승했다.

〈표 4-14〉 금산군 업체류와 갯잎 생산량

(단위 : , M/T, %)

구분	업체류		갯잎		비중 (생산량 기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254.2	11,224.40	194	8,380.00	74.7%
2006	202	8,684.00	200	8,640.00	77.0%
2007	207	8,716.00	205	8,672.00	77.3%
2008	281.1	14,340.00	227	9,890.00	88.1%
2009	284	14,236.00	229	9,778.00	87.1%

자료 : 금산군 2010 통계연보

다음의 표와 같이 추부면 갯잎은 76ha, 780여 농가, 생산량은 2,086M/T, 총 판매금액은 136억원 규모를 보인다. 포도는 22ha, 참여농가는 76농가, 생산량은 276M/T, 총 판매금액은 12억원 규모이다. 농가당 판매금액 규모를 산출해 보면, 갯잎농가는 약 17.6백만원, 포도농가는 16.3백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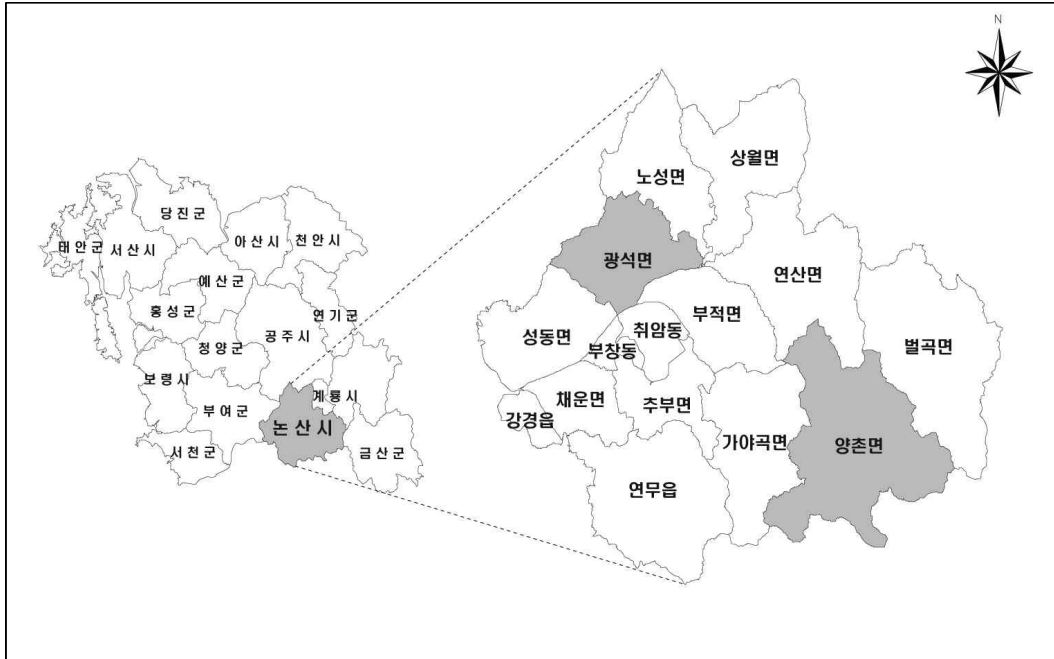
〈표 4-15〉 금산군 추부면의 2010년도 품목별 매출현황

구분	면적 (ha)	농가수	생산량 (M/T)	판매금액 (백만원)	시장가격(원) 10.12.31.현재				
					일반재배	친환경인증			GAP인증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갯잎 (2)	76	780	2,086	13,699	25,000	26,000	28,000	32,000	25,000
포도 (5kg)	22	76	276	1,236	출하완료				
기타				362					
합계				15,297					

자료: 추부면사무소 내부 자료

4. 논산시

1) 논산시 개요



〈그림 4-13〉 논산시 행정구역도

논산시는 충청남도 중남부에 있는 시이다. 시의 동부는 계룡시와 대전광역시 및 금산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는 금강 본류와 그 지류인 석성천을 사이에 두고 부여군과 대하고 있다. 남부는 전라북도 완주군과 익산시와 접하고 있으며, 북부는 공주시와 경계를 이룬다. 주요 교통로는 논산-천안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호남선과 호남고속도로가 지난다.

2009년 현재 논산시의 세대수는 52,444세대, 인구는 129,597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약 2.47명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세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 인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 이 기간 동안 4,633세대가 늘고, 인구수는 오히려 13,231명이 감소하였다. 인구구조는 2009년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18,366명(14.43%),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청장년층 84,402명(66.41%), 65세 이상의 노년층 24,359명(19.17%)으로 노년층의 비중이 유소년층의 비

중보다 더 높다. 성별 비율은 노년층을 제외하곤,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각각 105.01, 115.13으로 남초현상을 보인다.

〈표 4-16〉 논산시 읍·면별 인구추이

(단위: 명, %)

	2000	2005		2009		
				남	여	구성비(%)
논산시	142,828	135,210	129,597	65,073	64,524	100
강경읍	14,074	12,910	11,576	5,700	5,876	8.93
연무읍	21,319	18,552	16,923	8,593	8,330	13.06
성동면	7,265	6,135	5,592	2,876	2,716	4.31
광석면	6,783	5,869	5,433	2,801	2,632	4.19
노성면	5,054	4,408	4,038	2,032	2,006	3.12
상월면	4,591	4,236	4,184	2,110	2,074	3.23
부적면	5,147	4,679	4,473	2,258	2,215	3.45
연산면	8,615	7,673	7,308	3,822	3,486	5.64
벌곡면	3,140	3,031	2,891	1,481	1,410	2.23
양촌면	7,689	6,753	6,490	3,213	3,277	5.01
가야곡면	5,489	4,807	4,406	2,245	2,161	3.40
은진면	5,568	6,018	5,000	2,571	2,429	3.86
채운면	3,958	3,480	3,204	1,615	1,589	2.47
취암동	23,264	28,066	29,484	14,632	14,852	22.75
부창동	20,872	18,593	18,595	9,124	9,471	14.35

자료 : 논산시, 논산통계연보, 각 년도.

논산시는 지형적으로 북동부는 험준한 산악지대, 남서부는 논산천과 금강유역의 논산평야 지대로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색을 지닌다. 산악지대인 북동부는 계룡산(840m), 대둔산(878m)과 접하고 있으며, 이 대둔산 자락의 주봉인 바랑산에 논산시 정보화마을인 햇빛촌 바랑산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햇빛촌바랑산마을은 바랑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 별이 좋아 붙여진 이름으로 바랑산을 중심으로 좌측은 월성봉, 우측은 장삼봉이 자리잡고 있는 금계포란형의 안락한 마을이다. 매년 가을경이면, 양촌의 꽃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양촌곶감축제가 개최된다. 양촌 곶감은 400여 농가가 대둔산 자락에 심어 놓은 14만 그루의 감나무에서 연간 52톤 정도 생산되며, 약 6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양촌면은 대둔산과 접해 있어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많아 예부터 쫄득하고, 높은 당도의 곶감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논산시의 대표 특화작물로는 딸기를 꼽을 수 있는데, 2009년 현재 849ha가 재배되고 있어,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13%, 충남 면적의 5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주산지를 이루고 있다. 논산딸기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일조량, 청정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매향, 설향 등 우수품종을 현대화된 시설로 생산하여 맛과 향이 좋은 딸기로 유명하다. 논산시에 딸기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로 성동면 원봉리, 정지리 등 포도 과수원에서 간작으로 노지 재배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7년 채운면 용화리 박상규씨에 의해서이며, 1990년도 914ha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또는 증가되고 있다. 논산지역에는 약 180여개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단위 영농조합에서 유통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4월경에는 벚꽃 개화시기와 더불어 논산 딸기축제가 개최되며, 딸기를 테마로 그린 투어리즘이 활발하다.

2) 농촌리더 활동내용

가. 햇빛촌바랑산마을 이동신 추진위원장

리더	총괄개요
햇빛촌바랑산마을	◆ 분야 : 마을개발, 영농조합법인

양촌면과 바랑산마을의 특징

양촌면 지역 특성 및 하위 행정구역은 양촌이라는 명칭은 1914년 양량소면(陽良所面)과 모촌면(茅村面)을 합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한 글자씩 조합한 것이다. 2011년 현재 면적은 77.14km², 세대는 2,761가구, 인구는 6,656명으로 법정리 17개가 있고, 행정리는 42개, 반은 153개

가 있다. 법정리에는 거사리, 남산리, 도평리, 명암리, 모촌리, 반곡리, 반암리, 산직리, 신기리, 석서리, 신흥리, 양촌리, 오산리, 인천리, 임화리, 중산리, 채광리가 있다.

양촌면의 총 세대수는 2,655세대, 인구수는 6,490명으로 논산시 전체 대비 약 4.5%를 차지한다.

〈표 4-17〉 논산시 양촌면 인구현황(2009)

(단위: 세대,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논산시	47,811	142,828		
양촌면	2,655	6,490	3,213	3,277

자료 : 논산시, 논산통계연보, 2010.

바랑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 별이 좋아 햇빛촌바랑산마을이라 불리고 있다. 오산리 대둔산 자락의 주봉인 바랑산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월성봉, 우측은 장삼봉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모습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는 금계포란 형의 어머니 품속 같은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특산물은 꽃감, 산채나물, 된장 등이 있으며 봄에는 취나물, 고사리, 더덕 등의 산채나물 채취 및 바랑산 기슭의 봄꽃맞이 여행, 여름에는 오산리 계곡에서 피서객들과 맨손물고기잡기 체험, 가을에는 양촌꽃감축제, 겨울에는 등산코스에서의 겨울산행 및 눈썰매타기 등을 할 수 있다.

개인사항

- 이름 : 이동신(위원장), 전영실(사무장)
- 나이 : 64세
- 주소 :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134번지
- 마을명 : 햇빛촌바랑산마을
- 홈페이지 주소 : <http://barang.invil.org/>



활동 1 : 정보화마을 추진

마을의 특성은 평균연령 72세로서 고령화가 심각하다. 머위, 상추 등이 연중 출하되어서 매우 바쁜 마을이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사업실적으로는 첫째, 살기좋은마을 선정(행안부, 30억, 3년, 2010년)되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야 본 건물완공되었다. 둘째, 산촌개발사업(산림청, 14억)에 선정되어서 꽃감덕장, 펜션 등 수익사업 운영하고 있다.

사업계기는 기존 사업을 통해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색다른 상품 및 홍보활동이 중요해서 정보화사업 유치하게 되었다. 기존 양촌 꽃감마을 사업 포함하면 1개면에 2개 사업유치 결과인데 이로 인해 유관기관에서 반대가 심했다. 퇴직공무원, 이장, 지금 현 위원장, 대표자 등 마을 지도자급들이 사업정보를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설득하였다. 처음엔 주민반응들이 미지근했는데 서서히 주민들이 따라오게 되었다.

조직구성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정보화마을사업단으로 이뤄져 있다. 전 추진위원장은 현재 70세로 대전이 고향인데 2005년 교장으로 퇴직하여 이 지역으로 귀농한 사례, 바랑산 등산객으로 왔다가 지역의 자연에 반하여 이 지역으로 귀농을 결심하였고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니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추진위원장까지 맡게 되었다. 현 추진위원장은 현재 64세로 사업하다가 귀농한 사례이다. 사무장은 올해 43세로 귀농한 남편을 따라 본 지역으로 오게 되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일꾼이다.

각자의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정보화마을은 홍보 및 판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체험진행, 식당운영을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가공품(꽃감 및 된장, 감말랭이 등) 제조, 생산물 출하한다. 사무장은 사람동원 능력이 탁월, 체험객 접수받고 농가들에게 할당배분, 홍보 활동 등을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종 지원,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사업현황으로는 참여범위가 42개 자연부락(법정리 42개)⁸⁾으로 참여마을 오산1,2리 2개 부락(136개 가구, 3,200여명)이다. 이 중 33가구는 컴퓨터 보급혜택을 받고 정보화교육도 이수도 하였다. 현재 연간 5,500명 방문객으로 추산, 목표는 5년내 10만명(노력은 30배, 결산은 10배)이다. 직거래 비중이 오프라인(90%), 온라인(10%)으로 고정거래 고객은 약 100여명이고 점차 증가,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자매결연 실적은 시도했었으나 쉽지 않아

8) 이메꽃감마을은 4개 자연부락으로 이뤄져 있다.

서 현재는 없다. 아직까지는 비공식적인 일손돕기 지원하는 정도에서 해결하고 있다. 다른 2개 마을 중 1개 마을은 체신청과 결연, 1개 마을은 맺었지만 실적 없다.



정보화마을 표지



정보화센터 건물전경



가공시설 건물

법인 설립계기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정보화마을 신청시부터 동시에 영농조합법인 발족하였는데 법인을 발족한 이유는 첫째, 정보화마을을 외부에 소개하고 체험객유도, 농특산물 구매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문화수준과 연계되게 하는 방향필요, 둘째, 참여농가들의 관심유도를 위해 1인당 300만원 이하로 출자를 제한하여서 약 100가구가 참여하고 총4,500만원 출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작,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익발생해서 1회 배당실시를 하게 되었다.

수익구조는 운영비 명목으로 1가구당 20만원씩 각출하고 있다. 비용으로는 사무장인건비(국가 부담 50%), 직원출장비, 각종 제세공과금(전기료는 한달에 70만원 가량), 식당운영비, 수입금은 체험비, 판매수수료를 통해서 발생하고 수익금 배분은 출자금에 비례해 배당받고, 1년에 1회 지급하고 있다.

햇빛촌바랑산마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일원)

마을소재 :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농업체험프로그램을 차별화·상품화하여 운영수익을 추구하는 마을로써 자연과 사람이 어울린 재창조 행복마을

- 가구수 : 131호
- 방문객수 : (연간) 700명
- 연간 매출액 : (연간) 80,000천원

- 핵심사업 개요 :
 - 2007~2009년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행안부),
 - 2007~2008년 산촌생태마을조성(산림청), 2008
 - 년 정보화마을(행안부)



- 연혁
 - 2006. 12월 : 곳감특구로 지정 및 도지사품질추천 으뜸」인증
 - 2007. 2월 : 행안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범지역 선정
 - 2008. 4월 : 바랑산 영농조합법인 설립
 - 2011. 현재 : 양촌곳감 홍보강화 및 전자거래 등 전국 판매망 확충
- 핵심동력 사업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사업)
 - 봄 : 산채나물, 전통장 담그기
 - 여름 : 체험관광(반딧불이 체험, 계곡물놀이, 산천어잡기 체험)
 - 가을 : 감따기, 곳감생산, 버섯 수확 체험, 산채나물 채취 등 체험
 - 겨울 : 재래메주 만들기, 연날리기, 썰매타기 체험

활동 2 :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노력

2011년 8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자체수익을 발생 시켜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지역내 파급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이다. 지금 영농조합법인 채용인원이 총 6명인데 인건비를 국가에서 절반 부담해 주니 그 인원을 활용해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입장에서는 그 절감된 인건비를 활용해서 자금적립이 가능하고 순환적인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하다. 계획상 콩 수매를 위해 직접 콩밭을 계약하고 농사를 지어서 콩으로 만든 각종 상품(두부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수익발생이 독자적이면서 자생적 구조로 발생해야 진정한 소득창출이 되고 이에 따라 인력풀이 생기게 되는데 현실적으

로 매우 힘든 구조를 지닌다. 그 이유는 농산물 판매의 특성상 원래 사람이 있어야 일거리가 생기고 가공품까지 해야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독자적이면 자생적 구조 발생을 위해서 체험객 방문이 꾸준히 증가해야 하는데 이게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



말린꽃감 건조



된장담그기

하지만 마을의 변화가 감지된다.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은 각각 다르겠지만 추진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농가의 개개인 소득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 하나 출자금 배당을 환원함으로써 수익 발생한 정도라서 나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정보화마을로 인하여 현대화된 건물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도 가져온 것도 긍정적이면서 보람있는 측면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 추진위원장이면서 현재 부위원장 사례와 같이 바랑산 등산객 방문이 귀농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형자산이 증가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토지도 이미 타지인이 이미 많이 확보한 상태로 지가 상승 중이다. 자연적 조건(바랑산) 및 각종 인프라 조건(양촌 톨게이트가 2014년 완공예정, 국방대학 완공)이 점차 나아짐으로써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본다. 단점으로는 원주민보다 유입인구가 많아서 지역쇠퇴현상이 심화되고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진행과정(외부자원 활용, 어려웠던 점, 에피소드 등)

에피소드로는 마을에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 관정을 뚫고 마을탱크에 비를 저장하여 샘과 우물 만들어서 사용해 왔는데 신규유입인구가 들어오면서 80가구 기준으로 각 집마다 관 연결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싫어했으나 신규유입인구로 인해 물을 달라고 주장하니깐 해결이 된 것을 보면 인구유입이 지역을 살린다고 본다.

하지만, 설득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길고 긴 싸움과 갈등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서야 해결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지기 마련임을 깨닫는다. 지금은 자립기금 조성까지 하는 등 모든 갈등이 해결된 상태이다.

안타까운 점은 옛모습을 간직함이 중요한데 지금은 전통적인 모습은 전혀 없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초가지붕은 슬레이트로, 슬레이트는 양철 기와집으로, 다시 이것을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변하고 있고 펜션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아쉬운 점이다.

주민 100%가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망상은 깨야 한다. 보통 5인 참여가 대부분이고 그게 어찌보면 지금의 농업농촌 현실상 정답일 것이다. 예전에는 소작농이었으나 지금은 1인 기업, 1사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농사일 보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 있으려면 최소한 조직 인원이 10%만 있어도 움직이게 됨을 느낄 수 있었다.

고민사항으로는 법인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후계인력인 리더 및 대표를 찾고 있지만 없는 현실이다. 지역특징상 사람들이 농사일에 너무 바빠서 다른 일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 대표가 사업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인력풀이 부족해서 여건이 안 된다. 참여농가가 대부분 고령화되어서 활동연령층이 없는 게 문제이다. 사업구상은 쉬우나 실제로 운영과 판매가 어려운 점도 있다.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가장 힘들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최소운영비라도 채워넣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구조 창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을들이 자신들의 그릇에 맞는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앞으로 정보화마을은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수익이 발생하여서 배당금까지 환원한 것을 보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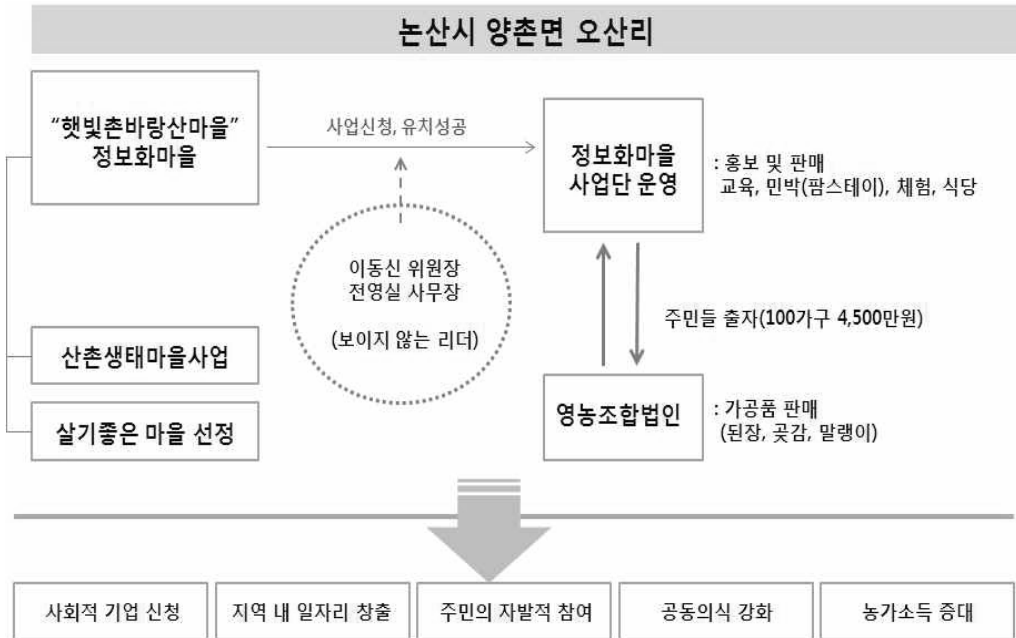
리더의 조건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베풀고 먼저 낮추면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 전제조건으로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업농은 리더로서 역할하기 힘들고 반건달 농사꾼이 제격인 셈이다. 생업하기에 바쁜 사람은 될 수가 없는 농촌의 현실이다. 결국 시간과 비용에 대한 헌신과 봉사정신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본

다. 마을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고 의견이 맞다면 그냥 추진하는 추진력도 중요하다.

현 위원장과 전 위원장 보다 사무장이 지금 가장 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야 할 것이라서 더욱 애정이 가고 자연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 정보화마을을 통해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지금의 농촌은 예전과 같지 않고 국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지수, 정보공유수준, 건강한 삶의 영유 등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의식수준, 특히 문화의식을 깨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본인들도 건강에 대한 염원, 안정을 되찾고 있고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다. 노동력이 있으면 소득은 좋아지고 노동력이 없으면 소득은 나빠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소득수준은 이미 높은 상태이다. 희망사항으로는 골고루 잘사는 농촌지역 만들기, 누구나 오고 싶은 농촌 건설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환경도 변화하고 등산로 정비, 그림, 우체통 등 같이 해서 외지인도 만족하게 하고 주민도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57억원(도비), 등산로정비사업 등 계속 해야 한다.

10년 뒤에는 이 마을에 원주민이 없을 것이다. 자식들은 모두 타향살이, 농사승계는 대부분 하지 않을 것이며 더더욱 이 지역은 전형적인 산촌마을로서 들어와 살기를 꺼려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농촌지역도 10년 뒤 먹고살만한 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지역내에서는 농촌관광이 살길이고 편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창출되어야 한다. 장사, 판매, 체험사업, 2차 가공 등 활동 등을 통해 농외소득을 올려야 한다. 향후 트렌드는 농업농촌의 현실(고령화, 감소화)로 인해 농촌관광이 유일한 대안이고 지역내에서 꾸준히 지속가능한 사업아이템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요약 및 시사점



〈그림 4-14〉 논산시 양촌면 햇빛촌바랑산 정보화마을 사람들의 활동실태 구조

나. 논산 딸기마을 남기순 대표

리더	총괄개요
딸기마을 남기순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마을개발, 영농조합법인, 귀농인, 농촌관광 ◆ 리더추천사유 : 딸기를 이용한 농촌체험관광 및 딸기체험프로그램 도입의 시초, 지역발전에 이바지

광석면의 특징

광석면 지역 특성으로는 조선시대는 노성군 광석면이었으나, 1914년에 득윤면 상동, 윤리, 중리, 지도, 사동, 신당, 소당, 대당 등 8개리와 장구면 덕포, 평전, 서변, 오강, 울리, 산적의 6개리와 천동면 대척, 대중, 소중 왕전 등 5개리와 두사면 두리, 항월, 합정, 오류동, 서변, 대동 등 6개리와 읍내면 송아리, 원북면 음상, 갈산, 2개리와 부인처면 창리, 화지산면 반월리 등을 병합하여 광석면이라 하고 논산군에 편입시킴. 광석면은 이 지역이 넓은 돌이 있어 광석이라 한다.

총 면적은 34.02km², 총 세대수는 2,277세대, 인구수는 5,433명으로 논산시 전체 대비 약 1.7%를 차지한다. 법정리 13개가 있고, 행정리는 33개, 반은 132개가 있다. 법정리에는 갈산리, 광리, 득윤리, 사월리, 산동리, 신당리, 오강리, 왕전리, 울리, 이사리, 중리, 천동리, 항월 리가 있다.

〈표 4-18〉 논산시 광석면 인구현황(2009)

(단위: 세대,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논산시	47,811	129,597	65,073	64,524
광석면	2,277	5,433	2,801	2,632

자료: 논산시, 논산통계연보, 2010.

자연부락 명으로 안산마을 또는 안살미로 그리고 새물이라 부르던 마을은 마을중심에 기러기모양의 개울이 있었으며 그 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 되어 있고, 상갈지라 부르던 안살미

첫 방죽에는 겨울만 되면 하늘을 까맣게 뒤덮을 만큼의 많은 기러기 떼가 몰려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기러기를 보려면 광석들 안살미로 가라 하였고, 마을 이름은 기러기 안(雁)자를 써서 안살미로 불리우다 안살미 또는 안산말을이라고도 부른다.

지역특징으로는 사월1,2,3리, 율리 1,2리가 있고 부농이 많고 젊은 층도 많음. 약 3-40명 가량 되고 귀농인도 많다. 3-40대가 많고 50대, 60대 순으로 있다. 분위기는 치열하고 배려심이 부족하다. 농촌이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노인이 많은 마을은 소득사업에 관심이 적지만 공동체 의식이 충분히 존재한다. 반면, 젊은 층이 많은 마을은 소득사업에 혈안이 되어있고 추진력과 공동체의식 부족한 편이다.

개인사항

- 이름 : 남기순
- 나이 : 51세
- 고향 : 논산시 안성면
- 귀농 : 1997년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귀농
- 거주지 주소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3리
- 농장명 : 딸기마을
- 별칭 : 딸기아줌마
- 홈페이지 : <http://strawberry.utovil.com>



직책으로는 딸기마을영농조합법인 및 마을대표, 광석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농사규모로는 현재 비닐하우스 23개동(총 6,000평)에서 최근 14개동(3,500평)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이유는 체험마을을 거의 일년 내내 운영하면서 많은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면적을 감소시켜야 했다. 전작으로는 딸기, 후작으로는 고구마, 고추(고추장 담그기 위험)를 심고 있다.

주 수익원은 체험비로 1인당 10,000원을 받고 있고 개인적인 물량 판매는 거의 없고 체험중심 출하를 이루고 있다. 수익의 70-80%가 체험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0-30%가 도매 시장 판매분이다.

체험마을 운영현황은 딸기 수확체험 시즌은 11월말에서 5월말로 약 10,000여명, 고구마 수확체험시즌은 10월초에서 11월초사이로 약 1,000여명 방문하는 등 여름만 빼고 방문객을 받는 편이다. 겨울철 딸기수확(시설재배)은 12월, 봄철 딸기수확은 3,4월에 방문객 절정을 이룬다. 이를 통한 지역내 파급효과는 다른 체험농장과 비교해 보면, 7,000명~8,000명까지 방문객 유입 되고 있는데 점차 사업방식을 서로 벤치마킹하다 보니 생긴 결과라 보고 방문객 수가 상향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상품개발현황으로는 딸기잼, 딸기고추장, 딸기떡볶이떡, 딸기 이용한 각종 소스를 개발 중에 있다.



〈그림 4-15〉 논산시 딸기마을 체험학습프로그램 종류

자료 : 딸기마을 홈페이지(<http://strawberry.utovil.com>)

활동 1 : 귀농귀촌 생활의 역사I에서 체험마을 운영 계기

귀촌생활의 역사는 지금으로 약 10여년 전부터 시작된다. 고향에 와서 귀금속업을 하려고 내려왔으나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수요가 없어서 부적합한 지역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하던 하우스 이어받아서 열무농사로 시작, 그해 시세가 안 좋아서 모두 망했다. 하지만 그 열무농사로 인해 농사를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기술들을 배우러 다니면서 2년간 딸기농사하면서 농업을 점점 익혔다. 귀농해서 처음 농촌지도소 소장

이 해 준 말 - “(1) 변칙 쓰지 말기, (2) 원칙 지키기, (3) 욕심 부리지 말기”- 을 계속 상기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모토로 삼고 있다.

첫 해에는 농사가 잘 된 듯 했으나 도매시장 출하해서 타농가와 시세차이가 난 결과를 보고 기존 농민 노력의 산물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농사는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판매하는 게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당시 ‘촌놈딸기’작목반에 가입하여 선별을 철저히 하고 각자 기술향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단체생활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다음해에는 작목반 총무를 맡았고 남편은 회장까지 역임하였다. 지금은 우리쌀영농조합법인 조합장이기도 하다. 2002년 본인농사만 ‘친환경농산물’농사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남들과 차별성,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친환경농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첫해의 성적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초라했다. 친환경농산물을 과연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기에 이르렀고 친환경농산물은 책임감과 신뢰감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시기이다.

그 당시 그린투어리즘 개념이 시작되었는데 본인의 고민사항과 해결방안이 잘 맞아떨어졌다. 부부가 동의해서 그린투어리즘을 시작한 것이 체험사업 시작 계기가 되었다. 2004년 농업기술원에서 여행상품(농촌관광) 제안대회에 참가해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친환경농사, 능동적인 안내, 가공상품화 등을 담은 것이었다. 이런 아이템들이 여행사로 제공되었는데 이 중 테마캠프(여행사명) 반응이 좋아서 1번 호응을 얻은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여행사가 계속 소문을 내서 입소문이 나고 첫해에는 3,000~4,000명 방문함. 주민들은 처음에는 신기해서 좋아했다.



딸기하우스 내부



딸기체험장



농장전경

〈그림 4-16〉 논산시 딸기마을 체험장 전경

활동 2 : 귀농귀촌 생활의 역사II에서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2004년 외부교육에 참가해서 “대규모단위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지원사업정보를 알게 되어서 충격을 받았고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약 7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다들 주변에서도 모두 생소해 하고 시청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다시 돌려보낼 정도였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시장과 만나서 담판을 짓기 위해 동네스님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졸라서 겨우 만나게 되었다. 시장은 처음에는 ‘나중에 신청’함을 권유받았지만 너무 부탁하는 바람에 같이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계획서를 그 당시 농어촌공사와 공동작업하면서 일했지만 다들 몰랐던 것 같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의회의원도 끼어들면서 성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지원하였고 결국 2개 사업 모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 대신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사업을 시작하였다. 시작시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고 준비를 다 했지만 시청담당자 업무변경으로 인해 마을사업으로 변경해 버리기도 하였다. 즉, 운영주체자가 남기순에서 마을이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때부터 마을주민과 갈등의 씨앗 시작되었다고 본다. 땅부지, 건물설립 문제로 반려하니 다들 설득하였다. 교육관은 2005년 짓기 시작해서 2006년 준공을 완료하였고 평원농원은 딸기체험장 옆에 있는 타인의 농장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체험장 운영하고 있다.

마을회관	교육관	딸기체험장	평원농원
------	-----	-------	------

〈그림 4-17〉 논산시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서 상 시설위치도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되어서 2008년 시작, 현재 4년차로 2전 3기 끝에 성공, 황산별권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5년차에는 50억원을 지원받았고 5개마을 참가, 주변사람과의 문제는 적었지만 정작 본인의 마을만 반대하였다.

사업내용은 ① 마을의 소득사업 중심으로 농산물유통센터(배, 유통-선별-수출)설립하는데

이것의 운영주체는 영농조합법인 나무사랑, ② 마을별 숙원사업 지원사업은 마을별 2억원씩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예를 들면, 사원3리(운동관리시설), 도로확포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청년회관 공간마련, 떡가공공장, 딸기체험장(5억5천만원) 같은 사업이 있다. ③ 딸기체험장은 딸기마을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은 나무사랑 영농조합법인이 하고 순이익 5% 마을에 환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은 1/n방식이지만 배분 없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농교류사업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운영조직은 추진운영위원장이 본인, 마을별로 운영팀을 꾸리고 있다. 유통센터와 복지관은 독립된 건물이고 독립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환경교육관



공사현장



교육체험장 내부모습

〈그림 4-18〉 논산시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진행과정(외부자원 활용, 어려웠던 점, 에피소드 등)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파급효과로 숙원사업은 해결해 주어서 만족하지만 소득사업 실시에 따른 체감은 여전히 부족한 듯하다.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수익 후 이익배분 문제가 가장 염려되는데 100%가 전체 권역의 것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간의 에피소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험난했다.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래서 갈등도 많았던 것 같다. 각각 사람은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편함을 느꼈고 현실에서는 모든 것에서 100% 동의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 됨을 크게 느꼈다. 가급적이면 주변사람들 인식하지 않고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심있게 추진하려

고 하는 편이다. 결국엔 모든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게 되어 있음을 느낌을 받았다.

외부자원활용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몸소 체험하는 등 스스로 해결하는 스타일이다. 자문가, 책, 인터넷 등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다 잘할 필요는 없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서로가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딸기인절미만들기



딸기비누만들기



딸기잼만들기

〈그림 4-19〉 논산시 딸기마을 체험프로그램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보람을 느낀 점은 센터, 회관 건립 등을 하면서 점차 성과들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볼 때 어려웠던 것들은 잊고 보람이 느껴진다.

본인 삶의 모토는 “생각하고 무조건 행동해라, 그리고 실천해라.”라는 것이다. 사람만이 절망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함을 일하면서 느낀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중 90점일만큼 거의 100%만족할 만큼 지내왔다고 자부한다. 갱년기가 온 듯 한데 그전까지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으나 이제는 나로 돌아가자 라고 느끼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게 되자 아픈 것도 차도가 있을 만큼 몸이 변하고 있다. 일단 봐주고 시간의 보약임을 느낀다. 그러나 일은 철저하게 하고 원칙은 지키는 삶의 원칙은 고수하면 제자리에서 원래대로 다시 시작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책임질 일을 하면 책임은 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범위가 확장되게 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없었으면 조용히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딸기체험마을은 처음 시작이 딸기마을로 시작했으니 지금은 그 기본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응용할 예정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단,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대로 된 이익구조와 배분방식에 대한 구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마을별 건강진단기(혈압체크기, 당체크기 등) 설치, 마을경관 및 동네 풍경 조성하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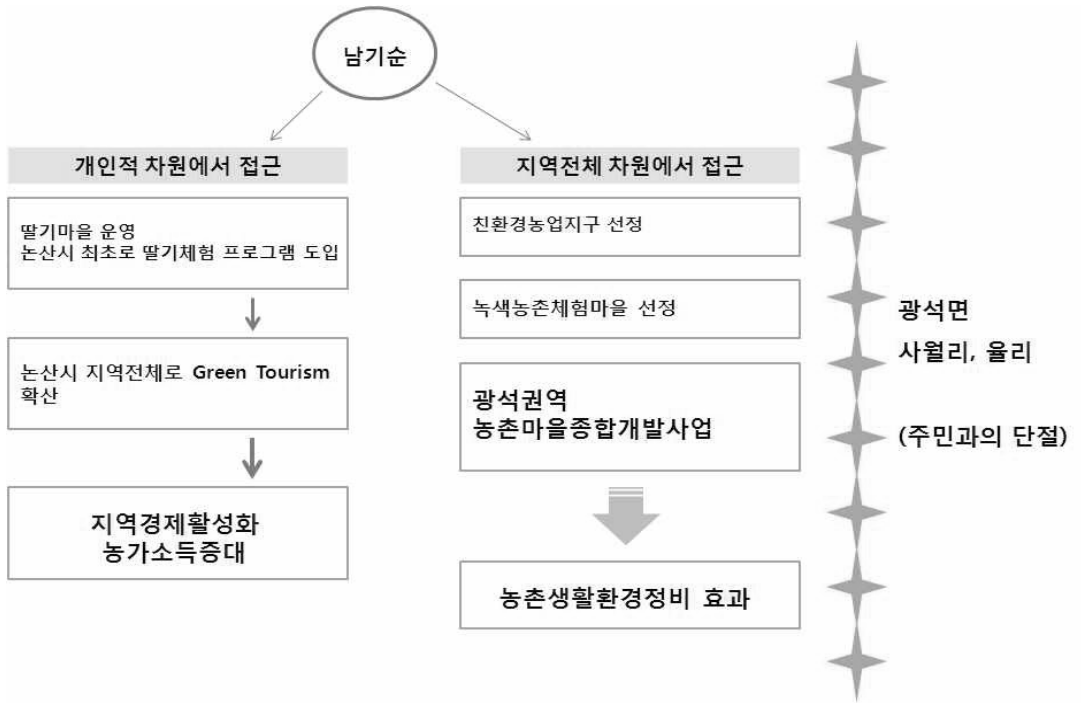
부가적으로 사회적 기업 추진 중에 있고 체험마을을 다시 기본에서부터 제대로 하고 싶다. 자신만의 향후 계획에 대한 비밀이 있지만 생각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이를 어떻게 보고 배울 것이냐는 각자 다를 것이라고 본다.

리더의 조건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응은 다들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래도 국가 정책사업의 지원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은 무조건 신청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어차피 누군가가 그 몫에 대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아는 사람은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다. 단, 사업을 유치한 후 사후관리 및 평가가 더 중요하다.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살아가는 느낌을 받아야 하고 생동감 있게 지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은 무조건 지원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에 도움이 되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주민간의 갈등과 싸움은 불가피하고 어쩌면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성숙해져가고 마을이 조금씩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스타일은 구체적인 지향점을 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일하는 스타일이 원래 그러한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편이다. 사업정보를 획득하면 개인사업인지 마을사업인지 판단하여 가급적이면 마을에 기여하고 마을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희망사항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넉넉해지는 마을이 만들어져서 그 때에는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관심사항으로는 개인농장 범위에서 좀 더 확장하여서 마을전체를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보람사항은 고객들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여기 농촌의 체험마을까지 찾아와주면 그것으로 고맙고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낀다.

요약 및 시사점



〈그림 4-20〉 논산시 광석면 남기순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3) 농촌리더 활동의 지역내 정성적 효과

가. 햇빛촌바랑산마을 이동신 추진위원장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성적 효과

자연지리적 여건이 좋고 특히 자연경관이 빼어난 자연적 환경을 갖고 있는 바랑산정보화마을⁹⁾은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한 곳이다. 운영주체의 특징으로는 초기 이병희 교장선생이 주도하다가 현재는 이동신 위원장으로 이관하였다. 2007년 정보화마을 사업신청, 2008년 정보화마을 최종 선정되었다. 현재 논산시 내에서 정보화마을이 3개가 있는데 바랑산마을이 가장 잘 되는 곳이기도 하다. 바랑산마을의 경우 사업계획단계부터 마을운영위원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곳이다. 정보화마을,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사업 등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참여범위는 오산1,2리 33농가가 참여한다. 지역내 마을단위 사업이 2개(양촌면 이메골꽃감마을, 바랑산마을)나 있는데 바랑산마을은 주로 교육, 민박, 팜스테이 위주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전영실(사무장)은 e-business교육도 받고 지원활동에도 매우 열심히 하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정보화마을의 전체 현황(전국 공통)은 정보화마을 중앙협회(정중협, 365개마을)에 수수료 지불, 마을자재운영기금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 지급도 만만치 않다. 전자상거래보다 직거래 관행이 더 좋아서 소득향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의 의지와 반응은 매우 좋았으나 지금은 미지근한 상황 혹은 유지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랑산마을의 성공요인은 첫째, 리더역할 중요, 둘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셋째, 자연적·지리적 조건이 좋아서 바랑산 등산객 방문이 많고 그러한 지역이점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 넷째, 마을자립을 위한 운영의지 중요(행안부도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립유도 중), 다섯째, 정보화마을 취지는 좋으나 욕심을 부리면 실패하는 교훈, 여섯째, 충남권역은 정기적으로 1회 모임을 가지고 있고 충남권역 회장은 꽃감마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일곱 번째, 홍보기간이 가장 중요, 그 힘든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 여덟 번

9) 참고로 논산시 내 정보화마을 중 강정첫갈마을(이면)은 교육수준 최고, 꽃감마을(양촌면)은 우수고령마을로 선정(2010)되어 추가적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고 체험장 시설건립함.

제, 농가소득 증대가 가시적일 수 있도록 노력, 아홉 번째, 시설현대화 및 식당운영 등 4계절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수익모델 창출, 마지막으로 살기좋은마을 및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사업 유치 성공하게 되는 선순환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응으로는 컴퓨터 IT인프라 구축(교육장, 개인 PC보급)지원을 해주니 면 주민입장에서는 반가워하고 있다. 작년에야 관리전환(시청 자산에서 개인으로 소유)으로 되었고 센터의 시설만 관리, 바랑산마을(2009년 3월)은 계속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전국적인 상황과 편이한 곳이다. 면단위 각각 사업을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마을간 발전정도가 다르고 불협화음 유무에 따라서도 마을발전정도가 다르다.

하지만 어려운 점으로는 사업추진시 마을사업은 주민간 결합, 주민간 역할분담 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리더역할은 이들 간의 조정과 화합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이런 마을사업들이 잘 안되는데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고 본다.

나. 논산 딸기마을 남기순 대표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성적 효과

논산시 대부분이 딸기농사를 하고 지역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광석면이 선도적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전까지 딸기는 생과로 출하되었는데 관행을 깨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딸기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남기순씨가 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광석면이 딸기 생산지로 유명하고 특히 고품질 생산단지로 유명하다. 논산시 내에서도 생산량면에서 광석면이 중상위권, 품질면에서는 광석면, 상월면이 유명한 곳이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촌관광협회(법인) 구성하여 운영 중이기도 한데 이로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논산시 딸기축제시에는 시청에서 딸기체험농가를 받을 계약하여 진행하는데 남기순씨네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초창기 2000년대 초반 그린투어리즘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이 주도하여 시행했지만 점차 일반농가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남기순씨는 자체적으로 평소에 체험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청 축제와 별도로 진행하여 연계성 거의 없다.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원인은 농촌현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딸기수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농가는 부가적으로 체험비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체험활동 경험 기회 획득하는 것이다. 딸기체험을 운영하는 농가들의 평균 실적은 주로 개인 출하 90% 이상, 전체 생산량 중 5%를 체험용으로 출하함으로써 농가들에게는 보너스 개념 해당한다.

지원사항으로는 논산시 농촌관광협의회(법인)설립해서 그린투어리즘의 총괄적인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이에 관광열차, 버스운행 등을 지원한다. 개별농가지원은 초창기에만 지원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므로 더 이상의 단순한 농가별 배분방식의 지원은 지양하고 있다.

행정측에서는 생과(1차)상태에서 가공(2,3차)까지 하면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예산지원의 한계 봉착하고 있다. 단, 개별농가가 체험객 맞이 준비를 위한 시설(주차장, 교육장, 체험장, 화장실 등)건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남기순대표의 활동과 추진경과로는 남편은 서산, 본인은 논산으로 초기 지역텃새가 있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딸기무농약을 2005년도에 처음 시도한 인물, 그 이후 현재 200여 농가가 무농약 농산물 재배하기에 이르렀다. 딸기 무농약농산물은 육묘전부터 무농약재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 개척을 위하여 체험행사를 처음 시도하고 진행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남편인 노세훈씨는 작목반 구성(광석면 노성리)하여 촌놈딸기 브랜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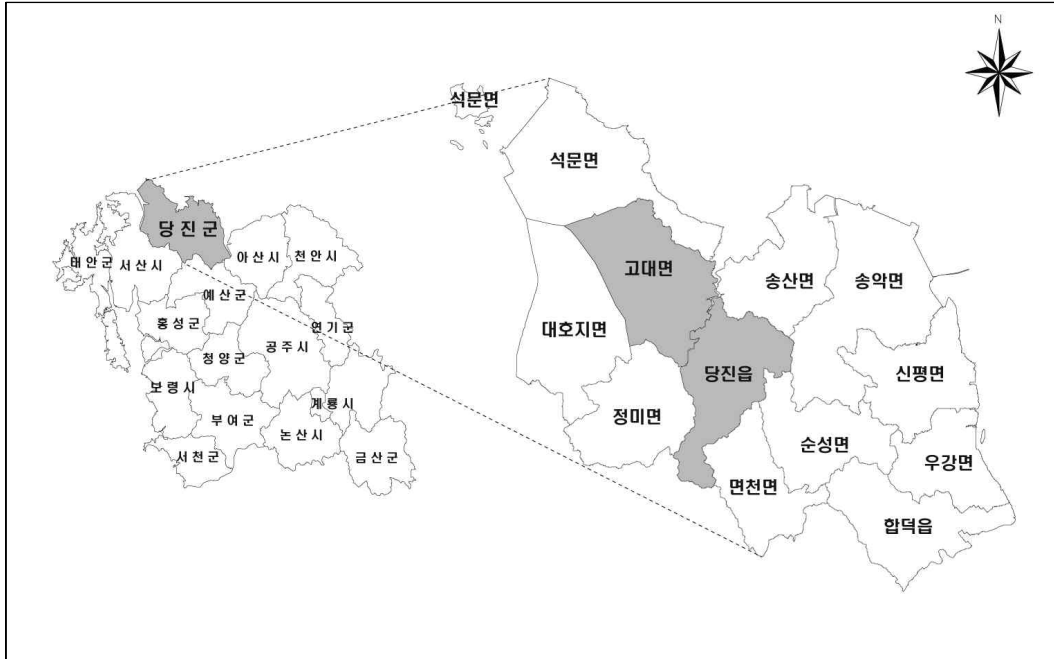
약 50억원이 지원되는 친환경농업지구(2005)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노력했고 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남기순씨 주도로 개척하였다. 하지만 지역텃새에 시달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튀어서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주변의 반응들은 남기순씨가 사업에만 집중하고 외부시선만 끌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긴 하다. 지금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중간에 불협화음으로 고생하였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게 단점이다. 최근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논산시에서 마을 사업으로 남기순 대표의 시설하우스 부지 옆에 '체험교육장'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남기순 대표만 독단적으로 사용한다고 말들이 많았다. 그리고 지역내에서는 다른 농장도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하는데 남기순 씨의 농장으로 손님들이 몰리니까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남기순 대표가 마을발전을 위해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해 마을 공동으로 참여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적인 평가로는 딸기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무농약 딸기재배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농업 확산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친환경사업을 계기로 체험프로그램 전성기를 맞았고 이후 1-2개의 굵직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방문객이 증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주변에 시기 및 질투도 많았던 것 같다. 반면, 서로 노력하면서 체험농장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타농가와 경쟁심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각종 마을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본인 및 주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근 주변농산물 판매효과 및 귀농인 유치 증대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5. 당진군

1) 당진군 개요



〈그림 4-21〉 당진군 행정구역도

당진군은 충청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군이다. 당진군의 북쪽으로는 서해와 아산만을 경계로 경기도 평택시와 접해있으며, 동쪽으로는 삽교천을 경계로 아산시와 접해있다. 서남쪽으로는 서산시와 예산군과 경계를 이룬다. 당진군의 2/3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쪽으로만 바다를 접한 곳이다.

당진군 송악면과 평택시 포승면을 연결한 서해대교(7.3km), 당진군 신평면과 아산시 인주면을 연결한 삽교호방조제(3.4km), 당진군 석문면과 서산시 대산읍을 연결한 대호방조제(7.8km)가 있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석문면 장고항리와 송산면 가곡리를 연결한 석문방조제(10.6km)는 동양 최대의 방조제로 2,215ha 농경지와 800ha 공단조성 등 총 3,740ha의 국토확장 효과를 가져왔다.

당진군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합류지점으로 수도권의 산업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고대산업단지, 부곡산업단지 등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여러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당진항을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 대중국 무역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당진군의 행정구역은 2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260개 행정리와 149개 법정리, 1,462개 반이 있다. 당진군의 총 면적은 694.08km²로 충청남도 전체면적의 8.07%를 점유한다.

〈표 4-19〉 당진군 읍·면별 인구추이

(단위: 명, %)

	2000	2005		2009		
				남	여	구성비(%)
당진군	122,495	120,483	141,952	73,641	68,311	100
당진읍	30,906	33,996	45,614	22,966	22,648	32.13
합덕읍	13,199	11,792	11,289	5,867	5,422	7.95
송악읍	7,209	6,688	6,438	3,323	3,115	4.54
고대면	8,152	8,129	8,101	4,170	3,931	5.71
석문면	3,555	3,202	2,956	1,492	1,464	2.08
대호지면	4,343	3,978	4,308	2,159	2,149	3.03
정미면	4,662	4,156	4,185	2,185	2,000	2.95
면천면	7,512	7,118	6,537	3,397	3,140	4.61
순성면	7,557	6,956	6,735	3,394	3,341	4.74
우강면	13,232	12,857	13,936	7,185	6,751	9.82
신평면	13,949	13,207	21,018	11,322	9,696	14.81
송산면	8,219	8,404	10,835	6,181	4,654	7.63

자료 : 당진군, 당진통계연보, 각 년도.

2009년 현재 당진군의 세대수는 58,907 세대, 인구는 141,952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약 2.41명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세대수 연평균 증가율은 4.00%, 인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48%로 아산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당진은 수도권과 인접해있고, 대중국 무역에 유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산업단지 면적이 충남에서 가장 넓고, 기업체수도

천안, 아산에 이어 세번째로 많아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2012년부터 당진군은 당진시로 승격된다.

당진군의 경지면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 22,427ha, 답 4,556ha이며, 이는 당진군 전체면적의 38.88%를 차지한다. 농가수는 13,554호, 농가인구는 35,463명으로 당진군 전체 인구의 약 24.9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 농촌리더 활동내용

가. 당진낙농축협 조합장 이경용

총괄개요

- ◆ 분야 : 낙농업협동조합(생산자단체), 낙농업 산업발전
- ◆ 리더추천사유 : 자연순환농업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실천, 시군단위를 넘어서 도단위 낙농업발전에 이바지, 지역순환농업시스템 구축, 낙농인 소득향상

개인사항과 낙협조합장이 되기까지...



1962년생으로 고향은 덕수리이다. 4남 2녀이며, 본인은 둘째이다. 할아버지(군청)와 아버지(군 면장)는 모두 공무원을 지냈고 어머니는 농사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뒷바라지 하였다.

이경용 조합장은 바로 어머니가 농사짓는 일을 도와주다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군대 재대 후 20대부터는 4H 활동 시작했으며, 다른 직장 경험없이 바로 농사를 시작한 사례이다. 처음에는 쌀농사, 85년에 송아지 5마리 사서 87년에 우유를 짜기 시작하였다. 당진에 있는 안승환씨 농장에 가서 일을 해보다가 젖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천안에 있는 이재현씨로부터 스카웃해서

가르침 받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목장 규모는 아버지가 물려받은 기존 땅 6000평 정도에 목장으로 시작하여 처음엔 5마리로 키우다가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1990년도 초에는 150두까지 키웠다. 당진군에서 손안에 꼽히는 목장규모이기도 하였다.

낙협 출범과 함께 조합장으로 선출된 역사는 이렇다. 1989년에 당진군 영농후계자 모임(정용해 : 도의원, 부회장 : 이경용)으로 활동하다가 1992년에 낙협으로 출범하였다. 이사직 역임(조합장 : 한건성)하고 당시 서해낙협(현재 홍성)이 당진과 합병되어서 출범한 것이다. 초대 조합장과 초창기에 많은 갈등을 겪었고, 1996년에 조합장 선거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 4년을 기다리는 도중 이사로 선출되어 2년을 함께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2000년 38세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당시 젊어서 파격적인 결과였다. 당진낙농축협의 4대부터 6대까지 선출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일하고 있다. 2000년 시작 당시 조합 규모는 매우 영세하였다. 1년 매출이 연 120~130억원으로 조합원 210명이었으나 2011년 현재 조합 규모 연매출 1500억원, 조합원 345명(충남도 조합원 279명, 경기도 조합원 66명)을 거느린 조직이 되었다. 직원은 63명으로 외부용역 직원까지 합하면 115명 정도가 된다. 관할권역은 충청남도, 경기 11개 시군, 대전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단위 협동조합이다.

〈표 4-20〉 당진낙농축협의 연혁

연대	시기	내용
1990년대	1992년 05월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인가
	1994년 10월	-(구)축협중앙회 회원조합 인가
	1996년 10월	-본소 및 집유장 청사 준공 입주(원당리 402-1)
	1998년	-전국업종 우수조합 및 충남최우수업종 조합 지정
	1999년 02월	-종합업적평가 전국 우수상
2000년대	2000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 우수조합 수상
	2008년 02월	-조사료 가공(섬유질)공장 준공
2010년~	2010년 01월	-사업구역 확대(충남.대전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2010년 10월	-2010 원유 위생품질 최우수 집유조합 선정(3년연속 선정) -2010 낙농진흥회 최우수 집유조합 선정(3년연속 선정)
	2010년 12월	-농농업 다양회 시책추진 사료작물재배 우수단지평가
		-최우수상(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04월	-클린주유소 준공 및 업무개시
	2011년 05월	-낙농진흥회 “유질베스트 팜” 전농가 석권
	2011년 12월	-제19회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대상 수상

자료 : 당진낙협 홈페이지(<http://www.djnch.com>).

충남에서 당진낙협 비중이 커진 원인으로는 정부와 손잡고 낙농진흥회(집유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곳들은 일반 유업체에 판매하고 단합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소외를 당할 정도였다. 당진 낙협 조합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끌어갔으며,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힘들었으나 투명성 제고, 권역확보 가능, 삶의 가치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설득한 결과 권역을 넓혀 현재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재밌음을 느끼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축협외부 전경



집유차량



당진낙농축협 젖소 이미지

〈그림 4-22〉 당진낙농축협 전경

활동사항 : 낙농축협의 결과물

당진낙농축협은 그간 굵직굵직한 여러 결과물들이 많다.

① 조사료 공장 I

- 2001년 대규모 조사료 단지를 당진 하이넥스 80ha 부지 이용해서 조성
- 24만평 부지에 단지 조성. 간척지 15만평 땅에 최초로 전국 규모의 조사료 공장 건설

② 조사료 공장 II

- 송산·석문 간척지 120만평에 조사료 공장 운영(현재 확보)
- 조합 단독으로 계약하였으며, 사용기간 5년씩 무임대
- 간척지 환경에서 옥수수를 재배한다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공시킴. 현재 송산석문 간척지에서 잘 자라고 있음.
- 국내에 420만톤 조사료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90만톤 정도는 쿼터로 정해져 있음.

- ## 당진낙농축협 조사로 재배현황

범례

구분	내 용
[Pattern]	당진낙농축협 조사로 계획단지
[Pattern]	예산영농법인 조사로 계획단지
[Pattern]	당진축협 조사로 계획단지
[Pattern]	당진낙농축협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당진낙농축협 당진TMO 가공공장
[Pattern]	농약세종투자개발지(10.6ha)
[Pattern]	지구청 공터
[Pattern]	공동수전매립지역 경계선

◆총재배면적◆

당진 낙농 축협	256 ha
당진 영 농 법 인	371 ha
안면도 두산목장	7.5 ha
예산 영 농 법 인	57 ha
보령 천복목장	6 ha
송악새종투자개발	15 ha
총 면 적	712.5 ha

자료 : 당진낙농축협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표 4-21〉 당진낙농축협 조사료 재배단지 현황 및 개요

- ◆ 사업명 : 간척농지 대규모 조사료 단지 조성
- ◆ 사업기간 : 2010~2014(5년간 무상임대)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
- ◆ 위치 :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석문면 삼화리 일원 및 개별 위탁지(당진, 예산, 안면도, 보령 등)
- ◆ 재배면적 : 당진낙농축협 256ha, 당진영농법인 371ha, 안면도 두산목장 7.5ha, 예산영농법인 57ha, 보령천북목장 6ha, 송악세종투자개발 15ha 등 총 712.5ha
- ◆ 작부체계 : 2모작으로 하계작물은 옥수수, 수단, 연맥이고 동계작물로는 IR,호맥 등

자료 : 당진낙농축협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조사료 재배지1



조사료 재배지2



조사료 재배지3

〈그림 4-24〉 당진낙농축협 조사료 재배지 전경

③ 청주 낙협 합병 도전실패와 후회

- 2002년 우유파동 당시 청주 낙협 위기로 도산처지
- 대전과 공주낙협, 당진낙협 세 곳이 합병을 신청했으나 중앙회로 올라갔더니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감사원장 말 한마디에 이사회, 총회에서 반대(1명의 반발로)
- 조합원에게 감정이 상하고 그 이후 수많은 갈등과 반대로 인해 포기
- 하지만 지금은 조합원들이 그 당시 포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정도로 대형프로젝트였음

④ 각종 사업 아이템

- 조합원들에게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바꾸기 시작하였는데 목장체험프로그램 만들어서 KBS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었음. 대신목장은 조합의 아이템 구축을 위

해 활용함. 깨끗한 목장을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전국적인 단위로 확장하는 계획임.

- 낙농진흥회 이사로 있을 때 우유가 많이 남다 보니까 쿼터제 실시함을 제안함. 이 제도는 리터당 10만원을 주고, 농협에서 3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폐업하기 시작. 농림부에서 제도 도입해서 시행해서 성과가 높아지고 대성공함. 하지만 낙농육우협회와 갈등도 겪었었음.
- 기타 여러 사업들(주유사업, 신용사업)도 추진, 최초로 클린주유소도 지어서 경제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⑤ 2004년도 5대 선거

- 선거를 치르기 전 시기에는 조합의 각종 대형사업 유치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은 탓에, 그리고 이사 중 한사람이 출마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재선출이 불안한 상황이었으나 8:2의 투표결과로 당선됨
- 4년 재임기간 동안에 모든 조합원 동등하게 대우하였고 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해라라는 것이 소신임. 2004년부터는 더 활발히 일을 함
- 당시 정부에 우유문제가 많이 있었음. 위에 가서 정부의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많이 함
- 기존 사업 부문의 지속성도 유지
- 정부 정책 낙농 기반 약하니까 시설 개보수 정책적으로 빼내는 부분 등 낙농가들 부족한 시설들 국책과 보조사업으로 추진 노력

⑥ 신용사업 및 주유사업(진행 및 예정 중 사업)

- 2011년 3월 9일 국회통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사업을 시작할 예정
- 6년, 7년 동안 발로 뛰어서 국회에 다니면서 사업추진을 시작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음
- 그전까지는 경제사업만으로 버텼으나 낙농축산과 관련해서 지역농협처럼 금융사업도 이제 시작한 셈임

⑦ 공동 자원화 사업(진행 및 예정 중 사업)

- 계기 : 경종, 축산농가의 상생의 길은 자연순환으로 가는 것이 이치임에 틀림없다고 확신
- 추진과정 : 작년도 액비화(양돈) 사업에 대해 농림부의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음. 가축의 분뇨 책임은 분명히 있고 반드시 사람이 책임져야 함. 사업비를 받기 위해 설득하였고,

여기까지 엄청난 시련이 있었음

- 결과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1.2차)확정. 2010~2011년 공동자원화 시설 신축 예정 (6.2ha, 1만 8700평 정도, 31억 투자) 최초로 간척지 내에 있는 정부 땅을 사게 됨. 1차 산업 인허가 받고, 올해 농림부 관계 도청 45억원 추가 지원받음. 총 75억(30억 + 75억)
- 처리용량 : 1차 100톤, 2차 100톤에서 1,2차 통합 후 195톤으로 조정
- 사업지 : 송산면 가곡리 6.2ha 취득
- 1차 액비90%, 퇴비10% (2010년도 사업 확정), 2차 퇴비사업 100% (2011년도 사업 확정)

2011.12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액비화시설 준공 예정

총사업비 30억 (국비 : 1,500백만, 지방비 : 900백만, 자부담 : 600백만)

2012. 4 가축분뇨공동자원화 퇴비화시설 준공 예정

총사업비 45억 (국비 : 2,250백만, 지방비 : 1,350백만, 자부담 : 900백만)



〈그림 4-25〉 당진낙농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조감도

자료 : 당진낙농축협 내부자료.

⑧ 당진 2차TMR가공공장(조합공동사업법인) (진행 및 예정 중 사업)

- 목적 : 국제적인 식량곡물 자원 전쟁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척농지활용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국내조사료를 재배·생산하여 TMR원료로 투입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고품질사료를 가공하여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고 가축경제수명연장, 번식장애 개선 등 조합원의 실

- 익증진으로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함
- 계기 : TMR 공장이 옆에 있는데 capa용량 다 찼음.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된다는 신념
 - 목표 : 조사료 생산, TMR, 우유생산 등으로 이어지는 자연순환 방식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자 함
 - 사료판매 실적변화 : 2009년에는 매출액 15,233백만원(38,800여톤), 2010년 매출액 18,528백만원(49,245톤), 2011년 매출액 21,526백만원(52,288톤 중 12월 생산량 5,000톤 달성)
 - 시기 : 2005년 물류창고, 2008~2009년도 TMR 공장 설립 시작
 - 물류창고와 TMR 공장 부지 구입(6,700평) 위해 많은 고생을 함. 평당 13만 5천원 지불
 - 사업투자와 갈등과정 : 2007~2008년: 국가 9억, 지방 9억, 자부담 12억 투자해서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받았으나 투자금액이 커서 조합원의 반발을 삼. 땅 팔라고 협박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많은 갈등을 겪어옴
 - 전국에는 200여개의 TMR 공장이 있어서 초창기 TMR 공장도 걱정했지만 현재는 대박
 - 여기는 단일사료(복합사료가 아님). 하나만 쓰고, 소가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국내 조사료를 이용함
 - 상품명 : “이뿌니”, “딸래미” 상표명으로 생산·판매 중
 - 직접 미국 농장에 가서 풀을 구매. 국내산 70%, 나머지 수입산으로 대체함. 지금 싼 값에 공급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만족함.
 - 전국평균 21만두(우유), 26.7L 인데 이곳에서는 평균적으로 32.2L 생산하열 생산성 높음.
 - 체세포 등급, TMR, 환경적인 변화, 체험목장 같은 변화들을 계속 추구
 - 차별성 : 공동 자원화는 사료의 산성, 부식 때문에 철을 쓰지 않고, 콘크리트 공법으로 짓고 있음. 최고의 아름다운 메리트 있는 건물건립을 주문하였고 2012년 6월 완공 예정
 - 계획 : 당진군 전체의 퇴비를 받아서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생산된 비료는 당진 관내 뿐만 아니라 외지에도 공급 예정
 - TMR사료의 특징점 : 기능성 설계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량증대, 유단백질향상, 반추위 안정, 번식장에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그림 4-25> 참고).



〈그림 4-26〉 당진낙농축협 TMR사료의 특징점

자료 : 당진낙농축협 홈페이지(<http://www.djnch.com>).

⑨ 당진TMR가공공장과 연계하여 사양관리 컨설팅

- 지역별 수의사로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부여 등 1개월에 한번 번식 및 사양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김현진 박사와 조합직원의 농가 집중 컨설팅으로 문제 해결
- TMR급여농가는 유사비 분석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사양관리 방안 모색
- 농가에서 사용하는 착유기, 소독시설, 냉각기, 환풍기 등의 환경시설물에 대한 전문인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컨설팅으로 농가사육환경 개선
- HACCP농가들을 늘리기 위한 HACCP컨설팅 실시
- 그 이용체계에 대한 것은 다음의 <그림 4-26>과 같음



〈그림 4-27〉 당진낙농축협 TMR사료 이용체계

자료 : 당진낙농축협 홈페이지(<http://www.djnch.com>).

조합의 향후 계획은?

충남 육우 광역브랜드 사업 주관조합으로 선정되어서(10.7.19) 사업추진 중에 있다. 브랜드명은 ‘참육우’로 결정하였다. 충남에서는 2만 3천두가 수놈인데 오갈 데 없는 육우들을 위해 브랜드사업 계획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11월 현재 참여조합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협의회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송아지 생산기지화, 브랜드 가치창출, 가격경쟁력 확보를 이뤄낼 것이다.

그 외에도 저지¹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할 예정이다. 저지 종 수정란 30알을 들여와서 이식 감정결과 11월 현재 6마리 남았다. 유단백 중심의 원유산정체계에 대비하여 저지종 수정란을

10) 몸무게는 암컷이 300~350kg, 수컷이 460~500kg이다. 영국 저지섬이 원산지이다. 브레톤(Bretonne)종과 노르망디(Normandy)종이 교잡되어 성립된 것으로,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사육되고 있으나, 그 수는 홀스타인종보다 많지 않다.

성질은 온순하며 약간 신경질이 있다. 체질은 그다지 강하지 못하며, 특히 결핵에 약하다. 더위에는 홀스타인종보다 강하나 내한성은 약하다. 비유량(泌乳量)은 홀스타인종에 비하여 적으며 연 2,500kg 정도가 보통이다. 유지율(乳脂率)이 평균 5%로서 높으며, 지방구가 크고 빛깔도 노란색으로 아름다워 버터 원료유로서 우수한 품종이다. (백과사전)

이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홀스타인 중 밖에 없는데 저지종은 체구는 적지만, 우유량도 많고, 강하여 향후 새로운 낙농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육성우 전문목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자금 및 규모가 영세한 목장의 자체적 해결이 어려워서 조합 및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육성우 위탁사업을 시행하여 착유우와 육성우의 분리사육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축사활용 면적을 높임으로서 밀집사육을 방지하고 스트레스 완화 및 착유우 증가로 원유생산량을 극대화, 대사성 질병 예방으로 산차수 증대효과, 육성우 위탁사육의 체계적인 전문관리로 고능력우를 생산, 농가는 착육우의 관리에만 전념하여 생산량을 높이고 향후 조합에서 사육한 고능력우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합에서 말하는 정량적·정성적 효과

당진낙농축협은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우유 품질 우수성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현재 체세포가 가장 우수한 (전세계적인) 우유를 생산하고 있음.
- 기술적인 면모에서 성과 검증은 홍성, 천안, 경기 3명이 현지에서 매일같이 샘플 검사를 하여 가장 우수
- 현재 조합우유는 매일(평택), 빙그레(논산), 야쿠르트(천안 100%)로 출하됨
- 5농가에서 사양시험하고 1년 8,300만원 투자, 돈을 많이 쓴다고 조합원과 이사들의 심한 반발도 있었음
- 좋은 품질을 위한 노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을 겪음
- 월 5천톤, 1일 200톤이 최대용량이지만, 현재는 크게 성공하여 사료공장도 모자랄 정도
- 결과적으로 성공요인은 품질향상, 저렴한 사료공급, 체세포 등급이 올라간 것임

행정에서 말하는 정량적·정성적 효과

이경용 조합장은 낙농 경영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한국낙농발전의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앞장서 낙농진흥회사업 공헌한 바가 큰 사람이다. 국내산조사료 생산과 TMR가공공장을 연계한 축산인 원가절감에 기여함을 물론이고 도시민의 농업농촌 이해와 상

생을 위한 관광체험목장과 깨끗한 목장 사업확대와 국내조사료 생산성 제고와 연계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에 의한 낙농경영 여건개선 및 농·축산 발전 기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낙농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낙농경영개선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¹¹⁾

- 원유소비홍보 촉진기여 및 관광체험목장과 깨끗한목장 실천사업확대
- 국내조사료 휴경지이용확대로 양질의조사료 생산과 가공사업의 경쟁력강화로 축산인 원가절감에 기여(<표 >참고)
- 헬퍼사업확대로 인한 축산농가의 여가활동을 통한 후계자육성 확대
- 낙농경영개선을 위한 광역육우브랜드 및 낙농컨설팅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젓소(저지 jersey)수정란이식사업을 통한 국내 낙농발전을 도모
- 가축분뇨 액비화 퇴비화를 통한 친환경 유기농업 단지 조성에 기여

〈표 4-22〉 국내조사료 생산현황

(단위: ha, t, 백만원)

생산기간	조성면적	품 목	생산량	생산액	수입대체 효과액	비 고
2001~2005	150	호맥,수단	57,600t	5,760	1,908	송악부곡유휴퇴지외
2006~2009	50	호맥,수단	6,760t	676	324	석문간척지내
2010	300	옥수수,수단	7,332t	1,100	528	하계작물부터파종
계			71,682	7,536	3,646	

자료 : 당진군청 내부자료, 당진낙농축협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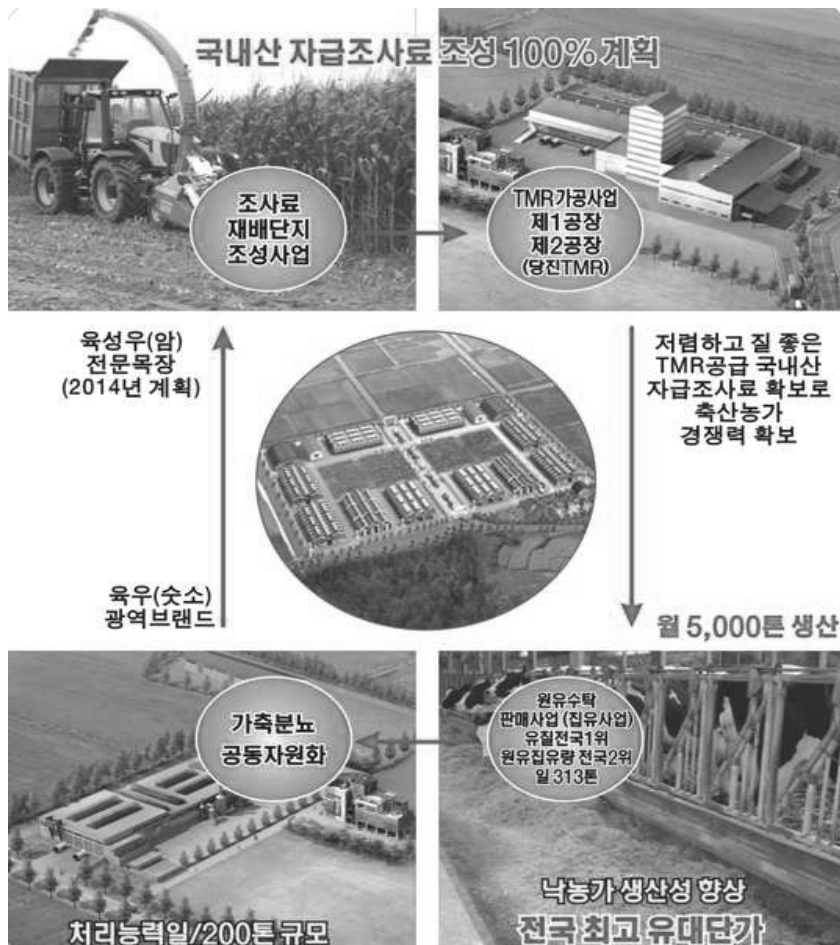
향후 목표, 지향점, 비전, 가치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당진낙농축협의 미래는 계속 분주하고 바쁠 것 같다. 내년부터는 조사료 연구소와 공동자원화 연구소도 계획 중이고 교수, 박사, 학생들까지도 연구를 할

11)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후보자 공적조서”, 당진군청 내부자료, 2011.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차계획은 밀집 사육을 하고 있으니, 육성우 단지 사업을 내년도에 실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자연순환농업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 자급조 사료 조성 100%를 목표로 달릴 것이다.



〈그림 4-28〉 당진낙농축협의 자연순환농업 추진목표

자료 : 당진낙농축협 홈페이지(<http://www.djinch.com>).

조합장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극대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것이 간절하다. 그리고

축산이 결국 지역내 경종과 더불어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를 위해 반드시 TMR사업과 같은 것은 추진할 것이다.

현재 조합원들과 관계형성은 과거 청주 낙협 인수 못한 걸 현재 후회할 정도니 그만큼 신뢰가 쌓여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은 조합원들로부터 극도의 칭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관계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인의 문제 해결방식은 조합장 10여년을 하면서도 언성 높이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대화로서 대함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일을 추진할 때는 끈기있고, 욕심껏 추진하고 대화는 친화적이고, 사교적으로. 결단력 있게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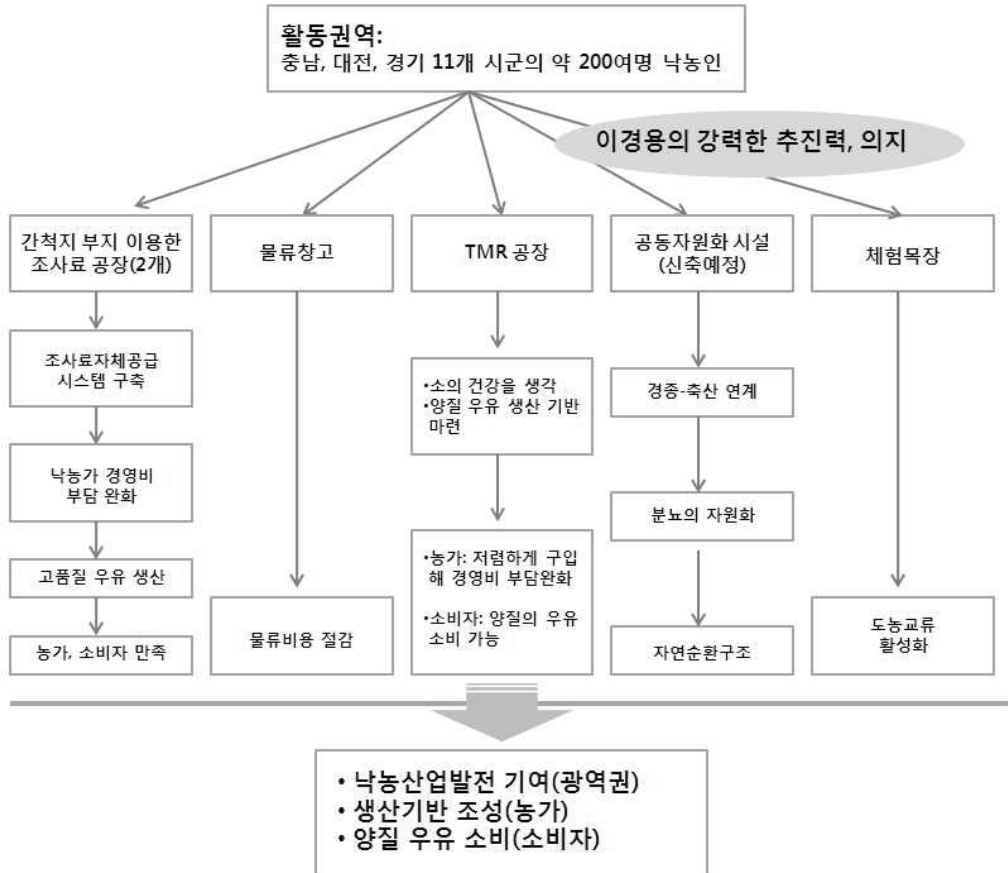
최근 원유가 인상 때를 예로 들면 3과전 구도양상이었다. 서울우유는 200억원을 풀어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남양유업은 16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풀었고 낙농진흥회는 당진낙협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수호 회장은 집유를 거부하자 해서 냉각해서 안보내고 3일간 집유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낙농가들은 155원을 주장, 정부는 138원을 제시하였는데 결국 138원에서 타결하고 집유하는 것으로 결정, 결국 집유 먼저 풀어서 원유문제 해결하였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보다 흑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50%라도 가져간다는 생각이다.

조합장이 생각하는 리더, CEO의 덕목은 어떤 것일까에 대답으로 “평등, 투명성 제고, 튼튼한 기초”라고 하였다. 즉, 조합원들 모두에게 평등성을 유지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차별을 두지 말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면, 소신껏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소에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공부를 하는 편이다.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닌 어떤 낙농정책, 조사료 정책 토론회를 자주 나가게 되는데 이를 핑계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외국서적까지 보면서 공부하는데 단 5분 발언이라도 전문성이 있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서적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얻는다. 능력있는 사람들, 인재를 잘 활용하는 편이다.

현재 축산업의 이슈는 축산농가는 욕심이 많다. 그래서 동물 복지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현실이 가장 심각하다. 환경문제, 동물복지, 주민갈등 해결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그림 4-29〉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나. 영전황토마을 박정일 위원장

총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마을개발, 정보화마을 ◆ 리더추천사유 : 1사1촌을 통한 농산물 판매사업 확장,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개척

지역특징

충청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당진군, 그 중에서 고대면 당진포1리 영전황토마을은 논, 밭, 과수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남과 북으로는 저수지가 있으며 마을주민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예로부터 양질의 황토와 바다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당도 높은 황토배로 유명한 곳이다.

행정리로는 당진포1리, 마을명으로는 영전마을, 이곳의 가구는 72가구, 인구로는 206명이다.

〈표 4-23〉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인구 및 가구

구분	2008	2009	2010	2011
총면적()	230	242	241	241
가구수(호)	70	71	72	72
인구(명)	203	205	207	206

자료: 영전황토마을 내부자료.

마을주변에는 서해안 일출과 일몰로 유명한 왜목마을을 비롯하여 도비도, 대호방조제, 석문방조제, 당진화력발전소 등의 널리 알려진 관광지가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및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등이 통과하고 있어 대도시 사람들의 마을방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갖고 있는 영전황토마을은 침체되어 있는 농촌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던 중 천혜의 자원인 황토를 이용,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황토배 작목반을 결성하여 마을의 특산물인 황토배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최근 황토배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25톤을 생산하였다.

〈표 4-24〉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주작물 생산량

(단위: 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쌀	1,150	1,210	1,210	1,210
파리고추	-	-	-	52
배	21	22,5	22,5	25

자료: 영전황토마을 내부자료.

최근 주 5일 근무제 및 국민연금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도시민들과 연대감을 형성하고자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추었고, 2002년에는 마을 운영회를 결성하고 20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민박, 농사체험농장, 주말농장, 농가식당, 농산물판매처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마을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황토방, 도자기공예, 황토염색, 민박, 농사체험 등 다양한 팜스테이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은 농사체험이고, 민박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개인사항, 그리고 배농사를 시작하다.



박정일 씨는 현재 50대 중반으로 농사를 시작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 할 수 없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곳에서 머물면서 계속 접해왔던 게 농사이기 때문이다. 20대 때(79년도)에 1년 동안 잠깐 외지에서 금융업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1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와서 농사하고 지금까지 쭉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직책으로는 팜스테이 총남회장, 총남 녹색체험마을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초창기인 1980년 즈음 논이 천여평 정도 있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 면적으로 확대해 옴으로써 현재 3만평(논 2만평, 과수원 4500평, 밭 5500평) 규모까지 경작하고 있다.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한국농업대학교를 졸업하

게 했고, 현재 같이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는 본인, 부인, 아들과 함께하는 가족경영 형태를 이루고 있다.

마을사업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는 1992년도 우루과이 터지면서 60대 전의 젊은 주민이 30명 정도 되었다. 1992년경 UR이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 마을에서도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쌀값 폭락 예상에 따라 배작목반을 구성하게 되었다. 약 10가구가 모여 30ha 배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시초이다. 당시 작목반원이었고,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때 마을에 처음 배를 심은 시기이기도 하다.

타마을과 자연적 여건의 차이점으로는 산이 높고, 산쪽으로 길이 나고, 마을이 들어서 있는 형태이다. 황토가 자원이기 때문에 황토로 무언가를 해보자 노력을 결심하게 되었다. 황토는 배를 재배하기도 적합한 토양이다. 토양검증을 해보니 기술센터에서 배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줬다. 따라서 사과가 아니면 배로 결론이 났다. 황토로 인해 배의 당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해풍을 맞아 과일과 고구마의 당도가 높고, 육질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이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고, 간척지이기 때문에 농산물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기존에는 논농사만 간척지에서 짓다가 배를 시작한 것이다. 현재 작목반은 7명, 고령화되면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저농약으로 품질인증 받은 상황이다.

마을에서의 활동은 2005년부터 마을 이장을 하였다. 이장되기 전에는 마을총무, 새마을 지도자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여서 나름대로 경험과 경력이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대표가 바뀌고 나면 마을이 흔들리게 되는데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인도 초기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였다. 2005년도 이장이 되면서 처음에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예를 들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년층과 중장년층으로 파별이 나뉘어 있었는데 약 4년 간 유지가 되더라. 현재는 이장 7년차로 별 무리없이 지역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전경



황토고구마 재배지1



황토고구마 재배지2

〈그림 4-30〉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전경

활동사항 1 : 마을개발사업에 뛰어든다.

2002년도 당진에 체험마을 사업 해보겠다고 먼저 시작하였다. 2002년 신청해서 2003년도 팜스테이, 2004년 정보화 마을,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마을사업을 하려면 리더가 발로 뛰어서 관공서에도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데 본인은 기존 공무원들과 이렇다할 인맥관계가 없었지만,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계 맺기를 시작하였다.

체험마을 한다 했을 때 반응들은 처음에는 인식을 잘 못했지만, 사업시작 이후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다. 예컨대 사업유치를 통해 새로운 시설도 들어서면서 옆 마을과 시각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다들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특별히 없고 직 대표자들이 한 것을 유지해나간 것 뿐이다. 2002년부터 최천재 이장이 먼저 시작하고 본인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이장과의 차이라면, 전 이장은 내부적으로, 박정일 위원장은 외부적인 활동을 주로 해온 것인데 그 활동의 결과물로 2005년부터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10개 지역, 2개 회사와 교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이다.

삼성전자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2005년 추진 당시 서산과 당진 두 곳이 견주었는데 결국 당진이 선정되었다. 별도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만을 기반으로 추진하였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매우 기뻐했던 것 같다. 병천 오이마을, 천안 입장마을, 그리고 이곳까지 세 군데가 1사 1촌을 추진하였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곳은 영전황토마을 뿐이다.

첫해인 2006년도에는 2~3,000명 이상이 방문(주말 과수원 통해 배나무 분양)하였는데 외지

방문객이 왔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리둥절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요즘은 마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시면서 좋아하고 주민들이 살갑게 맞이하고 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를 느끼며 내가 너그럽게 해야 오는 사람도 너그럽게 할 수 있음을 늘 말하고 다닌다.

김장도 마을에서 계약재배해서 가져가고, 농산물 판매, 추석 때 구정 때 계속 선물로 삼성전자로 나가고 있으며, 매출액을 많이 높여주고 있다. 계약재배는 무와 배추의 면적을 사전에 논의, 계약하고 연초에 가격을 정한다. 요구하는 양을 미리 확보하고, 나머지는 김장 해가는 것이라서 안정적 판로 확보가 되어서 농가반응은 아주 좋다.



정보화마을 입구



정보화센터 외부



정보화센터 내부

〈그림 4-31〉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정보화마을 전경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제대로 된 팜스테이를 하자는 취지에서 영전 황토마을의 상황은 체험만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농산물을 팔아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실천한 것에 있다. 현재 72농가, 240ha로 전국에서도 정보화마을 중에서 아마 규모가 많이 큰 편에 속할 것이다. 이 중에서 산물 매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박정일 위원장에게 체험 프로그램은 농산물을 파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농산물 판매가 주된 목적이고 체험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수단과 전략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무장은 택배 주문이 많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을 담당하고, 체험 운영도 맡고 있다. 정부에서 주는 월급 112만원 지원받고 있는 정도이다.

영전마을의 체험프로그램으로는 황토염색체험과 황토찜질방, 도자기제작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계절별로 메뚜기잡기, 황토배 수확, 떡매치기, 고구마캐기, 갯벌체험, 연날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다수가 있다.



〈그림 4-32〉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체험프로그램 지도

자료 : 영전황토마을 홈페이지(<http://youngjeon.invil.org/>)

이를 토대로 정부의 굵직한 사업들이 선정되는 행운도 안고 있다. 당진포리 황토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도 3개부락이 선정되어 41억 지원(당진포 1,2,3리)을 받은 사업이다. 3개부락에서 하는 것이라 소득사업으로 한우촌 만들고(당진포 1,2,3리), 체험장, 고구마 저온창고, 공간마련 계획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마을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변화된 모습은 쓸모없는 땅을 당진군에서 구입해서 "황토웰빙공원" 4,000평을 조성하였다. 웰빙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0년도 준공하였다.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광객도 이용한다. 운동기구, 족구장, 텐트칠 수 있는 공간(삼성직원들도 휴양으로 이 공간 이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Farm Stay는 2005년 시작하여 황토민박·펜션 3동. 나머지는 농가민박(15농가)을 운영 중에 있다. 큰 소득은 안 되지만 농산물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활동사항 2 : 마을사업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에 뛰어들다.

농산물 판로 및 판매실적으로는 고구마를 2005년에 시작하여 현재 7년 째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 고구마와 배는 90% 이상이 직거래를 통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오히려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시장으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마다 선별기가 있어서 배의 경우는 선별기를 통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고구마는 육안작업으로 선별하고 있다. 선별은 몇 년 경력이 있어 노하우가 쌓여있다. 박스에 생산자 이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는 없다. 처음에 농가들에게 선별 및 포장작업 교육을 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다.

고구마 재배는 2006년경부터 많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자급자족 수준이었지만, 체험마을 시작하면서 고구마 생산과 판매가 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에게 고구마 판매가 돈이 되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작목반은 7농가이고 과수농사는 고령화된 사람은 하기 힘들어하는데 반해 고구마는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하기 쉽고 투입노동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당분간 배 수확도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50-60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가인구수로는 고구마와 배가 거의 50:50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고구마는 이곳을 따라올 곳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가을 홍수출하가 아닌 연중 꾸준히 출하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구마 박스(삼성로고 포함)



고구마 포장작업 전 1



고구마 포장작업 전 2

〈그림 4-33〉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판매사업

2011년 매출액 및 실적으로 고구마 주문량은 약 1억원, 배 주문량은 20,000박스(박스당 3만원, 7.5kg)가 넘는 수준이다. 사업을 시작한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매년 15% 가량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삼성전자의 웰스토리 물이라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것이 많다. 그 쇼핑몰에는 삼성과 자매결연 맺은 마을들의 농산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통해 판매되는 물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림 4-34〉 삼성 웰스토리몰 홈페이지 대문

자료 : 삼성웰스토리몰 홈페이지(<http://www.welstorymall.com/intro/index.jsp#>)

향후 계획, 비전, 가치, 목표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정보화마을이 선정된지 5년차가 지나서 이제 무보수로 사무장이 일하고 있다. 전산작업이 안되니까 모든 게 수작업으로 돼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사진 찍고 농산물 올리고 여러 작업을 해야 하니 힘들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절실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책 지속성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원이 좀 더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아마 일선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전자상거래도 하고 판매실적도 매년 증가하면서 좋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인해 가격도 인정되고, 이제는 본인 것을 팔아달라고 요청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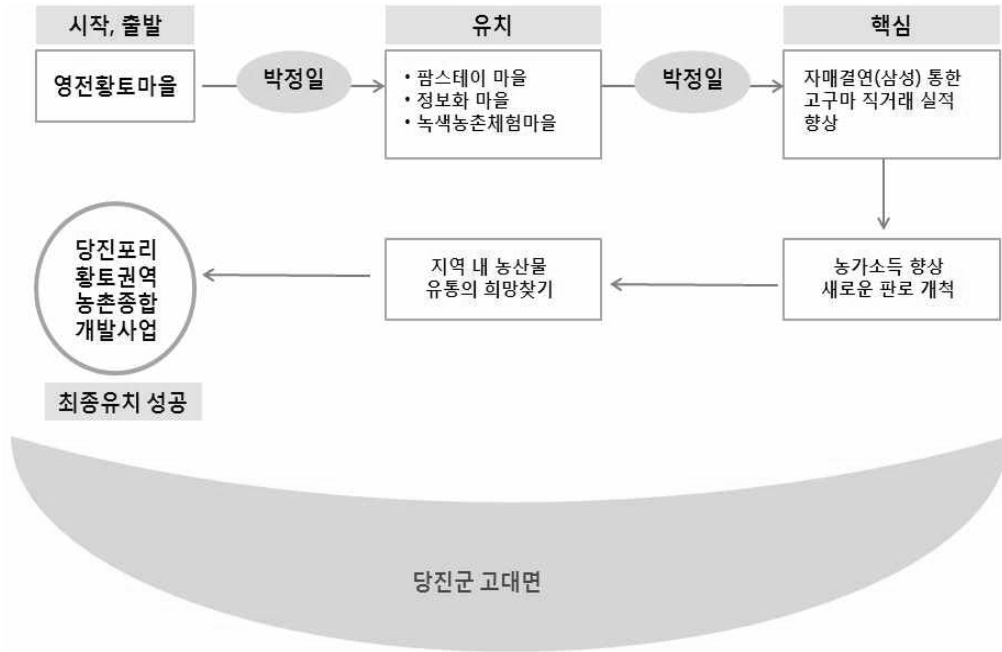
사업을 하는 원동력은 마을이 발전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주변인들에서 인정해주는 시선이 좋다. 이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주는 것도 힘이 되고, 주민들이 따라주니까 고마울 따름이다. 가장 힘들 때는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수상내역을 보면 뿌듯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당진군의 “우리마을 사랑운동”이라는 상을 수상, 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는데 거의 매년 받고 있다. 이것 말고도 시상을 많이 받고 있어서 기쁘다.

특히 농가개인들이 직접 연관이 있는 개별사업에는 관심을 줘도 공동사업이라고 하면 빠져버리는게 흔하다. 2005년 녹색농촌 지정되면서 2억 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추진이 잘 안되었던 것도 같은 이유이다. 대표자가 바뀌면서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주민들 반발, 내분 등도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농가 특징이 “개별사업이면 참여, 공동사업이면 불참”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합의가 너무 힘들었다. 돈이 되면 참여한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말을 바꾸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활동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근원은 충남권에서 체험마을 대표를 많이 만나고, 도청 및 농식품부와 지속적인 교류, 홈페이지(<http://youngjeon.invil.org/>)에 자주 진행상황을 게시하고, 농식품부, 농촌사랑연수원 등 여러 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할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다. 리더로서 추천받게 된 자평을 하자면 사람들을 진실로 대하는 것이다. 노인분들하고도 경로당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이를 통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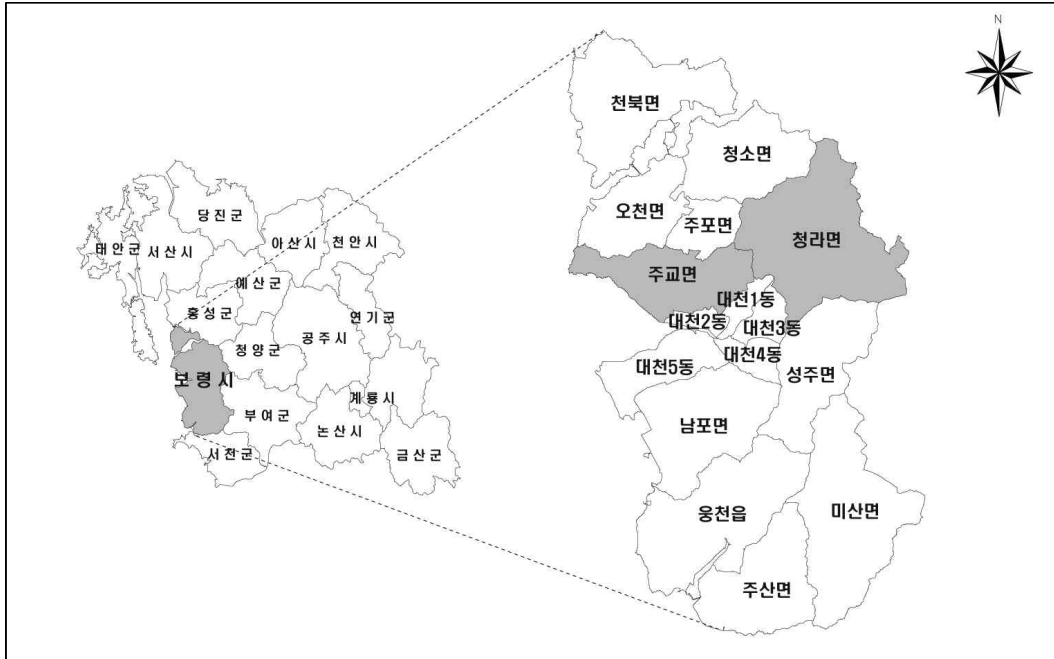
요약 및 시사점



〈그림 4-35〉 당진군 영전황토마을 박정일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6. 보령시

1) 보령시 개요



〈그림 4-36〉 보령시 행정구역도

보령시는 국토의 중서부인 충남 서해안의 남부에 위치하며,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을 비롯한 4개 군과 14개 읍면에 둘러싸여 있다. 북쪽으로 홍성군·태안군, 동쪽으로 청양군·부여군, 남쪽으로 서천군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114.9km의 해안선이 황해에 면한다. 유인도 15개도, 무인도 63개도의 총 78개의 도서가 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며, 국도 21호선, 국도 36호선, 국도 40호선, 장항선 철도 등이 주변지역과 연결되어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좋다. 뿐만 아니라 남한을 기준으로 서해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령시의 대천항은 서해안에서 가장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항구이다.

리아시스식 해안을 따라 발달된 대천해수욕장과 썰물시 1.5km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 해수

욕장이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7월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개최되고, 이 기간 중 국내외 관광객 수는 무려 250여만 명을 상회할 만큼 인지도가 높다.

보령시의 행정구역은 1읍, 10면, 5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235개 행정리와 101개 법정리, 1,20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령시의 총 면적은 569.01km²로 충청남도 전체면적의 6.62%를 점유하고 있다.

〈표 4-25〉 보령시 읍·면별 인구추이

(단위: 명, %)

	2000	2005		2009		
				남	여	구성비(%)
보령시	118,504	108,639	108,141	54,857	53,284	100
웅천읍	9,561	8,337	7,625	3,892	3,733	7.05
주포면	2,116	2,043	1,964	1,055	909	1.82
주교면	6,592	6,013	5,906	3,154	2,752	5.46
오천면	5,347	5,959	6,010	3,200	2,810	5.56
천북면	4,292	4,617	4,403	2,331	2,072	4.07
청소면	5,835	3,613	3,275	1,593	1,682	3.03
청라면	7,032	5,022	4,568	2,316	2,252	4.22
남포면	4,000	6,121	5,822	2,899	2,923	5.38
주산면	2,601	3,397	3,066	1,518	1,548	2.84
미산면	3,842	2,212	2,112	1,051	1,061	1.95
성주면	6,423	3,307	2,872	1,467	1,405	2.66
대천1동	16,292	15,948	17,197	8,571	8,626	15.90
대천2동	9,312	8,509	7,113	3,600	3,513	6.58
대천3동	11,545	11,211	13,428	6,741	6,687	12.42
대천4동	14,439	13,740	15,178	7,446	7,732	14.04
대천5동	9,275	8,590	7,602	4,023	3,579	7.03

자료 : 보령시, 보령통계연보, 각 년도.

2009년 현재 보령시의 세대수는 44,231 세대, 인구는 108,141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약 2.45명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세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 인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5%로 이 기간 동안 약 7,4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연령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연령층은 65세 미만이다. 반면, 세대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령시의 인구구조는 2009년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15,851명(14.85%),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청장년층 72,045명(67.49%), 65세 이상의 노년층 18,858명(17.66%)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 비율은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이 각각 106.82, 112.54로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노년층 68.33으로 여초 현상을 보인다.

보령시의 경지면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 10,049ha, 답 3,327ha이며, 이는 보령시 전체면적의 23.51%를 차지한다. 2009년 현재 보령시의 농가수는 9,219호, 농가인구는 23,523명으로 보령시 인구의 약21.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가수와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74%, -2.32%로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 농촌리더 활동내용

가. 임업후계자회 보령시지부 부회장, 농민회 부회장 이정학

총괄개요

- ◆ 분야 : 갈등해결, 축산업발전. 영농조합법인
- ◆ 리더추천사유 : 지역축산업 발전을 이끌고 양축농가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인물, 축산업으로 인한 지역내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및 봉합

개인사항



고향은 서천군 장항읍으로 올해 51세이다. 서울대 수의학과 졸업 후 서울 및 충북, 경기권 등지에서 축산기업에 근무(다비육종에서 2년, 선진축산에서 2년 근무, 총 4년 직장생활)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양돈장을 세워서 축산업에 대한 계획수립, 직접 양돈장운영을 하기로 맘먹은 뒤 농장하기에 적합한 땅을 찾던 중 보령

시 주교면에 약 2,800여평 우사를 짓게 된 것이다. 이 지역에 터를 잡은 이유는 그 당시 일반가정과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특별한 인가도 필요 없었고 대천생활권과도 가깝고 교통여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1991년에서 1996년 약 6년간 개인사업방식으로 운영하다가 7년차인 1997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사업장 현황으로는 양돈의 경우 은포리 돈사(서해1농장), 송악리 돈사¹²⁾(서해2농장), 한우의 경우 주교리(서해3농장) 우사, 홍성군 관내(서해4농장) 임대 우사가 있다.

축산업 규모 및 현황으로는 서해농장의 경우 양돈 7,000두¹³⁾, 한우 200두, 양돈의 주 출하처는 도드람이다. 연간 매출액은 약 40억원이고 서해농장 전 직원은 13명, 한우는 2명이 관리하여 총 15명 근무하고 있다. 1997년부터 법인형태로 전환하여 총 14명이 회원으로 있다. 사업종목은 종돈은 부가가치는 높으나 각종 질병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비육돈 체계로만 하고 있다. 그 외 보령농수축산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1명, 용역인력(영농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약 2억원에 이른다.

단체활동 직책으로는 보령시 농민회 부회장, 임업후계자회 보령시지부 부회장, 양돈협회 보령시지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업활동 직책으로는 영농조합법인 서해농장 대표이고 보령농수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양돈, 한우, 낙농, 경종농가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이기도 하다.

주요 사업은 액비유통센터 운영과 조사료 사업(볏짚, 사료, 청보리 생산) 등을 하고 있다. 1대 주주 자격이 있고, 주요 사업은 정액을 공급하고 약품 공동구매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2001년까지 충서도드람 양돈조합 영농조합법인 이사를 했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2002년에 임기가 끝나면서 양돈사랑을 만들고 다른 회원에게 넘겨주었다. 조합원은 약 6-7명으로 월급 1,000만원을 주고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하게 된 경위는 숲 가꾸기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림사업 및 조경사업 실시, 특히 딸이 조경학과에 진학하니 더욱 관심이 가는 분야이고 주력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업장 중 송악리(서해2농장)가 있는데 송악리 돈사 증축과정에서 마을이장과 갈등 겪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소개될 에피소드이다.

12) 송악리 돈사 증축과정에서 마을이장과 갈등 겪게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소개될 주요 사건이기도 하다.

13) 법인 회원들의 총 규모가 7,000두라는 것이고 전업농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농가들이 주 회원들이 되고 있다.

에피소드 : 갈등의 시작

1999년 12월 31일, 그 당시 30세에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지역탓새가 심해서 주변인으로, 객지인으로 취급받았다. 시작과 동시에 축산업 돈사가 혐오시설이고 외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과의 불화가 커졌고 마음고생이 심했다.

결국 2004년 서해 2농장 돈사 증축과정에서 마을이장이 선동하에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후 2006년 8월에 환경법에 저촉된다고 집단민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비가 많이 오면서 파이프라인이 터졌고 이 과정에서 빗물과 분뇨가 섞여서 마을로 독으로 흘러나오게 되었는데 이 당시 홍주미트에서 근무하는 전무가 분뇨처리 미숙과 실수를 인정해 사과하였고 이와 동시에 향후 추가 증축시 마을주민과 사전 합의하기로 약속하는 등 농장업무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추가 증축으로 마을개발운영위원회 개최를 희망한다고 이장에게 제안하였고 이 과정에서 감정다툼이 번지기 시작하였고 마을내에서 경쟁 및 갈등관계 시작되게 된 것이다. 이미 시설자금은 배정받은 상태여서 다시 거스를 수는 없는 상태였고 이장이 마을사람을 조직하고 규합해서 반대의 소리를 낮추는 목적으로 이 부회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2006년 소송을 당하고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다. 특별법인 환경법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제기불능상태라는 혐의를 받았다. 통상 가축분뇨처리법 상이면 저축이 안 될 수준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환경법에 저축을 받게 되어버린 것이어서 상황이 심각¹⁴⁾해졌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사무실 처리 및 뒷수습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꽤 유명하고 강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기로 하였다. 처음 구속시부터 법 기준 적용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좀 힘들겠다는 변호사의 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처한 변론방법으로 토양오염만 부정하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토양은 재생이 가능해 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힘든 법적 공방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가축분뇨처리법으로 최종 해결을 보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약 1개월반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으니 그 당시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었던 것 같다.

20년이 지난 후인 지금은 은포리 주민들이 인정해주고 주민과도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어

14) 참고로 가축분뇨처리법은 통상법으로 처벌기준이 좀 완화된 편이지만 환경법은 특별법으로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 마을의 청년회장직도 수행하고 있을 정도이지만, 여전히 법적싸움으로 번지게 된 해당농장의 마을인 송학리 주민들은 여전히 인정해 주지 않고 있었다. 송학리 이장에 대한 미움은 컸으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들었고 스스로 용서하기로 맘을 먹었다. 하지만 구속되기 전 이장이 경운기 사고로 경미하지만 부상을 입었고 반대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나머지 1명은 자살을 하여 동네에 불길한 전운이 한때 마을에 감돌았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자 송학리 주민들이 더 미안해하고 미움과 갈등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장이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소유하고 집단민원시 이를 활용하는 등 폐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주교면의 송학리에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협회를 결성하고 1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8명 남았다. 표면적인 갈등은 없으나 축산업 종사자간에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타협을 하고 맞춰가고 있다. 개인적인 선물은 하지 않고 지역의 공식행사에는 무조건 참가하여 의향을 표시하면서 지내고 있다. 일례로 마을행사인 면민화합잔치, 각종 축제, 대동제, 시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에는 돼지를 현물로 제공하는 등 1면에 1년에 수십마리의 돼지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을공동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0월 면 잔치 때에는 3마리를 제공, 시가로 150-16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매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고 있다.



농장사무실



농장전경



농장입구

〈그림 4-37〉 보령시 서해농장 전경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핵심가치로는 인력양성, 후학양성이다. 동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망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욕심을 버리자는 주의이다. 삶의 가치는 갈등해소를 통한 농업분야의 공동의 가치 실현이다. 기술을 공유하고, 구성원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실현하고 있다. 조직화, 공동체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타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축산발전의 기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민 등 외부세력과 거부감에 대응하는 에너지에 많이 투입하는 바람에 이것은 크게 보면 개인손실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큰 것이기에 이런 소모적인 에너지를 공동의 발전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게 된 계기도 조직화가 중요하고 공동체화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개인농장보다 법인으로 전환한 것도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혼자하지 못하는 일은 공동으로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직원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수익도 공동배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인의 회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도 큰 보람이다. 예를 들면 홍성의 나눔농장, 푸른들영농조합법인, 양돈사랑영농조합법인¹⁵⁾, 보령 청소면의 만해농장, 군산의 행복한 농장 등등이 모두 서해농장 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이었다.

법인의 사업방식도 특이한데 주주도 직원, 수익도 투자지분에 따라 배분, 1조합원 1주권(법인 의결권)을 가진다. 직원이 농장직원(일과시간에 업무, 지휘통제, 회사에 기여)이면서 조합원(조합원 총회의 구성원), 투자자, 이사(이사회 일원, 구성원이며 의결과정에 참여가능)이기도 한 구조인 것이다. 현재 법인은 도드람조합으로 60%, 지역의 육가공업체로 30%, 지역내 정육업자 10%, 기타 거래처로 출하하고 있다. 출하처별 다른 상품의 스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처를 분산하는 게 더 낫고 위험을 분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위탁사육(비육돈, 돈사, 돈사관리 운영인력)방식을 채택, 법인은 사육장 관리, 거래계약, 농가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해농장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계약부터 위탁사육 관리까지 모두 일괄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노하우를 위탁사육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 특히 법인 성격이 농장장=주인=직원=주주의 공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격

15) 양돈사랑은 2000년 설립한 법인으로 조합원이 모돈위주의 자돈을 구매하기 위해서 위탁사육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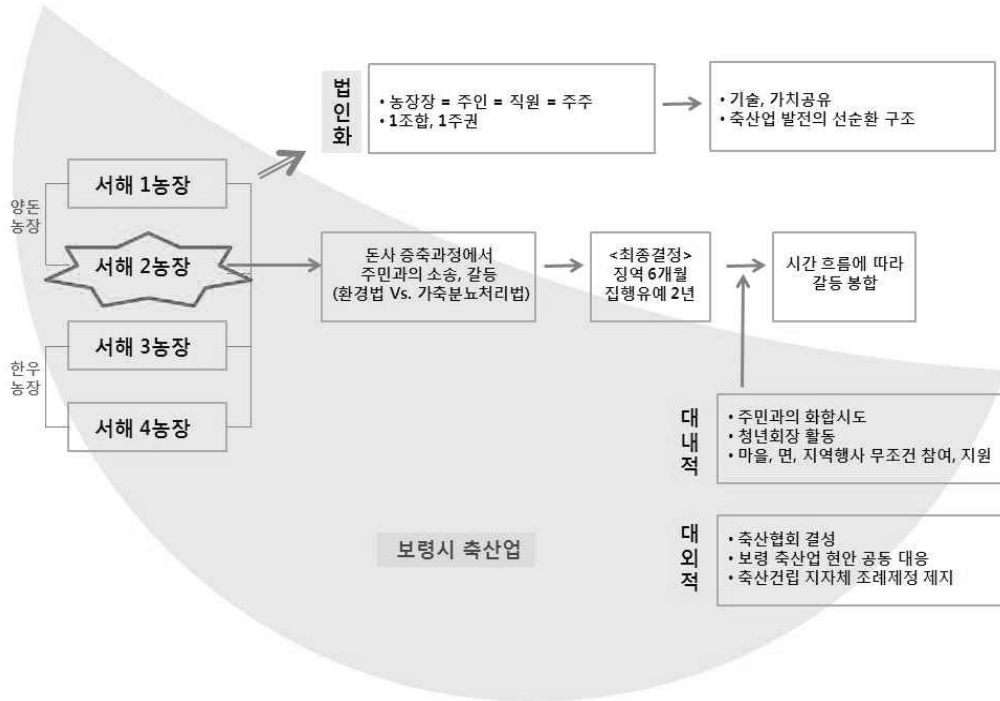
렬히 반대했던 것 같다. 그 중에 지금 양돈사랑 법인 대표가 가장 반대했으나 지금은 독립하여서 그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면 그게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보령 지역내 현안은 관광업을 중시하다가 보니 상대적으로 농축산업의 관심에 소홀한 편인데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발전방향으로는 1차 산업에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내 농축산물을 지역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로컬푸드)를 실행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상 주민간 화합, 불신이 가득하고 경험들이 부족, 행정에 대한 불신도 큰 편, 리더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은 첫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본인의 희생정신이 가장 중요, 둘째, 성실성,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고, 셋째,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줄 알아야 하고, 넷째, 건전한 상식은 필수이며 자신의 분야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하고 다섯째 탁월한 식견이 아닐지라도 구성원 의견을 청취하고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대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와 적극적인 설득과정을 통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다고 생각되면 구성원을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결 의견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합원 중에 1명이 안하겠다고 하면 조직의 방향과 생존을 위해서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결단과 소신도 필요한 것 같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한우 및 양돈의 판매 및 유통사업 시장 진출 계획에 있다. 고기판매도 이제는 얼굴있는 상품을 판매해야 생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기존 법인을 새롭게 정비하여 재탄생시키는 제2의 법인 창립 중이다. 그리고 축사신축 저지법 등 조례 제정 반대도 할 예정이다. 축사건립 규제관련 지자체 조례제정 제지 중에 있다. 현재 환경법에 의해 축사 300-500m 이내 가정주택 5가구 이상 있을 때에는 건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어서 축산인간 저지투쟁을 계획 중인 것이다.

요약 및 시사점



〈그림 4-38〉 보령시 이정학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은행마을 추진위원장 김청한

총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농촌체험관광, 전통은행나무, 농외소득 창출 ◆ 리더추천사유 : 농촌체험관광마을 성공사례, 지역주민 화합도모

지역특징

청라면은 보령시의 동북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이 69.88km²(보령시의 12.5%)이다. 이 중 약 75%는 산지로 이루어진 보령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며, 충남의 명산 오서산과 성주산에 둘러싸인 인구 약 5,000명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1개, 행정리 21개, 82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라면은 전통 은행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분지여서 춥고 더운 지역인데 일교차가 커서 은행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은행은 개량종이 아닌 순수재래종이지만 개량종이 시장시세는 더 좋다.

청라면¹⁶⁾은 1914년 (원)청라면과 오삼전면이 통합되면서 지금의 청라면이 되었으며 청라는 쪼과 담쟁이가 많고 오삼전은 오서산 자락에 3마지기의 산삼밭이 있어 불리워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양반이 많고 돌이 많고 본받을 만한 말이 많은 고장이라 하여 삼다향이라 일컬어지며 인심이 넉넉하고 산자수명하고 살기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청라면 장현리에는 3만 3천여평의 계곡형 저수지인 장현지가 있는데 산세가 수려하고 수심이 깊으며 주위가 조용하여 아늑한 곳이다. 7~8치 토종붕어가 주종을 이루고 붕어와 잉어는 맑은 수질 영향으로 건강하여 서식밀도가 높다. 과거에는 오서산 밑에 불리를 만큼 넓은 뜰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주민들의 품성도 넓고 넉넉한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다. 또한 돌이 많아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하여 농작물 재배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은행나무가 많아 청라면 전체의 은행농사 규모는 연간 1,000여주, 100여톤, 나무당 100kg 출하가능하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개량종만

16) 청라면과 장현리 내용은 은행마을 홈페이지에서 발췌 정리하였음(<http://www.은행마을.org/>)

인정해서 재래종 시세는 물량이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된다. 100여톤에 이르는 생산액 규모가 고작 몇 천만원 밖에 하지 않는 것이다. 몇 십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나 kg당 1,500원으로 상인에게 출하하니 가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을에는 은행과 단풍으로 아름다운 마을이며 은행을 많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건강하시고 젊은 활력을 갖고 계신다.

은행마을은 행정구역상 장현1리로 되어 있으나 은행나무가 많아 은행마을로 불린다. 총 가구수는 54세대 107명으로 남자 55명, 여 52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은행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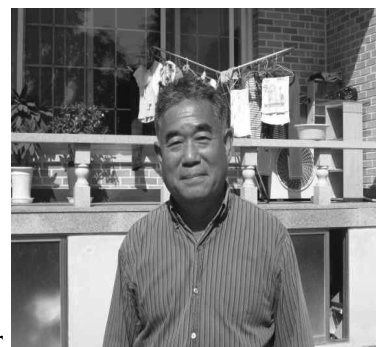
은행 수확장면

〈그림 4-39〉 보령시 청라면 은행마을 전경 및 은행 수확장면

자료 : 청한농장 홈페이지 및 은행마을 홈페이지

개인사항과 농사를 하게 된 계기, 활동

- 이름 : 김청한
- 나이 : 60세
- 주소 : 보령시 청라면
- 농장명 : 청한농장
- 마을명 : 녹색농촌체험마을 은행마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은행마을.org/>
- 개인농장 홈페이지 : 은행토마토.kr, 은행과즙.com, 은행과즙.kr



김청한 씨의 고향은 보령시 청라면으로 지금도 여기서 등지를 틀고 살고 있는 본토박이다. 나이는 60세로 대천 중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978년부터 농사를 시작하였다. 논농사, 밭농사,

한우 등 농업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다. 이후 중간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하기도 하였다. 농사규모 및 현황으로는 은행가공시설, 선별 및 포장시설이 있고, 영농조합법인 3개 운영 중이다. 방울토마토 및 파프리카 수출 등도 일부 했었다. 시설채소 3,000평으로 보령시에서 최고면적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의 은행농사 규모는 1년에 총 5톤가량, 1,000만원 매출액 정도이다. 개인농장으로 청한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청정농업이 한수와 은하수처럼 영원히 발전하라는 뜻으로 이름과 동일하게 청한농장이라 지었다.

개인사업 현황으로는 은행을 임상적으로 실험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연구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은행의 효능은 천식, 혈액순환, 말초신경계 병까지 고쳐주는 효험이 있는 산물로서 예를 들면, 드럼통 1포대 자루에 쥐2마리를 6개월 동안 가둬놓고 은행만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각종 병에 걸리지도 않음을 확인하였다. 염소, 야생동물, 너구리 등 은행잎을 엄청 좋아하는 식물이다.

이처럼 좋은 은행을 동네소득원으로 해보자라는 마음에 3년전 수매시작해서 은행과즙도 만 들고 있고 체험마을사업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은행과즙은 호흡기질환에 매우 좋아서 80kg 1가마에 1그릇밖에 나오질 않는 귀한 상품이기도 하다.



개인 은행나무



재래종 은행



친환경농업단지

〈그림 4-40〉 보령시 청라면 재래종 은행 및 개인 농장

농사경력 및 현황으로는 10남매 중 본인은 장남으로서 가계업을 이어가는 것이 소임이었다. 1978년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하면서 규모를 확대(경지면적도 확대, 한우도 15마리 입식 증가) 하고 1990년 점차 벼농사가 위축되는 분위기여서 시설채소로 점차 전환하던 중에 비닐하우스 1동에 200평짜리 규모를 지어서 시설오이를 처음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정부지원으로

마을 7~8명이 공동으로 3,000평 유리시설을 지원신청하였다. 품목으로는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당시 오이 1박스당 가격이 10,000원이었고 순이익은 총 500만원 수준이었다. 하우스 단지 설치지원비는 보조 40%, 자부담 60%이어서 5명이 최종 지원하고 3,000평을 공동으로 지었고 4명은 1,500평, 본인은 혼자 1,500평을 경작하였다.

첫 해에 오이의 순이익 1,000만원 정도 나왔으나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나고 나중에는 오이에 몰릴 정도였다. 1994년에는 농협새농민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친환경(무농약)오이를 풀무생협에 납품, 연간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납품으로 시작하였다. 1999년 수경재배로 전환하면서 1,500평에 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00년 폭설로 인해 오이재배하우스는 주저앉아버리고 결국 4,500만원을 보상받아서 복구비로 사용하면서 끝났다. 이듬해 동생도 은행사업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망하는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

2001년 2억원을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다시 수경재배를 1,500평에 시작하고 나중에는 1,800평으로 규모를 확대, 계속 적자운영이 지속되어서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가지, 고추, 파프리카 등 여러 작물을 재배하였다.

2008년 4억원의 빚이 누적되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규모를 확대하여서 총 2,600평까지 확대하였고, 경영회생자금을 받아서 토지공사에 7,000평~8,000평 매각하여 빚을 처분하였다. 지금의 자산수준은 총 10억원 규모, 그 이후 계속 농산물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계속 빚이 누적되는 등 악순환 반복하였다.

2009년~2011년 농자재비 가격상승으로 인해 누적 빚이 1억원 가량이 다시 발생, 5년 뒤에 갚으면 매각했던 7,000평~8,000평의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자신이 없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하우스 농사는 필요할 때에만 짓고 본격적으로 은행사업으로 전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특허를 다수 보유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각종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납품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은행잎과 무화과 잎을 이용한 친환경 농약개발, 은행과즙(농업기술센터 보조지원)을 이용한 친환경살충제 개발, 집진드기제 개발, 새집증후군이 있는 집에 은행과즙 이용한 친환경농약뿌리기 등 인체 무해한 제품 개발, 은행식초 등이다. 작년에 하면서 약간 실패하였으나 사업은 쉬운 게 아니고 고려해야할 요소가 생각보다 많음을 깨달았던 것 같다. 현재 은행과즙 및 은행식초 납품에 필요한 선별 및 포장시설 완료하였고 전부 개인이 투자하였다.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이에 맞는 판로의 개척 활성화. 즉, 은행껍질은 퇴비로서 활용, 은행 알맹이는 과즙과 식초 형태로 가공상품화(이미 2010년에 시범사업 한 결과 kg당 1,500원시세에서 kg당 2,500원까지 상승한 결과 발생)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

농장 개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방울토마토, 오리쌀, 토종은행가루, 토종은행, 은행과즙, 은행식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활동사항 : 은행마을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도전에 성공, 폐교를 재탄생

은행마을로 유명해진 계기는 예전에는 동네전체가 10가구 미만이어서 가구당 채래중 은행나무를 1~2그루씩 심었던 것이 시초이다. 은행나무 암수는 재번식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계속 논두렁이든 마당귀퉁이에 은행나무를 계속 심어서 40-50그루를 키웠는데 이 중 절반정도 결실을 맺은 것이다. 1970-80년대에는 쌀한가마(80kg)당 가격일 때 쌀 50가마 가격에 해당하여 고소득작물이었다.

아버지가 ‘나무를 선물하는게 영원’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키운 은행나무 묘종을 무료로 마을 주민에게 배분하면서 청라면이 자생적으로 채래중 은행마을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지금의 예산과 공주는 개량종단지이자 계획된 단지이면 청라면은 토종, 자생적, 자연적 단지인 것인 것을 보면 그때의 그 결정과 실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 모른다.

2009년에는 폐교인 장현초등학교(17)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체험마을을 생각하게 되면서 마을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녹색농촌체험마을(은행마을) 사업에 공모하였고 본인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역특색을 살려서 도농교류, 직거래를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마을의 특징인 ‘은행’을 주제로 삼아서 하게 된 것이다.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빛이 있지만 은행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인데 사람들 인식으로는 은행은 비싸고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라고 인식함으로써 은행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에 우려가 많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는데 힘들었던 것 같다.

17) 1967년 7월8일 개교한 전)장현 초등학교는 학생수 500여명이 넘는 시골학교의 규모로는 비교적 큰 학교였으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1991년 폐교되었다. 그 후 청소년 수련원으로 1999년까지 활용되었으며 2004년까지 보령지역 학교 교수 재활용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2006년 매각되어(조구형) 2011년부터 장현리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농어촌 자원봉사 개발 및 교육과 농촌체험, 직거래 장터 등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신청하여 농식품부로부터 2011년 최종 선정받아 오늘날과 같이 재탄생 되었다.(출처 : 은행마을 홈페이지)

체험마을 진행과정은 장현리는 총 55가구 정도로 장현리장, 지도자연구회 대표도 역임했었다. 2006년부터 체험마을 사업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2008년에 선정되고 마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실행과정에서 주민간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에 사람을 모으기가 정말로 힘들었는데 55가구 중에서 절반도 모으기가 힘들었다. 2009년에 다시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기를 결정하면서 2010년 재도전하고 2011년에 다시 사업확정 승인을 받았다. 폐교의 소유주가 사업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았으나 어쨌든 최종적으로 마을가구 전원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설득과정은 사람들이 회의할 때의 말과 나중에 말이 달라져서 계속 문서화를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는 일을 할 정도로 주민들과 진행과정이 힘들었다. 장현초등학교의 소유주는 서울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농촌생활을 하기로 한 귀촌인구인데 이 소유주가 10년동안 학교를 임대해주기로 결정하여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년 약 3억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업비를 기본경비로 감당할 수 있으나 운영비 등에서 부족하여 실제로는 5천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표 4-26〉 보령시 은행마을 사업 추진경과

- 2009년 12월 주민 총회에서 공동사업 추진 결의
- 2010년 1월 30일 농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신청서 제출
- 2010년 3월 15일 장수의 하늘내 들꽃마을 현장견학 실시
- 2010년 5월 지역주민 사업 설명 및 교육
- 2010년 6월부터 5차례 회의
- 2011년 2월 최종사업 승인
- 2011년 3월 중순 폐교 개보수 설계서 착수
- 2011년 3월 말 폐교 개보수 설계승인(보령시청)
- 2011년 3월 말 개보수 시공사 선정
- 2011년 4월 6일 개보수 착공
- 2011년 6월 말 완공승인
- 2011년 7월 은행마을 녹색농촌체험 사업 첫사업 개시

자료 : <http://www.은행마을.org/>

은행마을의 사업내용으로는 ① 도농교류 자원봉사 단체 자매결연, ② 아동과 청소년 농촌 체험, ③ 농촌의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산, ④ 농촌 자원봉사활동 실천현장 개발 사업, ⑤ 도농직거래 장터개발, ⑥ 농촌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전개, ⑦ 자원봉사 관리자의 재충전 기회마련, ⑧ 농촌 자원봉사로 공동체 마을만들기 모형개발 등이다.



은행마을 입구표지



은행마을 폐교의 재탄생



은행마을 내부시설

〈그림 4-41〉 보령시 은행마을 폐교와 시설내부

수익은 체험비를 1인당 5,000원으로 하고 이를 마을기금으로 활용할 예정, 10%만 학교로 적립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농가방문해서 두부만들기, 방울토마토 및 파프리카 수확 체험 등이 있다. 운영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은 모든 돈 흐름을 위원장이 관리하고 책임을 맡게 되었다. 체험활동은 실제로 관광객은 원하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표 4-27〉 보령시 은행마을의 체험프로그램 내용 소개

연중프로그램	계절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도자기만들기 ○ 두부만들기 ○ 향토염색, 야생초염색 ○ 은행빵만들기 ○ 토마토비누, 화장품만들기 ○ 대나무피리만들기 ○ 숲속음악회 ○ 인절미만들기 ○ 청국장만들기 ○ 은행가루와 깐은행을 이용한 먹거리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 씨뿌리기, 오리/우렁이/미꾸라지 방사, 감자심기 ○ 여름 : 산양체험, 고구마심기, 야생화체험, 메뚜기/미꾸라지 잡기, 감자캐기 ○ 가을 : 별자리 관측, 야생화체험, 고구마 캐기,콩/수수/은행수확, 도리깨질, 절구방아 체험 ○ 겨울 : 별자리관측, 김장담그기, 고추장/된장만들기, 팔죽쑺기

자료 : 은행마을 홈페이지

추진 중 애로사항은 은행 전량수매하려해도 협조가 잘 안되고 악성루머만 퍼뜨리고 다닌다. 수매지는 청양 및 공주농협, 청라농협도 하다가 이젠 사업하지 않을 정도이다. 주민간 사업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까지 협조가 여전히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험마을 운영현황은 2011년 7월에 개장하여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다녀갔다. 시설로는 건평 250여평 되는 폐교를 황토방으로 전부 구성하고 식당, 조리실, 운동장, 공동회의실 등이 있다. 숙박, 교육장, 식당, 회의실, 세미나실, 농산물 판매장 등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고, 체험프로그램, 어린이용 시설과 체험학습장이 부족한 것이다. 숙박업은 냉난방, 화장실, 쉼터 등 콘도형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은 제조허가 없어도 가능하나 식당은 필요하다. 아직 학교내 식당시설이 미비하여서 구축하려고 하나 현재 허가문제로 난항 겪고 있다.

앞으로 은행에 모든 것을 걸 계획이다. 즉, 지인들과 동업하여 은행가공사업, 하우스 내에서 은행 건조장 시설을 갖추 계획이고 모든 음식에 은행을 넣어서 만드는 메뉴아이템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체험마을 사업과 학교사업 법인화 대표직 수행하면서 55가구가 연간 3억원 매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1가구당 600만원 농외소득 창출 목표로 하게 된다.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농업농촌의 현실은 외국인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유류비, 난방비, 전기세, 비료와 농약 등

자재비를 포함하면 한달에 약 700-800만원 유지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구조이다. 마땅한 후계인력이 없는 것도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은행마을이 은행을 통해 새로운 활력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재래종 은행 판로개척이 시급하다.

2011년 서울과 광주의 모업체에 생 은행 최대량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은행겉질은 퇴비로 이용하고, 마을에 있는 은행을 수매하고 선별, 포장만 해서 납품하기로 시도도 하고 있다. 은행도 무농약 재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¹⁸⁾ 획득 필요하다.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마을개발사업의 위원장을 맡은 본인자신 소신이 특별히 없지만 리더나 대표와 같은 직책이 있는 자리는 싫고 농사에 전념하고 싶은 게 간절하다. 각각의 역할이 있기에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해야 하고 마케팅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도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는 길에 최대한 내부여건 및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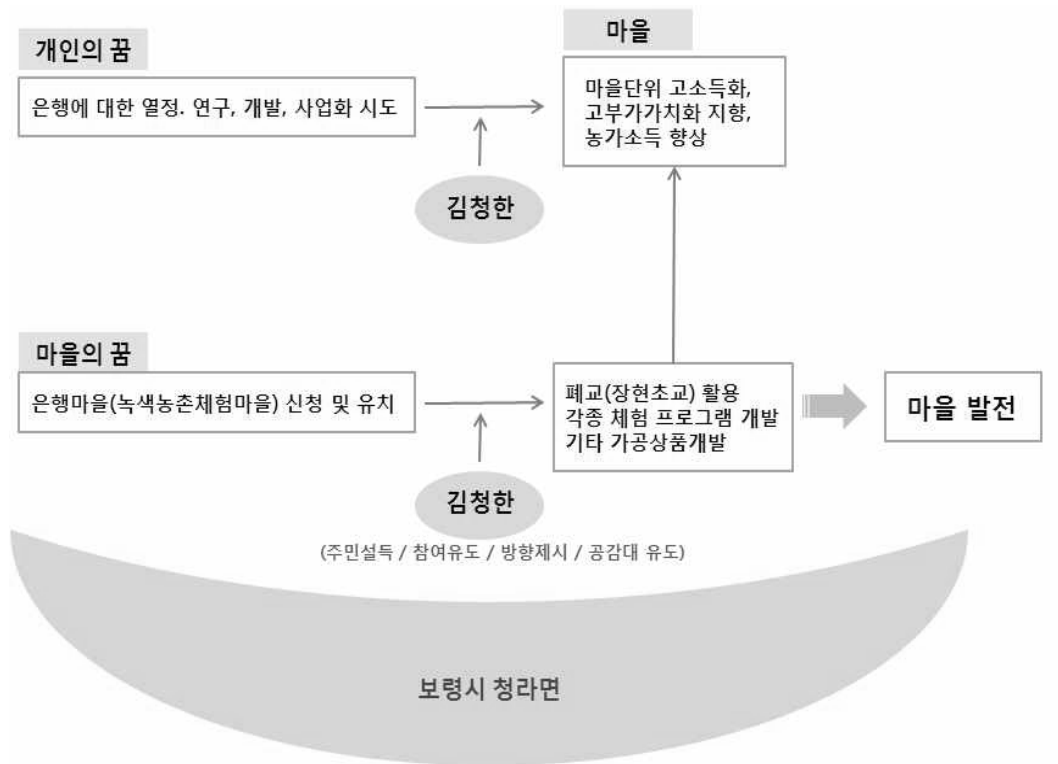
그리고 본인 농사를 하면서의 운영철학은 있다. 첫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자,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중간마진을 없애자, 셋째,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자라는 것이다. 개인 비전으로는 은행을 가지고선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요약 및 시사점

김청한 위원장은 개인의 꿈과 마을의 꿈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꿈은 청라면 전통은행에 대한 열정을 토대로 끊임없는 상품개발에 대한 연구, 사업화를 시도하여 재래종 은행의 가치를 알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자 하였다. 이로서 마을단위 고소득화 대안마련, 고부가가치화 지향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꿈도 폐교를 재탄생, 마을의 소중한 자원인 은행과 연관지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사업초기년도 개장결과는 무난히 신고식을 마쳤다. 결국 이모든 것이 보령시 청라면 장현1리 마을발전으로 귀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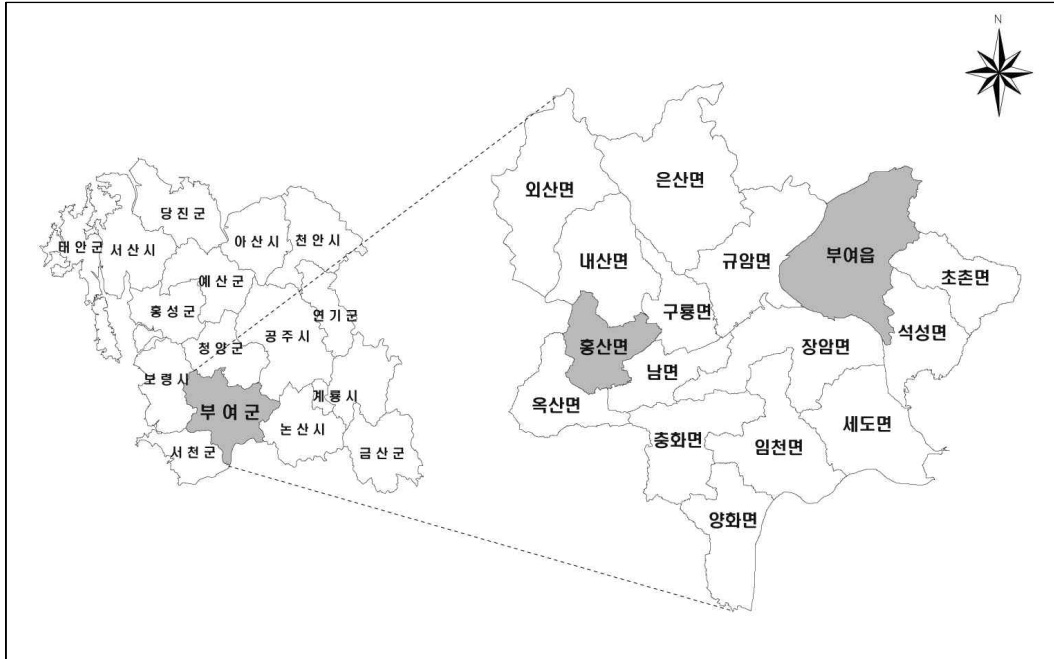
18) 참고로 장현리는 보령시에서 2번째로 오리농법으로 친환경농사를 시작한 곳으로 주작목은 쌀, 배추, 은행 등이 있다.



〈그림 4-42〉 보령시 은행마을 김청한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7. 부여군

1) 부여군 개요



〈그림 4-43〉 부여군 행정구역도

부여군은 충청남도 서남부에 있는 군이다. 북으로는 청양군, 동으로는 공주시와 논산시, 서로는 보령시, 남으로는 서천군과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북도 익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부여군의 행정구역은 1읍, 15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32개의 행정리와 191개 법정리, 1,686개 반이 있다. 부여군의 총 면적은 624.67km²로 충청남도 전체면적의 7.26%를 차지한다.

백년 이상 백제의 수도 역할을 한 부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백제의 유물과 유적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지로서 매년 10월 초·중순에 공주시와 합동으로 종합예술제 성격의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삼국시대 부여의 명칭은 사비이며, 사비는 백제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538년)로 바꾸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이후부터 백제 수도였다(사비시대 : 538년~660년).

〈표 4-28〉 부여군 읍·면별 인구추이

(단위: 명, %)

	2000	2005		2009		
				남	여	구성비(%)
부여군	92,842	81,430	76,295	38,144	38,151	100
부여읍	29,234	26,393	24,832	12,377	12,455	32.55
규암면	10,449	11,139	10,957	5,563	5,394	14.36
은산면	5,809	4,745	4,554	2,249	2,305	5.97
외산면	3,829	3,217	2,884	1,437	1,447	3.78
내산면	2,457	2,067	1,880	937	943	2.46
구룡면	3,857	3,061	2,772	1,355	1,417	3.63
홍산면	4,651	3,804	3,577	1,765	1,812	4.69
옥산면	2,152	1,765	1,669	799	870	2.19
남 면	3,158	2,460	2,237	1,058	1,179	2.93
충화면	1,862	1,547	1,410	696	714	1.85
양화면	2,976	2,390	2,120	1,030	1,090	2.78
임천면	4,682	3,876	3,491	1,739	1,752	4.58
장암면	4,220	3,576	3,306	1,712	1,594	4.33
세도면	5,393	4,504	4,090	2,083	2,007	5.36
석성면	4,524	3,907	3,723	1,939	1,784	4.88
초촌면	3,589	2,979	2,793	1,405	1,388	3.66

자료: 부여군, 부여통계연보, 각 년도.

2009년 현재 부여군의 세대수는 31,590세대, 인구는 76,295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약 2.42명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세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7%, 인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세대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청장년층의 인구유출로 인해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읍면별 인구는 부여읍이 24,832명으로 전체의 32.55%, 규암면이 10,957명으로 전체의 14.36%를 차지하고 있어 두 지역에 부여군의 약 50%의 인구가 거주한다.

부여군의 연령별·성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농촌형을 보인다. 연령별 인구구조는 2009년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9,388명(12.30%),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청장년층 47,576명

(62.36%), 65세 이상의 노년층 18,600명(24.38%)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소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2배 가량 높으며, 노년층의 구성비가 전체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성별 인구구조는 청장년층의 성비가 114.08로 남초현상이 나타난다.

부여군의 경지면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 14,536ha, 답 3,043ha이며, 이는 부여군 전체면적의 28.14%이다. 2009년 현재 부여군의 농가수는 11,211호, 농가인구는 29,050명으로 부여군 인구의 약 38.0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가수와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90%, -2.36%로 전체 인구감소율보다 더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표 4-29〉 부여군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단위: 호,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농가수	12,071	11,728	11,363	10,890	11,211	-1.90
농가인구	31,876	31,066	29,604	29,182	29,050	-2.36

자료: 부여군, 부여통계연보, 2010.

2) 농촌리더 활동내용

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여군지부 최병국 회장

총괄개요

- ◆ 분야 : 농업기술선도 · 전파 · 확산 · 선진화 기여, 지역농업과 농촌발전
- ◆ 리더추천사유 : 버섯신기술 도입과 전파, 확산시도, 농업인 의식수준 한단계 업그레이드

지역특징

홍산면은 부여군청으로부터 17.5km 서편으로 떨어져 있으며, 남쪽에는 남면, 서쪽에는 옥산면, 북쪽에는 내산면, 동쪽에는 구룡면과 접하고 있다. 내륙 준평야 지역으로 벼, 인삼과 더불어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는 딸기 등을 통해 농업의 소득을 올리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2011년 현재 면적은 23.9km², 세대는 1,528가구, 인구는 3,493명로서 법정리 10개가 있고, 행정리는 25개, 반은 102개가 있다. 법정리에는 교원리, 남촌리, 무정리, 북촌리, 상천리, 정동리, 조현리, 좌흥리, 토정리, 홍양리가 있다.

홍산면의 총 세대수는 1,536세대, 인구수는 3,577명으로 부여군 전체 대비 약 4.7%를 차지한다.

〈표 4-30〉 부여군 홍산면 인구현황(2009)

(단위: 세대,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부여군	31,590	76,295	38,144	38,151
홍산면	1,536	3,577	1,765	1,812

자료: 부여군, 부여통계연보, 2010.

개인사항



최병국 회장은 48세로 고향은 부여군 홍산면(본 토박이)이다. 거주하고 있는 곳도,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부여군 홍산면이다. 직책으로는 2010년 대외협력부장, 2011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여군지부 회장, 2011년 부여군 관내 8개농민단체협의회(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생활개선회, 4H회, 쌀전업농 등) 회장, 농업발전심포지엄 의장, 농식품부 선도농업인으로 지정(전국 45명 중 부여군에만 3명)받았다. 그리고

선도농교수협의회 회장, 부여군 농업발전연구회 회장(농수산대학)을 맡고 있다.

고교 졸업 후 타지에서 직장생활 했었다. 그러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20대 후반 부모님 권유로 벼짓재배 농사를 하게 된 것이다. 29세에 한국농수산대학(구 한국농업대학)에 1회로 입학하여 특용작물학과 입학(벼짓학과 장유진 교수 1호 제자), 2학년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실제 연구를 보조하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 3학년에는 졸업하는 과정을 거치며 농업에 눈을 뜨게 되었다.

30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버섯재배업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서 지금의 면적인 1,000평을 농사짓고 있다. 30-40대는 농협 강사로도 활동하고 버섯연구회 회장, 작목회장, 충남버섯연구회 활동하고 40대 초반부터 외부활동을 시작, 대학 동창회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오고 있다.

개인 본인의 농사규모 및 현황으로는 느타리버섯 1,000평, 약 8동을 보유, 수확실과 관리실 보유, 농식품부 지정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선도농업인은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본인도 운영하여 주로 농고생과 농대생을 대상으로 생산기술 교육 및 실습하고 있다.

인사말 및 업체소개



저희 업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고향의맛,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버섯들농장**입니다.

바다는 태풍이 불어야 깨끗해지고
하늘은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야 깨끗해지며
겨울이 추울수록 이듬해 봄에 피어나는
꽃이 더 밝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자연을 시계삼아 하루 열심히 일한 정직한 맘의 결실
건강한 먹거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업체가 전달하는 먹거리는 **느타리버섯**입니다.

저희 업체를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
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버섯들농장 대표 최병국 올림

〈그림 4-44〉 버섯들 농장의 홈페이지

자료 : <http://creator1.farmmoa.com>

- 운영자 성명 : 최병국(mushworld@hanmail.net)
- 지역 : 충남 부여군 홍산면 토정리
- 환경관리 기자재 투입 등 버섯재배 최적시스템 완비
 - 1,000평의 부지에 전업농 규모인 조립식 버섯재배사 5동(균상면적 300평) 신축
 -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축시 느타리버섯, 양송이, 새송이 등 각종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
 - 재배사마다 7.5마력의 냉동기, 이중수막시설, 단열재 사용 등으로 온도, 습도, 환기가 자동화장치에 의해 연중버섯의 생산 최적시스템의 시설 완비
 - 자동입폐상기를 도입 인력대비 75%의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
- 철저하고 체계적인 경영기록 및 분석 : 자체개발한 엑셀프로그램에 온습도, 출하시세, 기타비용, 영농추진상황, 문제점 및 영농반성 등을 빠짐없이 기록 실패 답습 최소화
- 미래를 준비하는 버섯 전업농 : 버섯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AFFIS,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업인 정보화사업 교육을 이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 Cold-Chain-System과 “버섯뜰”의 세계화 : 버섯을 생산-선별포장-저장-출하-수송-진열까지를 냉장으로 엮은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추고, 종균과 배지도 자체생산, 명품 브랜드화 사업준비

지역내 농업현안으로는 굿뜨래 (부여 8미 : 수박, 메론, 밤,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 쌀, 등) 브랜드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전국 생산량의 8%로서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작피해가 심해서 지력이 고갈되고 생산량 저하, 면역력 저하,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서 부여군 농업근간,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경영인연합회 부여군지부 주관으로 농단협 발족한 것이다. 농단협에서는 최근 부여군 농업발전 심포지엄에 관한 용역을 농업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 중에 있다. 각 사업별 정책방향(쌀, 축산업, 친환경, 시설채소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행 중, 부여군 농업 발전방향 설정을 위해 현황과 문제점, 대안제시를 하고 논의 예정이다.

리더로서 칭송받는 큰 두 개의 사건이 있다. 하나는 한농연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사후관리와 나머지 하나는 자발적인 참여로 지어진 농업인 건물인 경영인 회관을 유치하고 지켜낸 것이다.

활동 1 : 한농연 전국대회 개최

여기 한농연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 2010년 한농연 전국대회를 8월에 유치, 군지원과 전문심사단의 평가를 받고 행정절차적 진행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 내 농업분위기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5월에 전임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유치를 신청하였고 본인은 이를 챙겨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6-7월에 심사평가시에는 대회를 유치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어서 심사평가시 최악조건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지역내 관계자 협의와 논의를 거쳐 8월에 예정대로 진행하여서 4만명이나 부여군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하게 되었다.

성공요인으로는 TF 구성과 적극적인 가동(군청, 센터직원 상주, 분야별 회원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역할분담 철저히 함)이 힘이 되었다. 그리고 행사 뒤에는 굿뜨래 광장 잔디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이후 개최예정인 '세계백제문화제' 코스모스 부지를 훼손하여서 지역신문에 비평 일색인 보도자료가 연일 터지게 되었다. 이런 비판을 막기 위해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잔디광장과 코스모스 부지를 5일만에 완벽히 복구함으로써 조직의 단합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사례는 전국최초로 기억될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활동 2 : 한국농업경영인 회관 유치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경영인 회관을 유치하면서 생긴 일인데 경영인 회관은 2010년 6월에 준공식, 전국대회는 2010년 8월에 개최하였다. 본인이 수석부회장 역임할 당시여서 사회단체들로부터 민간보조 교부금을 받아서(10억원) 전국최초로 농업인이 건물을 직접 소유하게 되었다. 군청에서도 교부세를 받기를 권유했으나 교부세를 받으면 추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유혹을 거절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농업경영인 소유건물로 지켜왔다.

이렇듯 얻은 경영인 회관 건물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한 요인은 그동안 돈독한 신뢰형성으로 인해 내부적인 반발은 적었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람을 만나니 서로 윈윈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인간관계의 중요성 알기, 마음을 열어놓기, 정보공유 활동 등이다.



농업경영인회관 부지



농업경영인회관 전경



농업경영인회관 내부

〈그림 4-45〉 부여군 농업경영인회관 전경

진행과정(외부자원 활용, 어려웠던 점, 에피소드 등)

외부자원 활용정도는 다방면으로 다독, 1주일에 6-7권 정도 독서하고 있다. 존경하는 인물들의 삶을 그린 자서전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다. 농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흡수해야 결국 농업발전을 위한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만나기를 좋아한다. 전문분야는 전문가를 무조건 찾아간다. 각 분야의 모델인물을 찾아다닌다. 삶에서는 후배와 선배의 삶 이야기를 가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편이다. 지금까지 30여개국 배낭여행(선진문물 습득, 삶의 모습 벤치마킹 등)하고 신앙심(크리스찬)도 독실한 편이다.

리더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는 현재 홍산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느낀다.

농업의 문제점

한국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수위 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이 사무관 출신들로 대부분 유럽사례만 벤치마킹함으로서 결국 농업부분 투자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한다. 농식품부 인선문제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정운천 전 장관, 민승규 차관 등). 이로써 농업의 근간, 뿌리가 뿔뿔해버리고 있다는 것은 공통의 의식일 것이다. 예를 들면, 축산은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수입물량으로 대체해서 다시 가격을 하락시키고 농가소득을 저하시키는 악순환 구조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수입개방은 대세이지만 다수 인구에 의해 5%의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농업인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현실이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피해액은 8조원에 이르나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가 심한데 농민청의 강소농이나, 정부의 대농이나 등 정책의 혼선이 많다.

부여군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부여군 관내 농업규모는 지역전체 소득, 인구수의 40%를 차지(청양군과 부여군의 경우)하지만 농업은 사양되고 소외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지역내 농업관련 예산은 균등배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사업을 유치해서 받아와도 군비가 부족해 포기하는 상황 속출하고 있다. 지역내 단합과 조직력은 약한데 반해 조직체는 그에 비해 너무 많다.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개인의 비전과 최종목표, 삶의 가치는 농가의 조직관리를 통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로 인해 농업이 성장하고 지역이 성장하게 되고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농가의 조직관리는 그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으로는 ① 내가 속한 분야에서 진정으로 실력 갖추기, ② 이를 위해서 기초소양 쌓기와 실력, ③ 지식 준비는 항상 게을리 하지 말고 계속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기, ④ 인간관계 시 지속적인 진정성을 갖고 사람을 만나면 신뢰형성은 저절로 됨, ⑤ 자기관리, 건강관리 중요하다고 본다.

본인은 운동, 영어, 동영상 교육, 식생활 절제 등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세우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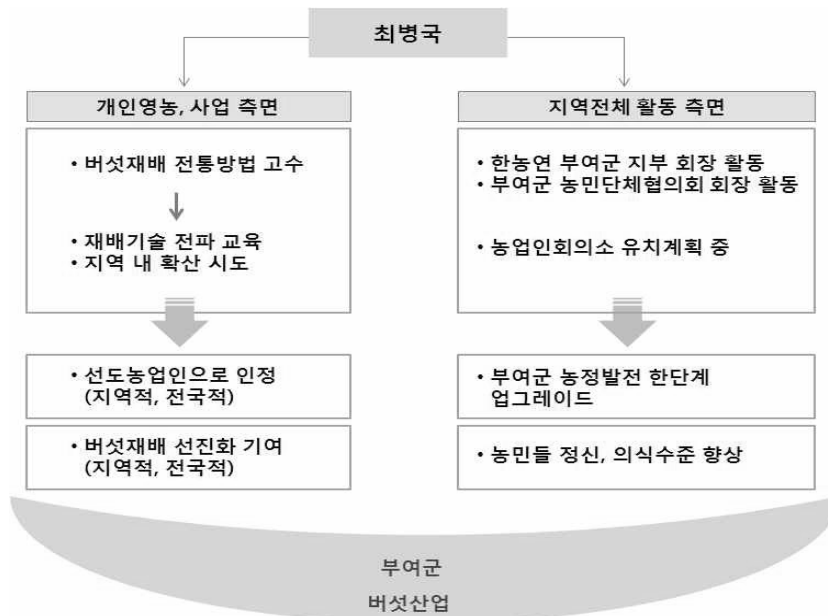
희망사항으로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농업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에 이바지 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최근의 트렌드는 규모화, 조직화, 첨단화 인데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본인은 32세 사무국장(농단협, 경영인연합회 등)이 되면서 재능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인재양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느꼈다. 직책에 맞는 역할부여도 중요한데 부족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립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익사업으로 읍면별 회비를 받는 것은 한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수익구조를 만들자는 취지하에 ‘친환경 농자재 구매센터’를 2012년 10억원의 중앙정부 교부세(국비)를 예산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사방 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현재 굿뜨래 농산물 직판장(1억원 규모)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1년 농업인회의소를 신청 중에 있다. 농민의 마음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군수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신청을 포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2012년 재신청계획이고 기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요약 및 시사점

최병국 회장은 개인영농 및 사업측면에서는 버섯의 신기술을 개발, 전파, 확산시도를 끊임 없이 하여서 버섯재배 선진화에 기여한 유명한 인물이다. 그리고 부여군 지역전체 활동측면에서는 각종 농업인관련 단체에서 주요직을 역임하면서 부여군 농정발전과 농민들의 의식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림 4-46〉 부여군 최병국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나. 부여군 연합사업 수박연합회 소진담 회장

총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혁신 ◆ 리더추천사유 : 굿뜨래 브랜드 및 연합마케팅 출범하게 된 효시

지역 특징

부여읍 지역 특성은 동쪽으로 부여군 석성면, 서쪽으로는 부여군 규암면, 남쪽으로는 부여군 장암면, 북쪽으로는 청양군, 공주군이 인접해 있다. 면적은 58.86km²로서 법정리 22개가 있고, 행정리는 53개, 반은 254개가 있다. 법정리에는 가증리, 가탑리, 관북리, 구교리, 구아리, 군수리, 능산리, 동남리, 상금리, 석목리, 송간리, 송곡리, 신정리, 쌍북리, 염창리, 왕포리, 용정리, 자왕리, 저석리, 정동리, 중정리, 현북리가 있다.

부여읍 총 세대수는 9,492세대, 인구수는 24,832명으로 부여군 전체 대비 약 32.5%를 차지한다.

〈표 4-31〉 부여군 부여읍 인구현황(2009)

(단위: 세대, 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부여군	31,590	76,295	38,144
부여읍	9,492	24,832	12,377

자료: 부여군, 부여통계연보, 2010.

개인사항

타지생활을 하다가 1986년 고향에 돌아오고 1996년 경 처음으로 벼농사를 5년간 하다가 그 뒤 수박농사에 전념하게 되었다. 농사경력 25년차로 부여읍에 거주하고 있다. 2000년에는 임대 50동을 하다가 현재는 10동만 운영하고 있다. 정동리에서는 최초로 시설채소인 수박을 주



변에게 권유하고 시작하였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사이 농산물의 유통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1년~2004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때는 정동1,2리에 선별사가 상주하면서 농장별 검품을 실시하고 작목반이 직접 작업을 한 다음 구리청과, 한국청과 등으로 출하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충북 덕산농협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회장이 부여농협에 연합사업을 최초로 먼저하자고 제의하여 연합마케팅 출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직책은 부여군 연합사업 수박연합회 회장으로 농사규모는 1,700여평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로서의 조건은 조직간 협력을 최대한 도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농민과 같이 땀흘리며 모든 것을 공유하고 주변에서 '미친 놈'이라고 들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희생과 봉사정신 투철해야 한다. 농협-행정(농림부, 도청, 군청 등)-농업인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상호 소통하며 조화롭게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공무원과 농협직원들의 기를 살려줘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사항 : 수박연합사업 추진

부여군의 수박농업 현황은 총 2,500ha로서 수박주산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규모로는 1,500억원을 차지하고, 농가수로는 전체 700-800여 농가 중 350여농가가 계통출하(약 25%)에 참여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부여군 관내에서도 재배역사가 길어서 타작목보다 관행출하 방식에 길들여진 정도가 가장 심한 품목이다. 따라서 수박재배와 판매 고수만 모인 작물이고, 관행출하에 빠져 있는 농가가 대부분인 작물이다. 그리고 시세에 민감한 농가가 가장 많이 있는 작물이 바로 수박, 연합사업을 하기 가장 힘든 품목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연합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도 수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박을 필두로 연합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박연합사업은 2003년 수박연합작목회로 100여농가가 처음 시작하여, 2004년 본격적인 연

합마케팅 출범하고, 현재까지도 공동선별과 공동정산 시스템이 여전히 힘들기는 하지만 계속하고 있다. 군지부(마케팅)-회원농협(농가조직화, 교육, 시설운영)-품목별 작목반(물량조달, 상품화)으로 구성되어서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본다. 서로에게 피해를 안주고 상황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실현되는 듯 하다. 연합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계속 농가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소통하려고 크게 애를 썼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진행과정(외부자원 활용, 어려웠던 점, 에피소드 등)

농가를 설득하기 힘든 이유는 약정 후 시세나 가격불안정하고 현금화 유동성에 불안정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리고 집안아내의 유혹(여자들이 현 시세에 더 민감하여 남편들의 의지를 꺾이게 만듦)도 만만치 않다.

지역현안으로는 연작장애 해소가 관건이어서 기술적 문제 해결 시급하다. 농협에서 역할을 하는 중이나 다른 교육, 센터의 기술교육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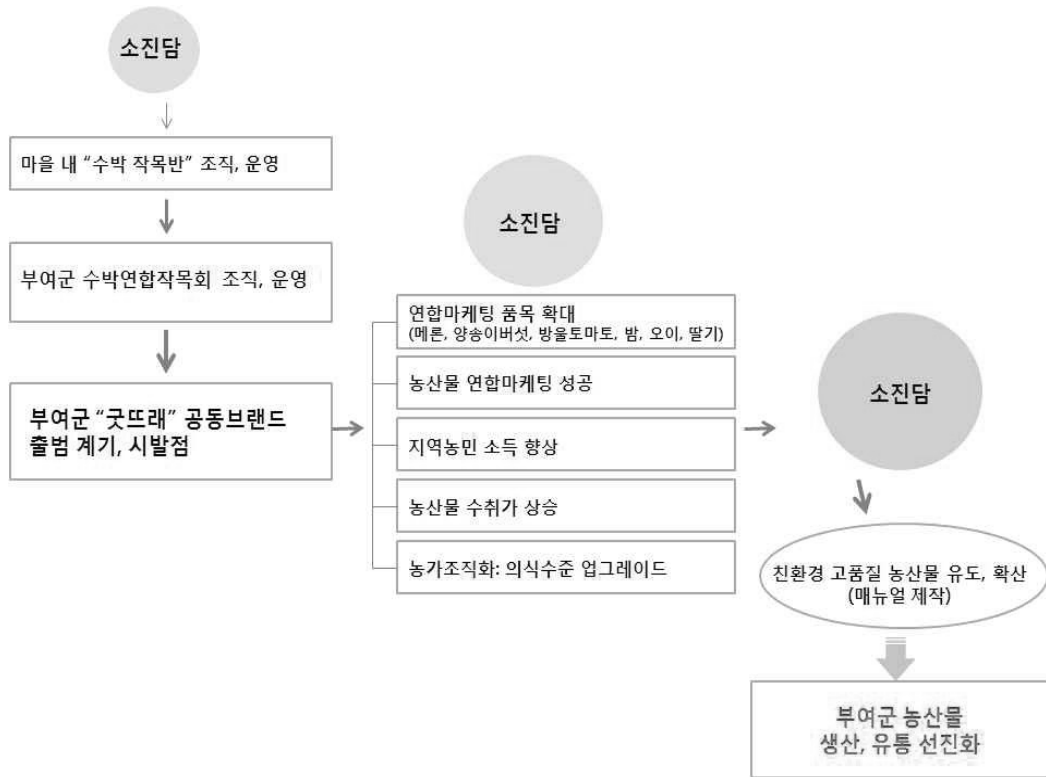
향후 계획, 목표 지향점과 가치

향후 계획으로 우선 생산기술적 측면에서는 친환경농법 도입, 시설채소(수박, 메론, 방울토마토, 딸기, 애호박 등)생산비절감 방안, 교육활동(센터내 교육장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의 확대 및 전파, 농가조직화가 필요하다. 대 농업인교육을 통해 조직의 가치, 협력,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소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여, 가정에 더욱 충실히 하는 것도 할 것이다.

외부자원 활용정도는 전문가를 확보하여 활용 많이 하는 편이다. 특히 고품질이면서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은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유통분야의 전문가, 각종 신문 뉴스기사 활용, 인터넷(페이스북, 트위터) 활용하기도 한다.

삶의 가치, 최종 지향점은 수박농사를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즉, 맛과 영양을 높이는 방향이다. 작목회의 지향가치도 앞서 가고 있는 회원과 직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한다.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뭔가가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본다.

요약 및 시사점



〈그림 4-47〉 부여군 수박연합회 소진담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3) 농촌리더 활동의 지역내 정성적·정량적 파급효과

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여군지부 최병국 회장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성적 파급효과

전국적인 버섯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팽이버섯은 이미 기업농화되어 있어서 기업당 보통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다. 물량이 워낙 많아서 가격이 낮고 특히 소비가 부진해서 자체물량 조절에 들어가야 할 품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서 물량조절에 있어서 상당히 회복된 상태이다. 소규모농가가 접근하기에는 비용대비 열악한 수익구조 때문에 힘든 구조이다.

느타리버섯은 전부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게 평균수준이며 가격이 매우 낮고 특히 소비가 부진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기술, 투자여건이 부족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부족해 점점 재배기술이 저하되고 있고 소규모농은 몰락하는 중에 있다. 부여군에서도 재배농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홍산면에서는 최회장이 유일하게 재배농가로 남을 정도이다. 느타리버섯은 미생물재배로 민감한 품목이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높게 나오지 않은 품목이다. 점차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배방식의 변화도 점차 진행되고 있다. 군상재배(배지에 군사를 올리는 방식)에서 봉지재배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부여군도 100% 봉지재배로 이동하고 있는 중(팽이, 느타리, 새송이버섯 등)이다. 아직 병재배는 부여군에서는 거의 없고 기업농이 주로 하는 방식이다.

부여군 전체 현황은 전국의 농산물 총 생산액이 34조원 가량인데 이 중 부여군의 농산물 생산액은 1조원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소득수준 높은 편이고 부농도 많다. 군에서는 농업분야에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박과 메론 농사의 경우 15동에서 80여동까지 재배하는 부농들이 많다.

최병국 님의 경력은 기본소양으로 1996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하여 학식을 갖추었고 생산 측면에서도 선진화된 버섯(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재배하고, 첨단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농가이다. 기타 대외적인 활동측면으로는 전임회장이 군의원 출마하면서 2010년 직무대행하면서 2011년 본격적인 단체장으로 취임하였다. 농정활동으로는 분과별 농정심의회¹⁹⁾ 의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판으로는 생산측면에서는 농촌전문지식, 리더자질,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고 이를 토대로 부여군 농업, 버섯재배 선진화에 앞장서는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석성면, 홍산면 등지의 버섯기술 첨단시설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이와 더불어 군민들에게 기술전파와 교육에도 앞장섰고 농업인들의 신농업학술장으로 제공하기도 한 인물이다.

활동측면에서는 경영인연합회부여군지부 회장직 수행함과 동시에 부여군농민단체 협의회 회장직 수행하고 단체장 중에서도 인지도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농식품부 사업 유치 준비를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는 중(농업인 회의소 사업유치)이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농업 본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주변에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로 추천하게 된 사유는 지역내에서 20여년간 버섯재배에만 종사하면서 부여군, 충남, 전국에서 버섯엘리트, 버섯수재, 버섯인재로 불리는 농업인이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제일의 버섯통이고 버섯전문가로 불리기 때문이다. 엘리트 농업인으로서 지역내 버섯 선도자로 불릴 만큼 충분하다. 2006년 한국농수산대학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축산/버섯/식량작물 분야에서 최고의 졸업생으로 선발되는 영예도 안았다. 2007년 충남 농업농촌 발전대상에서 버섯분야 대상자로 선정, 2002년~2006년 부여군 느타리버섯 연구회, 충남버섯연구회 회장 역임, 초대회장으로 4년간 역임하였다. 2009년 한사랑농촌문화재단 특작부분 수상, 2010년 농식품부 선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현장학술장으로도 지정²⁰⁾(전국적으로 40여개 농가 중에서 버섯은 2농가인데 부여군 1농가와 경기도 1농가 선정)되었다.

최병국님의 기여도는 버섯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하여 매우 훌륭하고 버섯 균상재배 방식을 고수하는데 이 방식은 고유한 기술로 버섯을 지키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를 한다. 처음 시작은 버섯을 기초적인 생계수단으로 활용한 것인데 관심사가 지역 전체 발전으로 관심을 갖으면서 더욱 리더로서 존경받게 된 인물이고 홍산면 회장에서 부여군 회장, 농단협회장으로 계속 활동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최회장의 농사규모와 현황은 지역내에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거의 없는 암담한 현실에서 오히려 첨단시설을 통해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첨단시설 보유는 지원

19) 참고로 농정심의회는 1년 1회 분과별 모임으로 기관단체장, 자문단, 생산자대표 등으로 구성, 자세한 것은 조례참고

20) 농식품부 선도농업인은 부여군에만 3농가가 있을 정도로 농업분야에 선구자 비율이 높다.

도 받지만 본인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첨단시설을 이용하여 ISO인증 획득, 무농약 재배 및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시설로서는 현장교육장(외부학생, 버섯농가)을 견학장소로도 활용 중이고 동생을 영입하면서 가족농 중심구조로 농사짓고 있다. 홍산면내에서 유일하게 버섯 재배농가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균상재배에서 봉지재배로 전환하면서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지만 가격이 잘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어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나. 부여군 연합사업 수박연합회 소진담 회장

지역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행정공무원 중심) : 정량적 효과

소진담님의 경력으로는 2003년 수박연합조직회 구성하고 부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주장하면서 2004년 연합사업 출범에서 수박연합회가 그 시발점이 되게 한 인물이다. 2011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공선회를 운영주도하고 있으며 브랜드 파워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의 활동경력으로는 1990년대 수박농사를 하면서 ‘소참봉’ 개인브랜드로 출발, 최근에 친 환경(무농약)인증 농산물로 본인도 전환하고 정동리 일대 15농가도 확산, 동참하게 하였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굿뜨래 수박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중이고 2003년 비과과당도선 별기를 도입하면서 연합사업 시작하였다. 굿뜨래 농업대학²¹⁾ 1기 회장을 역임(2008년)하였다.

전반적인 활동 평가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문제 해결에 상당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다. 표준화된 고품질 농산물에 열정적이고 심혈을 기울임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현재 수박과 메론의 생산 표준화 매뉴얼 제작을 위해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매뉴얼 제작은 농가들에게 지침서로 활용할 목적(매뉴얼 제작은 행정과 농협, 지자체 등에서 공동으로 제작 준비 중)이라고 한다. 부여군 지역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장본인이며 수박과 메론이 타 작목보다 앞서갈 수 있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여군 수박농업 현황은 면적으로는 총 2,140ha이고 이 중 120ha만이 APC로 출하하고 있는

21) 굿뜨래 농업대학은 생산재배기술부터 유통, 판매 등 농사의 전 분야를 교육하는 1년 과정으로 작목별 선도농업인들이 다니는 교육과정이다. 면접을 거쳐서 공정하게 선발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소회장은 시설채소학과에 입학했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이기도 하다. 현재 4기 운영 중에 있다.

실정이다. 시설채소 전체 면적은 2011년 기준 3,600ha, 수박은 2,100ha~2,200ha으로 점차 그 비중이 비슷하거나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4개 APC(부여읍, 규암면, 남면, 장암면)에서 출하하는데 부여군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 여전히 포전출하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은 2011년 870억원, 평균 1,00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4대강 사업 여파로 인해 생산액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여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센터장²²⁾에 의하면 부여군 농정에서 정책입안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인물이다. 농사기술을 농민에게 전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리더쉽 보유자이고 행정과 농협, 농협과 농민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중간지원자 역할을 한다. 지역내 신뢰형성 돈독한데 그 증거로서 8년째 수박작목회 회장, 14년째 정동리 이장 수행 중이다. 상인출하 관행에서 신유통 방식(선별과 포장 등)으로 전환하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부여군에서 첫 연합마케팅사업으로 수박이 첫 출발하게 되었고 수박사업이 성공하니 그 이후 메론, 딸기 사업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실제 계통출하 실적이 25% 까지 올랐다.



부여군APC전경1



부여군APC전경2



센터장과 소진담 씨

〈그림 4-48〉 부여군 APC전경 및 센터장

행정에서 볼 때 소진담 회장의 활동으로 인해 부여군 농업이 발전하게 된 정량적 효과를

22) 부여농협APC 센터장은 현재 경제사업 3년차로 농가교육을 통해 기술, 정보, 조직화 면에서 맞춤형 교육 및 상호소통형 교육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애로사항으로는 농가들이 가격결과에 민감하기 때문에 설득과 대화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으로는 공동사업조합법인(26개 조합, 이 중 수박출하하는 조합은 4개), 작목회 회장(사외이사), 농정과, 센터장장-지역농협과 농가는 조합원이면서 동시 회원출하조직으로 구성(밤,표고버섯, 양송이버섯만 빼고 6개 작목회 운영하는 중)하고 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생산인프라 기반을 형성하여 부여군이 하·추계 메론을 2004년부터 재배하여 지금은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선진화된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굿프래 브랜드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일괄 시스템 구축 가능하게 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셋째, 농가의식 향상이다. 농가들이 박스당 혹은 1통당 kg당 30원씩 각출해서 지역내에서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형성하여 각종 홍보비, 행사진행비, 리콜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APC의 기여도는 수박은 면적이 비슷한 추이이나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농가소득 증대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작형개선(수박과 오이, 수박과 호박, 수박과 메론)도 이뤄지고 있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었고 11.5브릭스 이상만 출하하도록 되어 있다.

농협에서는 선별사를 쓰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정해진 규격출하품이 아닌 비규격품을 출하하게 되면 반품을 당하니 농가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연합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장, 농협 상무, 과장, 담당자 분들과 각 회원 조합별 임원간 협의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농가대표인 소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 인지도 높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기존 부여가 백마수박 브랜드로서 도매시장 5개상회만 출하하는 정도였는데 굿프래 수박이 공동브랜드로서 대도시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결과적으로 농가수취가 향상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크다. 연합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사업자와 농가간의 의견조율에 앞장서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가게 하는 선도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박과 메론 생산매뉴얼 보급 사업을 위해 지자체-농협-농가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중(공주대와 연구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꾸준히 기술관련 연구에 힘쓰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부여군은 특히 연작장해 발생하여 영류집착 진행 중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농법개발 진행 중(토양소독 실시, 석회질 토양전환 등)이고, 센터와 농가간 기술적 문제점 논의 중에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이다.

굿뜨래 상품화 및 판매전략

■ 농가출하 방식

연합판매사업 (공동마케팅)

- 공동선별, 출하, 계산 원칙
 - 품질의 객관성과 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 연합사업법인 일괄 출하 판매
 -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 + 회원 조합 연합

기타 작목반 및 영농법인

- 선별장으로서의 운송과 일괄처리 시스템
- 출하비용 최소화 원칙

- 출하상품의 엄격한 품질관리기준 적용
 - 농, 특산물 품질관리 기준 제정
 - 품질기준에 맞게 엄격한 출하
 - 품질기준 위배 시 사용승인 취소

〈그림 4-49〉 부여군 굿뜨래 농가출하방식

어려운 점으로는 수박 연합사업 출범당시 공동출하 및 공동정산을 위해 4월부터 출하해야 하는데 기존 관행은 5월 하순부터 출하하게 된다. 즉,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변경사항을 농가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점은 재배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전국의 수박유명 산지인 경남 함양, 함안, 의령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가 되었다. 이는 새로운 작형을 도입하고 실천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부여군 전체 생산량에 비해 관내 처리가 가능한 시설용량의 한계로 인해 공동출하량이 많지 않게 되어서 도매시장 출하도 많이 하면서 전체적인 인지도를 높여야 하지만 안되는 현실이다.

정성적인 효과로는 농협으로 공동출하하는 수박시세가 잘 나오게 되면 포전상인도 움직임으로서 포전상인의 가격과 균형을 맞춰가게 된다. 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던 농가까지 무임승차해서 수취가면에서 이익을 얻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농가까지

도 부가적인 소득상승을 유발하게 하고 연합사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 농가가 참여하고 싶어도 4개 APC 물량처리 한계로 인해 못 받아주는 실정이기도 하다. 자체 규율을 어기고 이를 위반시(대부분 상인출하)에는 3년간 가입하지 못하는 등 강력한 내부규약도 만들어놓은 실정이다.

정량적 효과 (최병국 회장 및 소진담 회장 공통)

부여군 총 생산량은 18만톤, 총 생산액 규모로는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송이버섯 전국 1위 생산지로 45%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고버섯도 전국 1위 생산지로서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여군은 버섯으로 특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밤, 방울토마토, 멜론, 수박 등의 점유율이 10%으로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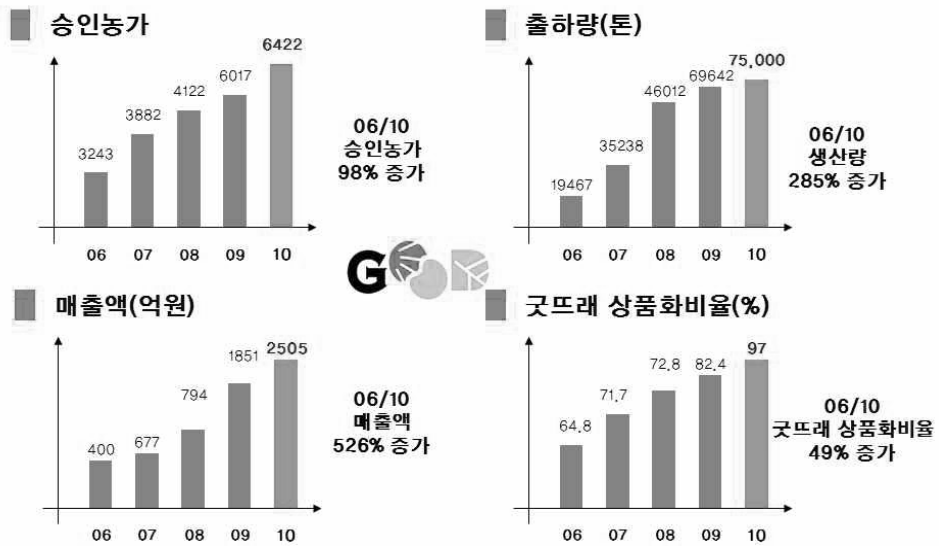
〈표 4-32〉 부여 8미 농산물 실적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천톤)	생산액(억원)	전국점유율	비고
양송이버섯	67.3	8	242	45.0%	전국1위
방울토마토	310	20	411	13.0%	전국1위
수박	2,200	110	874	8.0%	전국2위
밤	5,328	10.2	206	13.5%	전국2위
벨론	190	6	105	13%	충남1위
표고버섯	135	3.5	264	14.9%	전국1위
오이	173	11	147	3.1%	
딸기	277	9.7	254	3.0%	

⇒ [관내 총 생산량 18만톤, 총 생산액 9,000억원]

자료 : 부여군청 내부자료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생산 및 매출현황



〈그림 4-50〉 부여군 공동브랜드 생산 및 매출현황

자료 : 부여군청 내부자료

8. 아산시

1) 아산시 개요



〈그림 4-51〉 아산시 행정구역도

아산시는 한반도의 중앙부 및 충남의 최 서북단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천안시와 남쪽으로는 공주시, 서쪽으로는 예산군 북쪽으로는 경기도 평택시와 접하고 있다.

아산시의 지형은 남고북저로 남쪽에는 광덕산이, 북쪽에는 영인산이 둘러싸고 있다. 북쪽은 차령산맥의 여맥에 속하는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남쪽은 남쪽의 산지에서 발원하는 곡교천이 서류하여 그 유역이 평야를 형성하며, 삼교천에서 통합하여 아산만으로 유입된다. 시의 중앙은 낮고 평평한 평야가 전개되고 있다.

아산시의 연혁은 1914년 3월1일 아산군으로 개편(부령 제253호)되었다가 1986년 1월1일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 분리되었다가 1995년 1월1일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어 아산시가 되

었으며 2읍 9면 6동을 관할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372개 행정리와 143개 법정리가 있고, 2,31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시의 총 면적은 542.15km²로 충청남도 전체면적의 6.30%를 점유한다.

현재 아산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장항선 등이 지나면서 서해안 내륙지방의 수송기능이 강화되었고, 경부고속철도로 인해 서부지방으로의 수송이 유리해지면서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로 유입하는 인구도 늘고 있으며, 2009년 57,492명, 1일 평균 약 157.5명이 전입하였다.

〈표 4-33〉 아산시 읍·면별 인구추이

(단위: 명, %)

	2000	2005		2009		
				남	여	구성비(%)
아산시	184,191	208,448	264,324	135,303	129,021	100
염치읍	6,905	8,953	7,998	4,216	3,782	3.03
배방읍	3,974	3,916	49,087	24,812	24,275	18.57
송악면	18,007	20,946	3,612	1,870	1,742	1.37
탕정면	7,913	13,402	20,356	9,603	10,753	7.70
음봉면	12,725	14,309	17,066	9,542	7,524	6.46
둔포면	11,287	11,414	11,292	6,228	5,064	4.27
영인면	7,625	7,369	7,280	4,040	3,240	2.75
인주면	8,033	8,104	7,571	4,190	3,381	2.86
선장면	5,052	4,731	4,344	2,271	2,073	1.64
도고면	6,095	5,704	5,377	2,791	2,586	2.03
신창면	13,664	16,181	21,352	11,224	10,128	8.08
온양1동	8,680	8,360	7,395	3,689	3,706	2.80
온양2동	9,884	8,635	9,380	4,692	4,688	3.55
온양3동	15,592	19,125	28,969	14,346	14,623	10.96
온양4동	18,736	19,549	20,851	10,680	10,171	7.89
온양5동	15,282	17,442	17,412	8,818	8,594	6.59
온양6동	14,737	20,308	24,982	12,291	12,691	9.45

자료: 아산시, 아산통계연보, 각 년도.

2009년 현재 아산시의 세대수는 105,958 세대, 인구는 264,324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약 2.42명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세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5.51%, 인구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49%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인구구조는 2009년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50,612명(19.74%),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청장년층 179,077명(69.83%), 65세 이상의 노년층 26,760명(10.43%)으로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 유소년층의 구성비가 높다.

아산시의 경지면적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 12,025ha, 답 5,026ha이며, 이는 아산시 전체면적의 31.45%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산시의 개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토지 투기가 증가하면서 농업기반이 약해지고 있으며, 농업용지의 상당부분은 향후 타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9년 아산시의 농가수는 10,180호, 농가인구는 28,700명으로 농업용지에 비해 아산시 인구의 약 10.8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가수와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3.16%, -4.99%로 농업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표 4-34〉 아산시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단위: 호,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농가수	11,519	10,827	10,697	10,439	10,180	-3.16
농가인구	34,791	31,545	31,488	29,665	28,700	-4.99

자료: 아산시, 아산통계연보, 2010.

2) 농촌리더 활동실태 내용

가. 아산시 세계꽃식물원 남기중 원장

총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 지역개발 및 관광, 화훼산업 발전 ◆ 리더추천사유 : 지역내 식물원을 설립함으로써 관광객 유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 화훼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

아산시는 어떤 곳인가?

아산의 지역적인 특징은 지역이기주의가 심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개의 화훼단지를 운영해 봤지만, 아산은 유일하게 실패한 지역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충남인의 성향이 예와 아니오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데, 더 힘든 면이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지식인농업인회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충남인의 그런 성향은 더욱 잘 드러나는 것을 대전·충남지부에서 느낄 수 있다. 현재의 아산 상황은 인구도 원래 적었는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공장도 들어서면서 농촌부분은 소외되고 있는 현실로 지금은 예전의 아산시와는 판도가 많이 바뀌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남기중 원장,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게 된 배경은...



그의 기본적인 이력을 먼저 살펴보면, 1957년생, 고향은 아산시 탕정면이다. 2004~2005년 한국신지식인농업인회 선정되었고 현재 아산 아름다운정원(영농조합법인) 및 아산시 세계꽃식물원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원예학과 출신으로서 전공을 살려서 졸업 후인 1976년부터 서울의 한농종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화훼산업이란 한길만을 걸어왔다. 이에 국내에서 화훼분야 선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사명감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현재의 부인과는 대학동창으로 부부가 함께 식물원 일을 맡아오고 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아산이란

지역과 인연이 되어서 1995년 처음 농사를 위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귀농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한농종묘회사 근무 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때 B2B가 아니라 B2C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당시 김영삼 시절 전국적인 단위로 유리 온실을 많이 지으면서 대부분 하드웨어 부분에 많이 투자하던 시기와 맞물렸다. 이 시기에 맞춰서 고향인 이곳에 생산단지 만들기를 권유받고 보증을 서게 되었다. 내실이 없어서 잘 안 되겠다는 인식이 들었고, 결국 보증으로 인해 책임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급기야 1995년도에 스스로 퇴사를 결심하고 단지를 책임지기 위해 아산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하는 중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이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금융단계에 실수로 발을 담갔다. 농사만 지으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접근한 유통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대표이사로 서명을 하면서 채무를 모두 짊어지게 되었다. 아산에서 하던 동업자들은 다 떠났다. 손익분기점은 작년에 넘어섰지만 아직 부채가 많으며, 연 4억 정도가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부채만 해결이 되면 재미있는 곳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활동사항 1 : 세계꽃식물원 설립

단일 실내식물원 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28,000㎡의 온실에 국내외 다양한 품종의 원예종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2004년 개원 이래 매년 300,000여명의 관람객들이 식물원을 찾고 있다.

1994년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화훼수출단지로 출발하였다. 농민조합원 13명과 준조합원 38명을 구성, 30여년간 재배노하우를 기반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 농업의 현실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즈음 식물을 가꾸고 즐기는 문화가 국내에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 2004년부터 화훼생산시설을 식물원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웰빙과 친환경 바람을 타고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높아져 식물원 내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물원 입구



외부전경



식물원 진입로

〈그림 4-52〉 아산시 세계꽃식물원 외부전경

총 매출액은 22억원 정도이며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60%, 식물원 운영을 통한 관광소득 40%로 이뤄진다. 생산활동으로는 대 일본수출, 수입, 국내유통을 포함한 내수시장에 묘목·분화·절화 공급 등을 하고 있다. 경영비로는 약 80%가 지출되고, 나머지 20%는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직까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면적은 1만평으로 지열난방을 사용하고 연료비가 약간 절감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 부분만 해소되면 괜찮은 곳이다.

일본의 경우 내수를 제대로 다지지 못한 결과 꽃 시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내수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식물원은 관광 측면 외에도 역할이 크다. 이유는 품종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일본 바이어가 와도 꽃 재배 시기가 지나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처음 전시용의 목적으로 식물원을 개장하게 되었다. 2004년도 '천가지 꽃' 테마로 개장하게 되었는데 수출과 함께 수입도 하고 있는데, 기존 네트워크를 이용해 네덜란드, 태국, 뉴질랜드, 중국 등 직접 품종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은 외국품종으로 네덜란드, 태국, 뉴질랜드 등이고 수출은 일본, 내수는 기술컨설팅, 신 품종 소개, 관광은 서비스 부분이다. 실내 식물원으로는 세계 단일 최고의 규모이다. 외국 식물원의 발단은 왕립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외국 관람객들도 이곳을 보고 놀랄 정도이다. 또한 대한민국 화훼농업이라는 취지에서 식물원 내 희귀식물이 없다. 이 곳 식물원은 대한민국에서 나는 화훼 종류는 전부 키우고 있으며, 생활 속의 원예 식물 재배를 유도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자꾸 보여주다 보면 원예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예는 원산지란 것이 필요가 없고, 기후만 맞으면 가능하다. 자생화와 야생화의 구분이 없다. 안면도 꽃 박람회에서도 구근류 등 식재를 직접 다 해 봤다. 이는 일본의 생활원예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도 생활원예를 해야 되는데, 화훼협회 및 농식품부 등에서 방관하고 있다. 식물원 내에 약 3천 종이 있으며, 생활원예를 활성화하고,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식재방법과 성장과정 등을 보여주는게 목적이다. 따라서 이곳을 농산물 식물원이라고 생각한다.

시설농업은 경종농업과 가장 다른 점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할 시간이 별로 없다.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어 지켜봐 왔는데, 경종농업 하시는 분은 리더를 따르는 편이나 시설농업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할 시간도 없고, 리더를 잘 따르지도 않은 것 같다. 특히 아산의 농촌지역에서는 더 심하다. 공공연히 공무

원들조차도 본인에게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이다.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크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순간 농업에서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종종 봐 왔다.

식물원을 운영하면서 갖는 바램은 오는 방문객들에게 작은 여유와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작은 계기가 식물을 가꾸고 사랑하는 문화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소박한 목표이다. 특히 식물원을 방문하고 꽃과 농촌에 대해 체험을 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식물을 가꾸는 문화와 농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바램을 가져본다.



내부전경1



내부전경2



내부전경3(카페)

〈그림 4-53〉 아산시 세계꽃식물원 내부전경

영농조합 ‘아름다운정원’은 원래 탕정 쪽에 있었으나 개별농가를 여기로 이주시켰는데 실패하고, 다시 만들어진 것이 영농조합법인 ‘아름다운 정원’이다. 탕정에 계시던 분 12명을 모아서 모두 이주를 시키고, 법인으로 묶음. 법인의 결속력은 없다. 내수, 수출, 관광체험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투입에 비해 산출이 적어 한계 봉착하고 차츰 조합원들이 빠지게 되었다.

그래도 이런 와중에 본인만의 원칙이 있다. 자산의 법인화를 통해 손해도 컸지만, 표면적인 법인화가 아닌 철저한 법인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 처음 25,000평에서 현재 16,735평 (시설 10,000평, 5명 구성)으로 축소되었고 조합원 이탈되면서 부지매도로 평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지금은 부인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 중 나머지 네 명은 수익이 나면 가져가고, 일도 실제로 하시고, 봉급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는 기존 방식을 싫어한다. 현재 본인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원장의 역할하고 부인 이름으로 경매취득하여 실질적인 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중에 재단으로 넘겨버릴까 하는 계획 중에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내 파급효과

우선 지역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마을전체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이곳
면 지역내에 계시는 분으로만 고용하고 있으며, 대략 20
여명 정도가 일을 한다. 특별한 규제 없이 자기 농사일
을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는 형태로서
근무 시간조율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하시는
분들과 인력에 맞춰서 경영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다. 주
요 업무는 식물에 물 주고, 관리하고, 수출품 포장 등을
한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논 20마지기 경작하는 것보다
더 소득이 좋다. 참고로 이곳 전체가 논지대이고 주요
소득원이 쌀 농사이다.



향후 목표, 지향점. 비전, 가치

화훼, 원예를 통한 경관 조성이 작은 꿈이기도 하다. “100리 꽃길을 만들자.”, “네덜란드처럼
이쁜 논길을 만들자.”, “외국 농촌경관은 아름답지만 우리는 왜 이런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식물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아산시에 끊임없이 농촌경관조성에 대해 지원정책들을 제안하
고 있지만 생각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고 본인이 지금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농촌에 콘크리트로 자전거도로 만들지 말고, 농업을 프로모션 해야 된다고 생
각을 가지고 있다. 예전대 여기서 나오는 쌀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도
시민들이 꽃길에서 자전거 타고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거 근대사회에 비해 경제적으로 나아졌다 하더라도 삶의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
다. 아름다운 농촌에서 좀 더 질 높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 중이다.

에로사항으로는 현재 인간관계가 너무 폐쇄적인 지역이라서 지금까지도 지역민들과 융합되
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원장이다 보니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고 생각해버리고, 뭘
하나 하더라도 길을 자꾸 막아버리고 있다.

향후 운영 방향은 화훼 유통시장이 정상적인 채널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통은 소
비자들에게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지니는 점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화훼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량 다품목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훼구조에서는 대규모 재배단지를 가진 중국(예, 곤명)과 FTA 맺으면 끝이라고 본다. 장미·국화·카네이션 등 4가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계인데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훼시장은 좁아서 대부분 99%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조이다. 현재 종묘회사 일에서는 손을 떼었는데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뿌듯함을 느끼는데 화훼 분야의 선구자로 여겨지고 있다. 주로 종묘회사에서 기술부분 자문을 해왔었고, 성공도 많았지만, 자문이 아니라 직접 해보니 단순 수치로만은 안되는 상황 직면할 때가 많다. 기존에는 기술적 자문은 성공해왔었는데, 경영은 힘들다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도 자신 스스로의 신조도 장사꾼의 마인드로 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앞으로의 화두는 환경이고 이에 발맞춰서 환경산업(eco)을 위한 화훼 생산-유통업자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간유통을 하는 도매업자로서 B2C에 접근하는 것이다. 소비패턴의 변화는 결국 생산자-소비자와의 직거래이다. 농업은 이제 지식만으로 해결인 안 된다. 경쟁력은 연륜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외국의 채널을 봤을 때도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둘째, 플로리스트 교육이다. 예전에는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플로리스트와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교육하고 있다. 그에 맞춰 본인은 현재 나사렛대 전임교수를 맡고 있기도 하다. 플로리스트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큰 꿈이기도 하다.

셋째, 창작 아이디어 포장 등 테크니컬한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넷째, 가격 조정자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현재 종자를 보급하는 것은 국내 화훼 가격에 대해 보초를 서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수입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종자 확보율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비중은 적지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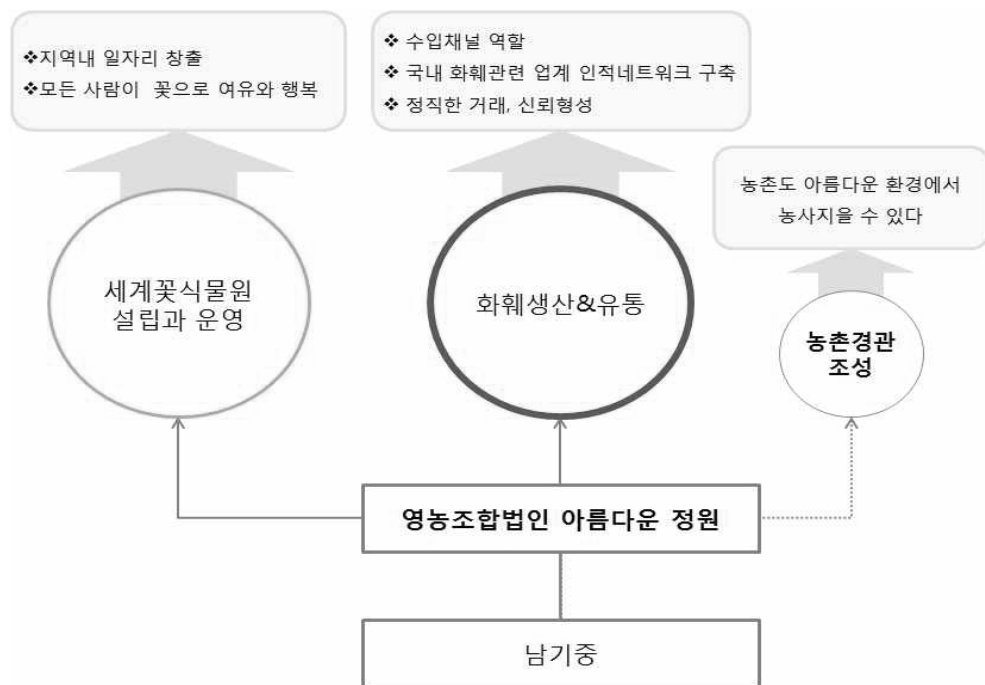


다섯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도 디자인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1가구 1평 정원 가꾸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외국의 가정마다 실외 경관 조성사례를 보면 보여지는 경관도 중요하고 지역을 가꾸는 것은 지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한 밑거름이 가정마다 작은 정원을 가꾸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식물원의 작은 소망이 담겨있기도 하다.

본인의 외부자원 활용원천으로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박사학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과의 채널, 네트워크 교류(회사근무 경험 이용), 선진사례 습득(외국)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요약 및 시사점



〈그림 4-54〉 세계꽃식물원 남기중 리더의 활동실태 구조

제5장 리더활동실태 평가와 개선방안

1. 요약 정리

지역별 리더들의 활동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리더가 갖춰야할 필수조건 및 핵심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마을의 일, 주민들의 일 등등을 돌봐주고 챙겨감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희생정신, 마을의 심부름꾼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데에 1순위로 공감한다. 특히 리더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거나 뒤에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챙기는 일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농업·농촌현장에서 도출된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면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구성원간-주민간의 비전과 가치 공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닌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구성원간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 가치 등을 공유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을 리더들이 한다고 해도 농촌지역 마을주민들의 이기심과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인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점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논의의 자리 등을 계속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학습을 하게 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전전한 상식, 기본기 충실, 본업 충실, 기술과 지식의 꾸준한 학습, 정보탐색**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리더의 추진력과 구성원간 조화를 위해서는 역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합리성을 통해 상대방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결국 꾸준한 공부와 학습인 것이다. 외부교육의 기회가 왔을 때 일부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획득하기, 토론회 참석준비를 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전문서적을 뒤지며 공부하는 활동, 맘과 몸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 여행을 다니고 다른 분야의 지식을 쌓으면서 발상의

전환 계기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은 바쁜 리더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넷째, **지도력, 설득과 타협, 결단, 소신, 협력도출, 상호소통, 포용정신**을 말하고 있었다. 리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추진력과 지도력, 카리스마일 것이다. 조사한 리더들 모두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리더들은 중요한 사항이나 안전이 발생했을 때 때로는 앞장서면서 지도력을 앞장세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 과정에서 심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결국 올바른 결정이었다면 나중에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음이 이를 증명해 준다.

다섯째, **성실성·도덕성·순수함·겸손함**도 중요한 덕목으로 말하고 있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답고 인간적인 면모로서 평가를 받는 게 인지상정이다.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더 낮춰가면서 주민들을 섬기고 대하는 태도, 겸손함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 중에 성실함과 순수함, 도덕성, 겸손함은 가장 으뜸일 것이고 리더에게도 그런 덕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오히려 리더라고 칭송되는 것조차 꺼려하고 남들에게 티내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추진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신뢰·진정성있는 인간관계**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추진하고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들이 결국 신뢰,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는 순간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갈 만큼 우리 사회는 성숙되고 있다. 농촌지역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숙해진 모습에는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주민간 밀착력이 강하고 유대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간의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한번 낙인이 되었을 때에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일곱째,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강관리**는 필수코스이다. 일을 추진하려면 우선 자신의 건강, 몸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운동, 식사조절, 기본소양 습득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그들만의 비결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끈질긴 근성과 집념으로 자신의 관심분야와 마을과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미래동향과 트렌드를 바라보는 혜안과 시각, 마인드**를 말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다른 사항들이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조건들로서 확실히 일반 주민과 리더들의 마인드는 달랐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미래의 길을 가야겠다고,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다.

〈표 5-1〉 리더 활동실태 유형별 요약

소속기관	리더명	활동공간	역할기능	핵심요소	유형	개요
양봉연구회,계룡꽃마을 친환경연구회,계룡농장	김중식 인중식	계룡시	비전제시	기술,지식,집념,가치	농업기술, 농업인교육	양봉업을 지역내 귀농인에게 전파,확산
바리실마을	박인호	계룡시	비전제시	기술,지식,집념	친환경농업전파, 확산	도시화된 지역에 친환경농업 전파
	유상귀	금산군 제원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신뢰, 협력, 자원활용	마을개발사업, 축제 농산물생산·유통신도	각종 정책사업 유치, 마을주민소득향상, 마 을개발로 인해 지역활성화 기여
	양현철	금산군 제원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기술,지식,가치관	마을개발사업, 축제	오지마을을 새로운 마을로 재탄생, 지역활성 화기여
홍도인삼마을	정효동	금산군 남일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가치관,사회연결망	마을개발사업, 소득창출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소득원 창출, 마을관광,개발로 인해 지역활성화 기여
추부갯마을	남기순	금산군 추부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공감대,협력,지원	마을개발사업, 축제 지역축제개발,이미지홍보	정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새로 운 소득원 창출
떨기마을	이동신	논산시	지역계획 자원발굴	사회적연결망,가치	농촌체험관광,마을개발	농촌지역에 딸기를 이용한 체험관광 최초 도입, 지역경제활성화
햇빛촌바랑산마을	이경용	논산시 양촌면	지역계획 자원발굴	가치관,공감,신뢰	마을개발사업 농산물가공사업,일자리창출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 및 판 매사업 활성화, 소득창출 기여
당진낙농협동조합	이경용	경기,충남권	비전제시 네트워커 관리자	기술,지식,가치관,신뢰	광역단위 낙농업발전	충남과 경기지역 낙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 로망 개척, 자재공급기반 구축, 지역순환농 업을 선구적으로 실천
영진마을	박정일	당진군 고대면	네트워커 자원발굴	가치관,사회연결망	마을개발사업 농산물유통,판로개척	고구마 및 배 등 미물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로개척,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서해농장	이정학	보령시	비전제시 네트워커	기술,지식,공감,가치	지역축산업 발전 주민갈등해결,화합	보령시 관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성숙한 갈등 해결 과정, 지역주민과 조화
은행마을	김정환	보령시 청라면	지역계획 네트워커	기술,지식,공감	마을개발사업 은행가공사업,소득창출	마을의 전통,천연자원의 은행을 이용한 새로 운 소득원 창출, 마을개발 성공
한농연 부여군지부	최병국	부여군	비전제시 네트워커	가치관,기술,지식, 신뢰,사회적연결망	농업기술 선도·전파·확산 지역농업·농촌발전	버섯기술 도입과 전파, 확산시도 농업인 의식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굿뜨래 수박연합회	소진담	부여군	자원발굴	기술,지식,가치,신뢰	농산물 생산·유통혁신	굿뜨래 브랜드 및 연함마케팅 출범 호시
세계꽃식물원	남기중	아산시	자원발굴	기술,지식	지역내농촌관광활성화	최대규모의 꽃식물원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전체 경제활성화, 관광활성화, 일자리창출

2. 리더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첫째, 발전하고 앞서나가는 지역에는, 마을에는 반드시 미래를 보는 혜안과 실천력, 리더쉽을 갖춘 리더가 존재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지역의 비전제시자로서 역할).

지역리더의 확고한 리더십과 주체형성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신적인 지역리더의 존재,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등이 지역혁신 성공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지역리더는 지역의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미래상은 지역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고 구성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지역의 힘을 한 방향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향키와도 같은 것이다.

지역내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구성원간의 이해대립이 존재하며 구성원 간의 공존의식도 낮고 그들을 자주적으로 조정하고 공통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리기법과 헌신적인 신념을 소유한 지역리더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계룡시의 안중식 회장·김중식 회장, 금산군의 박인호 위원장, 당진군의 이경용 조합장, 부여군의 최병국 회장, 보령시의 이정학 대표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지역혁신에서 리더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은 유사한 사례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소수의 지역리더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칫 혁신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자원의 발견과 종합적 활용을 통한 독자적이고 실천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지역계획자로서의 기능).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의 독특한 자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지역자원의 새로운 활용방법, 역발상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독자적이고 실천적인 지역발전계획은 지역발전과 혁신의 성공지역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되었다.

또한 특정한 정책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지역특성에 기초한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을 갖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도 이 독자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시행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사업과 그 독자계획과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마을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산군 신안권역 박인호 위원장 및 유상귀 사무국장, 홍도인삼마을 양현철 위원장, 추부곶 앞마을 정효동 위원장, 논산시 햇빛촌바랑산마을 이동신 위원장, 보령시 은행마을 김청한 위원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지역밀착형·틈새시장을 겨냥한 경영안정, 지역농업경영의 복합화와 다각화**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역자원 발굴자로서의 역할).

지역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지역주민의 동참과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다. 따라서 지역혁신 성공사례지역의 경우 다양한 판로 확보노력을 엿볼 수 있다. 당진군 영전향토마을의 경우 1사1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삼성전자 쇼핑몰에 지속적으로 최고급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매년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농가들의 소득도 증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품질을 규격화하고 판매단위를 규모화하는 등 마을 단위에서 통합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으면서 타사업을 실행하는 것 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조직의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소비를 초과하는 과잉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생산자 관리이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가공 등 경영의 복합화와 유통망의 다각화(새로운 유통망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가령, 금산군 인삼산업, 홍도인삼마을, 바리실마을, 신안권역, 추부곶앞마을, 논산시의 햇빛촌바랑산마을, 딸기마을의 경우 마을축제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다양한 소규모 농가형 가공(백삼)을 통해 농가의 부가가치제고와 대규모시설투자의 위험성을 줄여가는 것과 동시에 홍삼 엑기스, 홍삼절편, 인삼주 및 인삼약초차 등 다양한 가공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경영다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지역자원의 종합적인 활용에 의해 좌우된다. 지역내에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 사회문화역사 자원, 자연환경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자원의 발굴은 곧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넷째, **내외부(전문가)와의 효과적인 연계, 유관기관 및 기구들간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횡적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지역내외부의 네트워크 역할).

대부분의 경우 혁신의 동력을 지역내부에서 찾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발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와의 연계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은 지역혁신에 성공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당진군 이경용 조합장 및 박정일 위원장, 보령시 이정학 대표 및, 김청한 위원장, 부여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여군 최병국 회장 예에서 보듯이 이들은 본인이 부족함을 알고 외부인 적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물론 그 계획의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농협 등 지역내 관련기관들과 횡적인 협조와 공동의 노력이 이뤄지고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전체로서 종합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조체계가 원활히 작동한다. 따라서 지역리더는 지역내 각 주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다.**

사례지역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또 그것이 지역혁신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은 지역의 내발적인 동력이 극히 쇠약한 경우, 외부로부터 혁신의 동력을 충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의 주체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즉, 지역이 얼마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동일한 정부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첫째, **지역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적 성향**이 우려된다.

조사했던 지역별 예와 같이 아직은 대부분이 소수의 지역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즉, 헌신적인 지역리더 1인의 역량과 희생으로 지역발전과 혁신이 유지되어가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수의 지역리더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종종 혁신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앞서 살펴봤던 금산군의 바리실마을의 박인호 위원장의 예가 다소 과도한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한다. 박인호 위원장의 마을개발에 대한 열정,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큰 갈망으로 인해 스스로 모든 것을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들이 지역리더다운 면모를 보이고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의 주민들에게 과연 박인호 위원장의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본다면 분명 위험한 요소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리더의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결정과 이익배분과정에 전체 구성원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리더의 유형이나 자질도 과거의 1인 중심의 영웅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에서 함께하는 리더, 시스템적인 리더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구성원 모두의 인식개선도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지역적 독자성과 차별성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지역혁신에 성공한 지역 특히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생산방법의 혁신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킨 경우가 많다. 가령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을 혁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지역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누구나 타지역을 벤치마킹하고 다시 이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간 독자성과 차별성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즉, 이러한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어서 독자성, 창조성이 계속 유지될 지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 ① 계룡시의 안중식 회장과 같이 친환경농업을 고수하고 타농업인에게 전파하며 확산하려는 시도는 예전이었으면 대단히 파격적·혁신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친환경

농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대부분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비춰진다. 물론 계룡시는 도시소비적인 성격이 짙어서 다른 사례와 같이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자세한 것은 뒤의 정책제안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 ② 금산군 등과 같은 마을축제는 타축제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역주민과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축제아이템의 신선함도 이제는 식상해져 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공부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관광, 1사1촌 등의 도농교류 행사를 통해 도시소비자들과의 직거래체계를 만들어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실을 거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내 인적·물적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대부분은 지역내 특정자원을 활용하여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했던 금산군의 홍도인삼축제, 홍도화축제, 추부포도축제, 바리실사과축제 등을 예로 들면 (물적 자원측면에서) 지역내 농특산물 자원을 이용하여 축제화에 성공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와 접목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 광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방문객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축제개최일수를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측면에서) 한참 바쁜 농번기에 축제에 동원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축제를 통해 소득향상 측면에서는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상을 주고 마을을 찾아온 내방객들을 뒤흔다꺼리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역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간 효과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에 리더의 역할과 기능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과 방향제시를 하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넷째, **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내부갈등의 증폭되고 있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

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에 성공적인 지역일수록 외부로부터의 이주자, 귀농·귀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귀농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구성원들도 매우 다양화, 이질화되어 가고 있고 구성원들간의 이해갈등도 증폭될 것이다.

앞서 살펴봤던 예들 중에서 논산시의 딸기아줌마 남기순 대표, 보령시의 서해농장 이정학 대표, 아산시의 세계꽃식물원 남기중 대표 등은 귀농한 자들로서 (고향은 충남내, 혹은 시군내 다른 읍면동) 초기에 주민과의 갈등을 혹독하게 치루었다. 지금까지도 그런 갈등이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이주인에 대한 배척,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보령시 이정학 대표는 혐오시설인 축사건립 문제로 법적인 소송과 처벌까지 갔었던 터라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깊은 상처는 아픔이 아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섯째, 주민들 역량강화보다 정책사업 유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있다.

금산군의 바리실 마을·홍도인삼마을·추부갯잎마을, 논산시의 딸기마을, 당진군의 당진낙농축협 예를 보면, 본인이나 행정측에서는 성과물로서 대부분 정부정책사업을 거론하고 있다. 주민의 사전 합의와 참여가 전제되지 못한 채 서둘러 리더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은 결국 영속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先 사업유치, 後 사업시행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참여시키는 노력, 지역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른바 거버넌스에 대한 의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여섯째, 내발적 발전의 동기부여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조직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리더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내용이기도 하나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을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지역구성원들의 내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다.

현대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아니라 시스템에 입각한 리더십, 지역 내 각 주체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리고 내발적 발전의 동기부여를 통해 사업의 실행과정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다양한 동기유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컨센서스를 도출해내고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개별주체들을 조직화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실태조사의 리더들에게서는 관리적 리더십은 보이나 주민들에게 내발적 발전의 동기부여를 하는 소위, 보이지 않는 활동인 커뮤니티 리더십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일곱째, 각 주체간의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이 불충분하다.

성공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뤄내는 곳에서는 지역발전계획이 단순히 계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초한 사업실시와 그를 위한 조직화, 동기부여, 더 나아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일련의 ‘plan-do-see’, ‘learning by doing’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지역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실태조사에서는 그런 점이 부족해 보였다. 정부정책사업을 유치하기 전에 주체간 소통과정을 거쳐야 하나 실제로는 핵심리더와 주변참여자 몇몇이 계획을 하고 유치하기에도 벅찬 현실 때문이다. 주민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소통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의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항상 잡음과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아까운 노력들이 소모되는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지역리더는 결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참여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구성원간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plan-do-see’, ‘learning by doing’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1. 정책제언

이상과 같이 리더의 조건을 필두로 실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공통점, 주요 과제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지역발전, 마을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바로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강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대응능력이나 방식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주체적인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자금배분방식도 지역의 역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주적인 역량만 갖추어진다면 중앙정부의 정책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신활력지구사업 등이 있다.

현재 지역이 처한 제반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하지만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지역자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조직화 방안을 강구해나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지역활성화는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사업신청 지원은 당연히 행정 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내에 이기주의 및 개인주의 불신이 만연해 있고 지도자는 존경보다 오히려 지역갈등을 조장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활동한 리더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을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부실화로 인해 사업이 없어지고 사후관리도 실제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농가들의 소득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참여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운영주체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 못하게 되어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부재한 게 사실이다. 주민간 불신도 가득해서 5천원 이상만 쓰게 되면 운영비 집행지급신고를 의무적

으로 해야 하고 특히 지역내 시민단체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리더나 행정측에서는 활동상 위축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각종 규제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초래 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인력육성과 리더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 발전원동력으로 교육과 문화, 소득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정책제안사항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후계리더 인력발굴과 양성시스템 구축, 둘째, 지역역량강화 계획 수립과 충남 농촌지역 리더쉽 교육프로그램 운영, 셋째,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예산과 제도 인프라 기반조성, 넷째, 지역의 문화·사회·정서·역사 여건의 종합적으로 고려된 차별화 정책 수립이다.

1) 후계리더 인력발굴과 양성시스템 구축

한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충남의 농촌지역은 인구고령화·감소화 등으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과 맞물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역리더로서 활동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자주 소개되곤 한다.

하지만 리더들의 활동실태를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자신의 역할을 이룰 수 있는 후배인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후계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후계리더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에 따른 정책제언으로 첫째, 충남 자체 후계인력 전문양성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농업정책과 연계한 후계 농촌지역리더 및 인력양성을 위한 멘토링 제도 도입, 비전·기술·가치공유를 위한 노력과 공감대 형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리 마련 등이 중요한 정책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리더는 자신의 일을 희생하고 바깥일만 돌보다가 본업인 농사일과 가정일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의 대안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권역별 사업하는 방식과, 잘되고 있는 지역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인력 양성일 것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둘째, 주민간 결합, 역할분담, 상호협력,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리더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관심 및 호응부족, 행정기관의 이해 및 협조 부족, 지역사회 관련단체들 간 대립 및 갈등이었다. 주민과, 사람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당초의 의지와 추진력이 꺾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여성리더일수록, 경력이 짧은 리더일수록, 저소득층 리더일수록 지역주민 관심과 호응에 애로사항이 많은 게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의 고유한 특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자리를 의도적으로라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역역량강화 계획 수립과 충남 농촌지역 리더쉽 교육프로그램 운영²³⁾

지역발전의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구성원의 기술과 지식수준, 가치관이나 인식,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사아의 협력과 지원, 상호작용, 신뢰 등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교육과 학습,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지역발전의 일차적 요소로 강조된다. 즉,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총체적 역량증대를 위한 학습이 중요하며, 지역내 혹은 지역 간의 모든 학습과정은 사회적자본과 함께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 충남형 농촌지역 리더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리더는 이러한 지역혁신과 상호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선도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오늘날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지역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총체적 접근이 불가피한데 이는 현재의 농촌지역문제가 카리스마적 개인 리더쉽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 전체의 참여와 함께 실천하면서 학습하는 집단적 리더쉽, 커뮤니티 리더쉽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는데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거나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즉, 단순한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사업을 실행해 봄으로

23) 참고자료 :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교우사

써 배워가는 실천학습 프로그램이다. 전자와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많은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역량강화란 근본적으로 대상지역 주체들의 공동실천을 통해 배양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집합적으로 학습효과를 통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박진도, 2011). 즉,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이나 파트너십 형성 계획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하며, 리더십 개발이나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EU에서 실천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도 역량강화가 집단적이고 실천적이며 공동학습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리더가 희망하는 리더십 교육 영역으로는 정부정책의 이해, 주민들간의 갈등조정, 분야별 전문기술, 조직활동방법 등을 꼽았다(유정규, 2011).

결국 리더십 교육은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유도를 골자로 하고 충남 농촌지역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3) 현실적인 예산과 제도 인프라 기반조성

첫째, 농촌지역 리더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농촌리더가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자본의 확대(네트워크 구축 등)를 지원해야 한다. 마을리더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 요구된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중요역량과 실제 역량의 진단·분석 기초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대면적인 컨설팅 및 실습 통한 역량강화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별 역량별 진단을 통해 역량의 중요도와 실제 역량간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집중 강화하고 나머지는 순차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마을개발 사업시 최소의 운영비 창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개발사업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꾸준한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자구책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의 농촌지역 여건상 자체적으로 수익창출을 내기에는 힘든 면이 많다. 따라서 농가소득과 바로 직접 연계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아이템 발굴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경제 조직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마을 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이를 스스로 벤치마킹하게끔 하고 마을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전문가 파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책 지원은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넷째, 운송수단 및 차량유지에 대한 지원, 리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보장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시간과 비용의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활동 불가한 게 현실이다. 본업과 가정에 소홀히 하면서까지 마을과 지역의 일을 돌 보기 때문에 정작 리더 본인은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활동 부족, 소득저하, 지출비용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볼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만든다. 이에 기본적인 생계보장비, 운송수단 및 차량유지비 지원 등 활동비 지원이 현실적인 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지역의 문화·사회·정서·역사 여건의 종합적으로 고려된 차별화 정책 수립

해당지역을 알고 그 지역의 리더를 알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사회·정서·역사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민의식의 특수성, 지역색을 먼저 파악해야 그 이후의 사건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리더활동실태를 살펴보기 이전에 지역현황에 대한 짧은 개요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

즉, 지역별로 고유한 특징에 따라 리더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사회·정서·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리더 개념도 그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계룡시나 아산시와 같이 소비성이 강한 도시에서 지역리더로 활동하는 여건과 부여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지역리더로 활동하는 조건과 결과물은 분명 다르다. 이들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선, 리더활동에 적극 찬성하게 된 계기, 활동과정에서의 에피소드, 갈등해결과정 등 모든 것이 다르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맺음말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²⁴⁾은 올바른 생활모습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이다. 리더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공유되도록 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지역현실을 파악하여 추진력을 조절하는 인내력도 필요하다. 꼼꼼한 기록, 청렴성, 일정정도의 카리스마와 결단력, 장기적 계획을 세우며 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의 자세,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농협, 행정과 함께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개발의 바람직한 추진방법과 리더의 역할은 농촌 지역현장의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주민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행정, 농협, 리더가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설득을 통해 조그만 일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자신감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소비자와의 만남 자리를 자주 갖고 서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 계획 속에서 세부 추진일정까지 함께 세우고 실천하여 주민들이 모든 일을 항상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활동도 중요하다. 지역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의 준비기간을 1년 이상 거치며, 현지 실정에 맞는 변동적 사업비 정부지원으로 빠른 시일에 정착화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한다, 지역에 있는 리더가 한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시행된 본 연구는 당초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부족한 점이 많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리더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으로 실현화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진한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은 후속과제를 도출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로, 마을단위별 실적과 사례를 통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성공한 마을과 실패한 마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도출한다. 예상컨대 실패의 원인으로는 역량부족과 같은 사람문제, 사업이 포화된 상태여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각종 운영의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들면, 마을단위 축

24) 참고자료 : 지역재단(2006), 지역발전과 리더십 : 지역리더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리더 아카데미 워크샵 자료집

제의 경우 사업비가 지원되었을 경우와 지원이 중단되고 난 이후의 경우를 비교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둘째, 리더의 유무가 지역발전, 마을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입증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연구의 주된 흐름과 내용은 '리더가 있는 지역은 발전을 하게 되고 없는 지역은 발전이 더디게 된다'는 것인데 실제 비교분석 실시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리더의 중요성, 필요성, 정책의 반영 등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남선(2005),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학습체계 모색 : 지역사회조직을 중심으로', 농정연구센터 논집 통권12호, (사)농정연구센터
- 김남선(2010), '마을평생교육리더 양성과정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3호,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남선·원용숙(2003), '민간단체 사회자본 정도와 리더쉽과의 관계', 농촌사회 제13집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 농식품부(2004),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05-09)」
- 농식품부(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10-14)」
- 농식품부(2011),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
- 박경·정재호·유정규·송두범·조수희(2006), 「충청남도 농촌지역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발방안」 기획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박은식·이채식·고정숙·황대용(2005), '농촌리더의 특성 및 리더십역할수행 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농촌지도학회
- 박은식·이채식·박덕병·고정숙(2006), '지역사회리더 리더십역량의 중요·성취도 분석', 농촌계획 제12권 제1호, 한국농촌계획학회
- 박진도·황수철·양병찬·유정규(2004), '농촌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사)농정연구센터
- 박진도(2006), 「지역혁신과 지역리더의 역할」, 양구군 리더교육자료, 지역재단
- _____(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농촌희망재단 농업교양도서, 교우사
- 오승영·박천오·진중순(2010),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연구 :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9권 제1호, 한국인사행정학회

유정규·황수철(2004), 「지역리더의 농정참여실태 및 개선방안」 지역재단·농림부
 유정규(2009), 「새로운 지역발전시대의 지역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차 정책토
 론회자료집』)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민의원연구모임·지역재단
 유정규(2011), 「충남 농업·농촌인력육성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략과제, 충
 남발전연구원
 유학열·조영재·정혜영(2009),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강화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기본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재단(2006), 「지역발전과 리더십 : 지역리더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리더 아카
 데미 워크숍
 이재준·이상문(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제38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2009), 「중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2008년 추진결과보
 고서」
 허장·정기환(2002), 「농촌마을의 리더십 구조와 역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443,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허장·정기환(2003),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십」, 농촌사회 제13집 1호, 한국농촌사회
 학회
 황영모·이순미·유정규·소순열(2009), 「농촌리더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농업생산
 자조직 리더를 사례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축산경영학회
 황영모(2006), 「지자체의 농촌리더 육성에 관한 연구」, 기획논단, (사)농정연구센터
 충남통계연보, 각연도
 계룡시 통계연보, 각연도
 금산군 통계연보, 2010
 논산시 통계연보, 각연도
 보령시 통계연보, 각연도
 부여군 통계연보, 2010
 아산시 통계연보, 각연도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강마야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송주연 연구원

연구자문 ·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

전략연구 2011-15 · 충남의 농촌지역 리더활동 실태조사

글쓴이 · 강마야 · 송주연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1년 12월 31일 / 발행 · 2011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10(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85-4 03350

<http://www.cdi.re.kr>

©2011.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